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티끌 세상 것이냥 보통 일 아니니
고해 같 싸 참고 한바탕 벌일 일이다.
애서픈 추위가 뼛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떻게 매화 한 기 코를 치르랴.
-한역스님-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시설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4월 19일 수요일 (주간) 제 267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교계에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심마니(simmany)에 따르면 300여 개의 불교 사이트들이 오픈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불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고 또 타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공자(사이트)는 '다양하고 '진실'한 정보를 공개하고, 수용자(네티즌)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그물코처럼 연결해 유용한 정보로 가공·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디지털을 다루는 능력'을 뜻하는 '디제라시(digiracy)'라는 말을 한번쯤 생각해 볼 시점인 셈이다. 디제라시는 'digital'(디지털)과 'literacy'(읽고 쓸 줄 앎)를 합성한 신조어다.

지난해 4월 개설한 '불교교양강좌(studybud.buddhism.org/)'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이지만, 불교문화·교리·수행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10개월만에 2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불자 네티즌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교계 최대 종단인 조계종이 개설한 달마넷(www.dharmanet.net)의 경우, 12개월간 5만여 명이 방문했다.

정보 분석-가공
디지털 시대의 힘

'불교교양강좌'의 운영자인 이재윤 씨는 "디지털화 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그것을 즐는 네티즌의 관심사는 오직 '알찬 정보'일 수밖에 없다"며 "21세기에는 정보를 선별하고,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사회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축적이 중요했지만,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유통과 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문가들은 "보다 많은 사이트를 방문해 정보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이들 정보를 엮어서 더 구체적인 내용(콘텐츠)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는 사람이, 그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 이들 내용을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gobaocu@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남북 문화교류 선도-상생의 가치관 구축

"통일시대 불교역할 찾자"

조계종 등 "남북 정상회담 환영"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따라 남북불교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교계의 대북교류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불교계에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새로운 가치관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은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걱정도 큰 것이 국민들의 심정"이라며 "남북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서로 제역할을 다할 때 상생을 이룰 수 있다는 화엄의 가르침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회장 법타스님은 "불교야말로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가장 뿌리깊은 종교이며,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시켜주는 기반"이라며 "그동안 통일운동에 기여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불교계의 의지와 원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장 종단과 단체간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사안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협의기구 설립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는 정부에 종교 및 전통문화, 문화재 교류와 관련된 의제를 제시하고 교류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종단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 북한문화재의 남한 전시, 문화재 공동조사 등 문화교류를 현실화하기 위해 북한의 유물총국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북한의 창구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종단협의회 산하기구인 민족화합불교추진위를 협의기구화하는 방안 또는 각 종단 대북교류 담당자 협의체 구성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스님(조계종 종회의원)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놀라운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불교계의 대비는 신중하되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은 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문화유산 북원사업이 의제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각 종단은 북한불교와의 교류 대북을 세우고 있다. 조계종은 이달 갈 가창 한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결성하고 통일종책 개발, 기금 조성 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태고종은 올해 종무행정 3대 사업중의 하나로 북한불교와의 교류를 정하고 우선 북한불교 도돕기 및 대북포교기금 1억5백만원을 모금하기로 했다.

천태종은 조불련의 영통사 복원 지원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진각종은 5월 23~30일 북한을 방문, 컴퓨터 작업학교 개설과 국제성작자연합 결성에 대해 조불련과 논의한다. 종단협의회는 올 가을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남북불교 통일토론회 개최를 적극적추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2, 3, 6, 9면)

이경숙·정성운 기자
(gslee@buddhapia.com)



위없는 가르침 받들어… "위없는 가르침을 받들어 모든 중생들이 화엄의 세계로 가기를 서원합니다." 14일 40번째를 맞은 해인사 정대(頂戴)불사에 동참한 4천여 불자들이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화엄일승법계도를 따라 돌고 있다. 이윤호 기자

문화재보호법 개정 요청

조계종, 국무총리실·문화부·문화재청에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 비지정 문화재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4일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에 정식 요청했다.

지금까지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은 불교 문화재 전체 도난 건수의 94.8%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계법령이 느슨해 도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조계종이 개정 요청한 문화재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지정 문화재와 같이 범죄 요건을 정하고, 도난을 사유로 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고, 지정 및 일반동산 문화재를 절취하여 은닉한 경우 은닉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것 등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적으로 문화재사범의 처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의 수정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현재 2명으로 구성된 문화재청의 사법단속반을 확대하고, 검찰 내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를 추가 요청하는 한편 사찰 소장 문화재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또 전통사찰 주변 건축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20일 조계종 종헌특위

조계종 종헌·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종헌특위, 위원장 정휴)가 20일 열린다.

146회 임시종회(3. 14~18)에서 재구성된 종헌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이 중앙종회에 제출한 종헌 개정안에 대한 심의 일정 등 향후 종헌특위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민족화합불교추진위 '존속'

통일교육-캠페인 중점

조계종의 대북교류기구 신설로 존폐 위기에 놓였던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불추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결치기로 결정했다.

불추위는 7일 조계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확대 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진각종과 태고종 등 북한교류사업을 결치고 있는 종단과 북한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불추위는 또 기존의 대북 지원사업이 각 종단별로 활성화됨에 따라 경화캠페인, 통일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집행위원장 명진스님(조계종종회 부의장)이 조계종 대북교류기구 참여로 사퇴함에 따라, 불교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상임추진위원장인 원택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조계종을 비롯 태고종 진각종 등 각 종단이 참가해 지난 97년 종단협의회 산하단체로 발족한 불추위는 그동안 북녘동포돕기 -식량지원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결쳐왔다.

김재경 기자

수도권 신도시 '교회 즐비'

종교시설 91.6%가 교회…사찰 5.1%뿐

분당 일산 중동 광촌 산본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는 교회·성당이 사찰보다 무려 20배 이상 많아 신도시 포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종교시설은 780개(도표 참조)로 '종교도시'를 방불케 한다. 그러나 종교별로는 전체 780개 종교시설중 기독교가 715개(9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불교 40개(5.1%), 천주교 15개(1.9%), 기타 10개(1.3%)순. 사찰 및 포교당이 교회 숫자의 18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신도시 포교에 경종이 울리고 있다.

신도시 종교시설의 증가는 입주 초기인 지난 93년보다 2배 이상, 신도시 입주 직전인 지난 90년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일산 393개, 분당 150개, 산본130개, 평촌 57개, 중동 50개순으로 많다.

종교시설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중산층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들 지역에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포교를 하고 있다. 종교시설이 신도시로 몰려드는 이유는 땅값이 싸고 건물신축이나 임대가 용이하며, 전출입이 잦은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이기 쉽기 때문. 이들 종교시설은 다른 주택가보다 시설수는 많으나 시설당 평균 신도수가 적고 개척 시설이 많으며, 대부분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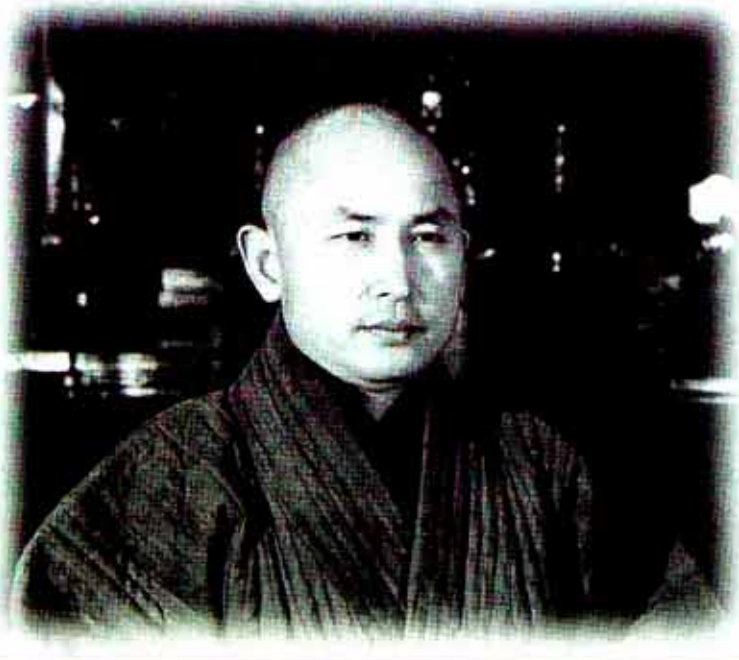
하지만 종교시설간의 지나친 교세확장과 신도확보 경쟁, 비싼 임대료로 인한 자금난 등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종교시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유지호 포교과장은 "각 교단들이 갈수록 신도시 포교에 역점을 두는 것 같다"며 "신도시 종교시설들은 대부분 가까운 근린상가 등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 포교당 중심의 새로운 신도시 포교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천년태양 여의주 입에물고
장엄한 아침龍이
거룩하게 솟아올라
大우주를 토해 내니

玉龍子 스님의 구도적 예술세계



불기 2544년 부처님오신날
제 5 회
민족평화통일·불교 중흥기원 불교문화제전

玉龍子 석지형 스님
大吉祥圖 作品展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불국정토 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5월 7일 제1회 작품전을 거행한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제5회 대길상도 작품전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대길상도는 각급기관 美國대사관등 국내외 여러 인연처와 각급단체 언론사등에 작품이 전수되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획득한 독창성과 예술성 높은품격 국제적보편성을 인증받은 세계적 작품입니다.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 나투심을 봉축하는 대길상도전을 봉행함에 있어 무려 10여m에 이르는 대작등 정성다하여 밤새워 조성한 작품들을 모아 장엄하고 환희 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대법회 : 2000년 4월 26일(수)오전 11시
❀ 장소 : 잠실 호텔롯데월드 3층 특설대법회장, 전시관
❀ 작품전 : 2000년 4월 26일(수)정오 12시 ~ 4월30일(일) 오후 6시(5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기념불교문화대강좌 : 작품전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 오후 1시까지 특별대강좌 마련
❀ 기념불교문화대제전 : 작품전 기간 중 불교전통문화행사
❀ 불자연예인 공연 : 불자연예인단의 특별공연

※ 참석하신 불자님께 대길상 호신불 목걸이, 교통안전호신불, 기념엽서, 기념염주, 공부하는 자녀를 위한 길상도 용품, 비디오 법문테이프등을 증정하여 드립니다.



玉龍子대길상도의장 미국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 日本정부 특허청 특허획득은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일입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전세계에 널리 전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소림불교아카데미
소림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511-6210~5
3443-9871~7 FAX:511-6216

500사찰-불우이웃 '결연'

조계종 부처님오신날 맞아 '자비의 손길' 펼쳐

조계종총무원은 올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500개 사찰에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장애인가정과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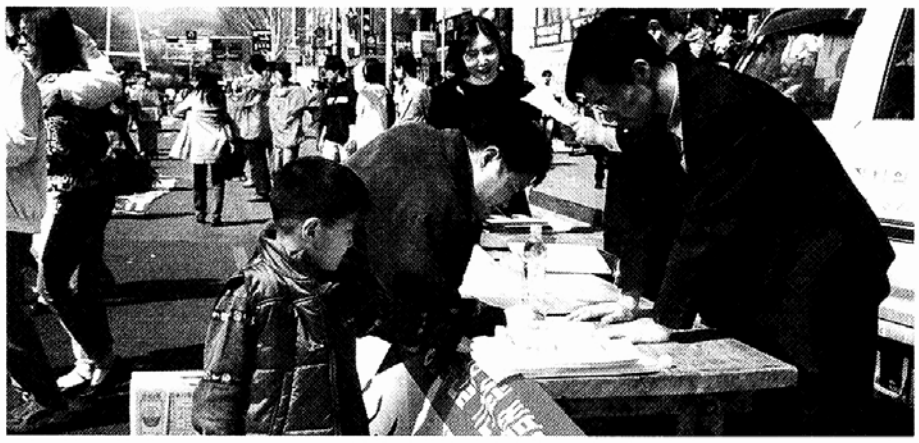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사회부는 12일 '부처님오신날 자비의 손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사찰이 관내의 어려운 이웃 10가구와 결연을 맺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종무기관에서 종로구 관내 10개 가정과 결연을 맺고 매월 생활보조비를 보태주기로 했다. 이미 10개 가정을 선정했으며, 총무원 6개 부서와 교육원 포교원 종회사무처 복지재단에서 1개 가정을 후원하기로 했다. 27일 첫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결연을 위해 후원금 전달에만 머물지 않고 방문 및 초청 등의 행사를 다양하게 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대해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 모든 종무원이 급여에서 매월 4000~10000원씩을 모금해 재원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결연 사업과 함께 이번 초파일을 맞아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 교육원장 포교원장, 각 부서장이 관음대비원과 둥지청소년의집 제천자애인복지관 국립재활원 등 복지시설을 방문, 성금을 전달키로 했다.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부처님오신날부터 올 상반기까지 500여개 사찰에서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며, 올 한해 동안 '자비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산스님은 또 이미 많은 사찰에서 자비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며 각 사찰의 결연사업을 취합해 자비문중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봉축위원회는 15일 각 사찰에 '자비의 손길' 안내자료집을 발송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방한 지지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 범불교대책위'가 8일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달라이 라마 방한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11일 달라이라마의 일본 일본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만의 천수이볜(陳水扁)총통 당선자도 20일 거행도는 취임식에 달라이 라마를 공식 초청, 달라이 라마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김재경 기자〉



◇정토회 회원들이 정토법당 원장 유수스님의 지도로 관음정근을 하며 평화통일을 발원하고 있다

통일기원 100일 정진 '후끈'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분위기 고조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일과 이산가족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1일 발족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불교연대'(1000일정진불교연대)의 수행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소식이 알려진 10일 저녁, 1000일정진연대의 주관단체인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3월1일부터 40일째 '민족 화합과 통일을 위한 24시간 1000일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번 1000일 철야정진은 불자 한 사람이 통일을 위해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 동포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끝내고 민족통일의 서광이 비치는 2천년을 만들자는 원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달 혹은 1백일, 6개월, 심지어는 3년간 하루 1시간씩 꼭 기도하겠다는 원을 세운 사람들이 앞서 주었고, 목탁을 치며 관음정근을 신심나게 하고 있었다. 매일 30명 이상이 동참해 벌써 1400여명이 기도정진에 동참하고 있다.

"2010년까지 통일을 이루는 데는 앞으로 1000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법륜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릴레이 정진은 1000일정진불교연대의 핵심사업으로 2002년 11월26일까지 진행되며 전국민의 동참을 바라는 뜻에서 1시간씩 교대로 이어진다.

정토회는 또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동포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통일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운동도 벌이고 있다. 기금조성을 위해 시민들에게 나눠온 돼지저금통은 '통일 돼지'로 명명돼 이미 1500여명이 받아갔다.

1000일 정진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불교신자와 일반 시민들이 통일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는 '통일강좌'도 실시된다. 정부 당국차원의 통일사업도 중요하지만 민간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박노해시인, 장정구(동국대)교수 등이 강사로 나와 강의하고 열띤 토론도 벌였다.

정토법당 원장 유수스님은 "1000일 기도정진은 신행운동이자 민족돕기운동이며 통일운동"이라면서 "통일 이후의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불자 모두가 남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화합의 통일을 이루는 원력보살이 되자"고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TV파산 초읽기

빌딩주 경매신청 노조 "이달말까지 방송"

경영위기에 놓인 불교TV가 10일 금오전기측에 의해 건물 명도소송과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진에서는 경영난 타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에는 진짜 파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금오전기는 밀린 임대료 10억여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불교TV를 상대로 3월 23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관 사무소에 경매 신청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불교TV 노조는 이미 지난주에 회사 구제 방안으로 '체불임금 지급 청구'를 명목으로 한 방송기기 차압을 신청해, 금오전기측이 일단 경매 집행을 연기한 상태다.

만약 금오전기가 경매 집행을 강행한다면 노동법상 약 8억여원인 불교TV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8억5천만원으로 감정 평가된 방송기기를 경매하고 나면 자신들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오전기는 지난해 9월부터 건물 철거 명도소송을 신청해 놓고 있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직장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윤상호 불교TV 노조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경영진에서 처방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방송을 중단하고 노조원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송출 중단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이달 말 경으로 예정돼 있는 이사회에서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파산은 불보듯 뻔할 것이라는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이수덕부사장은 "금오전기 부사장과 만나 명도소송 집행을 이달말 이사회때까지 연기해 놓은 상태"라며 "계속해서 이사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산 신청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해 사태가 급박해졌음을 내비쳤다.

현재 총 30여명의 이사중 불교총지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계속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어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이에 대한 교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초파일 위문품보내기

군불교진흥회

군불교진흥회(회장 정각)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군장병 불자들에게 위문품 보내기 운동계획을 확정했다.

군불교진흥회는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합장주, 〈진언집〉〈삼세인과경〉 등의 소책자, 10여종의 과자 등이 담긴 위문품 2만여개를 보내기로 하고 현재 제작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각 종단, 사찰, 신행 단체 등에 후원활동을 벌여 더 많은 위문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5월12일까지 모금을 받고 위문대 포장 행사는 5월7일, 위문품 전달식은 5월10일에 개최한다. 위문품은 군법사가 없는 700여 법당에 우선 500개씩 전달하고, 이어 전방과 군법당 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군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하면 군장병 앞으로 위문품을 보낼 수도 있다. (02) 749-5135.

강지연 기자

타종교 배우는 열린 시민대학

부산 종교인모임 5월 18일부터 목요강좌

부산의 젊은 성직자들의 모임인 부산열린종교인모임이 열린종교시민대학을 개설하고 종교의 벽 허물기에 나섰다.

부산열린종교인모임(상임대표 심산스님)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5월 18일 통도사부산포교원 화엄회관에서 열린종교시민대학을 연다.

6개월 과정의 열린종교시민대학은 매주 목요일마다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 불교 순으로 한 종교당 4주 강의와 한 주 특강으로 진행된다. 교과과정은 각 종교별로 1주 종교의 문화, 2주 창시자의 생애, 3주 기초교리, 4주 말씀과 삶(신행), 5주 특강의 순으로 마련되어 열린 종교, 열린 실천을 이끌어내게 된다. 또 각 종교의 의식과 신행형태를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해 실질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5월 18일 열리게 되는 첫 강의는 정진흥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의 '새천년의 종교 의식'이라는 주제 강연으로 종교 전반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종교의 방향성을 찾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열린종교시민대학의 운영은 5개 종교가 함께 한다. 통도사부산포교원 심산스님을 상임 운영위원으로 송영웅 풀빛교회 목사, 박칠 송도교구 천도교 포덕사, 윤희중 해운대 나눔의 집 사관이 각각 운영위원을 맡아 공동의 책임하에 종교의 궁극적인 합일점을 찾는 시민대학으로 운영해 나가게 된다. 또한 허평길 부산대 철학과 교수를 비롯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강의 내용, 교과과정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열린종교인모임은 30-40대의 젊은 성직자들의 고임으로 지난해 사랑의 트라이앵글 모금운동과 '구원과 깨달음'이라는 주제 토론을 열어 관심을 모아왔다.

학장 심산스님은 "종교갈등은 타종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며 "타종교에 대한 편협된 생각을 버리고 각 종교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대학을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051)816-2241.

부산=천미희 기자

조계종 승가고시 강화 자격검증 시험으로

조계종 4급 승가고시가 강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그동안 구족계 받기전 형식적으로 치뤄졌던 승가고시를 검증위주의 자격고사로 바꿔 승가의 자질향상 및 기본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4급 승가고시는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초선원 및 강원을 졸업한 사미·사미니를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된다.

교육원은 5월 말 승가고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승가고시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다.

한편 21일 열리는 교육원 회의에서는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추진 보고 △국·내외 장학승선발 △종비생 추천제도 개선의 건 등을 논의한다. 김원우 기자



불기 2544년 부처님오신날

불교 음악의 향연

봉 2000 광주·전남 불교 합창 예술제 축

사생자부하신 거룩한 부처님께서 무명속에 헤며이며,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이 사바 세계에 몸을 나투셨습니다.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음악의 향연을 사부대중과 함계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4월
광주불교 사암연합회
회 장 천 운 합 장

▸ 일시 : 2000년 4월 23일 (일요일) 오후 7시
▸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주최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 주관 : 광주 전남불교 보리살타 연합합창단
▸ 후원 : 광주불교사암연합회합창단, 백양사합창단
향림사합창단, 증심사합창단, 한마음선원혼성합창단
▸ 협찬 : BBS광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광주, 전남·북지사
문의전화 : 062) 375-9986

1부
· 증심사합창단
· 향림사합창단
· 사암연합합창단
· 백양사합창단
· 한마음선원 혼성합창단

우정출연
· 광주불교 소년 소녀 예술단
· 정광고등학교 "댄들" 팀
· 광주원불교 합창단
· 한마음선원 거사림합창단

2부
· 합 창 : 보리살타 연합합창단
· 지휘자 : 김선주
· 반 주 : 김재섭 외 12명 (도드리 국악 실내악단)
· 석가세존
· 초파일송가
· 붓다 (탄생, 고독, 유관, 출가)



※ 입장은 무료입니다.

목어

부끄러운 마음

얼마 전 외신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외국인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라고 보도했다. 무엇이 그들을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 상식에 맞는 정도보다는 관행으로 젖어버린 편법 때문일 것이다.

10여년 전부터는 외국의 근로자들이 많이 취업해 들어왔다. 낮은 임금과 학대에 가까운 인권의 사각지대를 생각해 보면 외신을 하나도 나무랄 처지가 못된다. 필자는 매년 의료봉사차 네팔에 들리는데, 한국에 체류했던 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듣고 보았다.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지난 11일 '풀꽃세상'이란 작은 모임에서 푸스카르 사하(30) 님과 찬드라 구룽(여) 님을 초청해 그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전하고 죄송한 마음을 속죄하는 행사가 있었다. 행사라기보다는 아름으로 모인 풀꽃세상의 회원들이 진지하게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네 속내를 헤집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푸스카르 사하란 청년은 13년을 기약으로 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면서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고, 찬드라 구룽은 보도된 바 있듯이 6년 동안 부녀보호소와 정신병원을 전전한 네팔의 근로자이다.

찬드라 구룽을 그토록 오래 방치(?)했던 밑바탕에는 외국인을 경시하는 부끄러운 치부 때문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 더욱 부끄럽다. 천신만고 끝에 세상에 알려진 첫 보도는 찬드라 구룽의 삶과는 거리가 먼 기사꺼리로만 취급되면서 더욱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문제는 6년 동안 그를 찾으려는 노력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한 당국자의 자세가 아쉽다. 그가 질병이 있건 없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루트나 작은 관심만 있었어도 찾을 수가 있었다. 네팔근로자 공동체나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해 둔 상태였으니 말이다.

외국인이라고 다 그런 대접인가. 아니다. 강하다고 생각되는 외국인들 앞에선 비굴하고, 약한 외국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 오만스러운 우리 모습을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우리들의 속내에 도사리고 있는 비굴성과 오만감을 직면하고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아보자.

이근후(이화의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초파일 · 성도절 기념법회 열어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살펴본 북한불교

사찰 61곳 · 스님 300명 · 신도 1만명



◇북한 주민들이 개성 관음사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북한은 88년부터 초파일 성도절 열반절 기념법회를 매년 봉행하고 있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북한지역에는 3백60여곳의 사찰이 있었으나, 6. 25 전쟁으로 대부분 제모습을 잃어버렸다. 공산정권이 들어서며 실시한 종교탄압 정책과 토지개혁으로 사찰 재산 및 사찰소유 산림이 몰수되었다. 46년 당시 몰수된 종교단체 소유 토지는 북한지역 전체 토지의 1.4%에 달했다.

현재 북한불교의 외형적인 모습은 사찰 61곳, 승려 300명, 신도 1만여명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신행활동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류성민 한신대교수는 〈북한주민의 종교생활〉(공보처, 1994)에서 "귀순한 사람들의 북한 종교실태에 대한 증언을 종합해볼 때 북한에는 종교가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단지 흔적 정도로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5차례 북한을 방문한 법타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회장)은 "국가적으로 불교를 믿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별행사 때의 설법, 가정방문을 통한 포교 등이 불교 승려의 주된 활동이고 전문적인 교리의 포교자료는 미비하다"며 제한적으로나마 불교활동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았다. 법타스님은 또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으로부터 북조선 불교는 남조선과 같은 조계종이며, 소의경전도 금강경과 반야경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승려 양성은 평양의 3년제 불교학원에서 맡고 있으나, 한국처럼 행자-사미-비구의 체계는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사찰에 삭발승이 늘고 불교용품을 파는 불구점도 생겨난 것으로 전해진다.

88년 5월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를 최초로 봉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초파일, 성도절, 열반절 기념법회를 보현사 광법사 용화사 등에서 개최하고 있다. 특히 92년 초파일 법회 때는 찬불가를 합창하고 탑돌이 등 전통의식을 재현하기도 했다.

지난 해에는 조선불교도연맹의 초청으로 방북한 지선, 명진, 성조스님 등 불교추진위 대표단, 성초 통리원장 등 진각종 대표단과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으며, 이때 북한의 신도들이 삼귀의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찬불가 사홍서원를 불렀다.

북한지역의 불교 및 종교활동은 북한 정권의 종교정책이 좌우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상 종교단체는 당의 하부기관일 수밖에 없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0년대말까지는 사회주의적 반종교 논리를 근간으로 반종교정책을 폈다. 김병로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58년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을 통해 종교인들을 반동분자로 분류하여 격리수용 또는 감시 및 차별적 대우를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70년대는 반종교정책을 펴면서도 조선불교도연맹과 조선기독교연맹 등 종교단체들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변화를 모습을 보였다. 73년 8월부터 대외관계의 변화에 따라 상호교류 및 외국에서의 접촉을 통해 북한종교인들의 통일전선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80년대는 남한출신의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불교대표단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인 시기이다.

90년대에는 북한지도부의 종교 인식이 공식적으로 변했음을 밝혔다. 92년 개정헌법에서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했다. 당장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보장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북한 내 개신교신자는 1만여명, 목사 20명, 천주교신자는 800여명, 신부 · 수녀는 없다. 원불교는 290여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천도교는 해방 당시 신도 280여만명으로 북한에서 가장 큰 종교세력이며, 지금도 1만5천여명의 신도가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불련은 어떤단체

45년 창립…北불교 대표 기아구호관련 활동 늘어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은 북한불교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45년 12월 북조선불교도연맹으로 창립됐으나, 73년 활동을 재개하기까지 북한의 반종교정책의 영향으로 활동은 거의 없었다. 이후에도 남한에 대한 비난 성명 발표 등 정치선동의 역할에 그쳤다. 92년 북한의 헌법 개정과 식량난 해결을 위해 남한의 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조불련은 4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정부 정강을 받들고…조국의 국토안정과 완전 자주독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등 7개항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법타스님은 "이와 같은 강령으로 활동해온 조불련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동조 또는 협력하는 조직으로 결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했다.(북한불교연구, 민족사, 2000)

현재의 위원장은 박태화 선사로, 법명은 학림(鶴林)이다. 올해 81세. 79년부터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종교인협회 부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남한불교계와의 접촉에는 황병준 부위원장과 심상진 서기장, 임성훈 평양시 부장 등 3인이 주로 나온다.

정성운 기자

인터뷰 내달 말 북한가는 장지현 정사

"성보 합동조사 등 교류 확대"



북한땅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지난 95년, 북한을 방문, 사찰답사등을 하고 방문기를 본지에 연재한 장지현 정사(진각종 북지재단 사무국장). 95년부터 매년 북한을 방문해 남북불교교류에 한 역할을 담당해온 지현정사이기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대하는 감격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그동안 냉전관계였던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도래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표현한 지현정사는 "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돼다보면 사회 · 문화적인 교류의 물꼬도 활짝 트이게 되고 따라서 불교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50년 분단의 세월을 종식하고 통일로 가는 길목에 선 만큼 서두르거나 조급해하기 보다는 서로가 신의를 지키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야 결과도 좋을 것"이라며 조급성을 경고했다.

지현정사는 "북한은 종교적인 관념은 없더라도 전통문화보존 차원에서 불교적 성향이 강하고 사찰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쓰여지고 있는 등 불교에 대해 호의적이다. 따라서 50년 단절을 이을 전통의 뿌리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 불교계가 다른 종교보다 교류에 앞장설 여건이 마련돼 있다"며 우리 불교계가 보수적 경향에서 벗어나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불교계도 단순한 지원에서 한발 나아가 문화재 합동조사, 공동 관심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 등 보다 한차원 높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져 통일을 앞당기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현정사는 오는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성초통리원장 등 진각종 대표단과 함께 북한을 다시 방문한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남북 불교교류 주요일지

▲86년 12월=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본부 임원단 네팔에서 북한 불교도와 회동

▲88년 7월21일=하와이 대원사 주지 대원스님, 황장엽 북한 사회과학위원회 위원장 초청으로 방북 조불련 박태호 위원장과 회동, 평양 용화사에서 남북통일기원 합동법회 거행

▲89년 6월17일=조계종 승려신분으로 법타스님 북한 최초 공식방문 △10월14일 종단협의회, 한강민족화합 통일기원 유등대법회, 조불련 박태호 위원장이 보내 온 백자여래불상 점안

▲91년 10월29일=남북한 불교지도자, 미국 LA 관음사에서 남북 및 해외동포 불교도 조국통일기원 합동법회(최초의 공식 불교교류)

▲93년 9월9일= 북한 사회과학원 발행 〈고려대장경 해제본〉 전 15권 1질 국내 최초 반입

▲94년 7월20일= 광불협 '하나로 필화사건', 법타스님, 이지범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95년 5월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조불련 박태호 위원장과 중국 북경 옥류관에서 회동, 남북불교간 최초 공식회담

▲96년 2월 26~29일= 중국 북경에서 남북종교인회의 개최,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 참가 △4월23일 광불협 미주본부 고문 정산스님, 상임부회장 지현정사 방북

▲97년 1월10일=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대한적십자사에 북한동포 식량보내기 성금 5000만원 전달 △4월30일 조계종, 중국 단동역에서 조불련에 옥수수 1천380톤을 전달 △5월6일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불추위) 발족 △5월14일 조계종과 조불련이 분단이후 최초로 부처님오신날 봉축 남북공동발원문 봉독 △5월23일 광불협 미주본부 회장 도안스님 방북, 1만233불 전달 △9월15일 불추위, 조불련에 지정기탁한 옥수수 2천톤 전달 완료 △10월1일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대한적십자사 통해 나진-선봉지역에 옥수수 1천톤(1억5천만원 상당) 지정기탁 △11월14일 JTS 나진-선봉지역 방문 활동보고회 개최, 어린이 1만550명에게 매월 3000만원의 영양식품과 구호물자 전달 △12월26일 광불협 상임부회장 지현정사 방북, 조불련과 사리원시 금강국수공장 설립 합의

▲98년 7월22일= 광불협 미주본부장 도안스님,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운영 점검과 2차 원료지원(밀가루 60톤)차 방북 △8월 25~28일 종단협의회 불추위 광불협 진각종 대표단 8명, 북경에서 북한 조불련과 회담 △9월16일 광불협, 북경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문화유적 복원에 관한 협약서' 체결 △10월30일~11월7일 평양 '윤이상 통일 음악제', 광법사 '고 윤이상선생 천도재', 보현사 '평화통일 기원 타종식'

▲99년 6월3일=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단'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법회 봉행 △6월 5~14일 불추위 지선, 성조스님, 유지원 사무총장 보현사에서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 개최, 조불련 대표들과 회담. △8월15일 종단협과 조불련, 남한 조계사와 북한의 보현사에서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기원 8·15 남북불교 동시법회 봉행 △9월18~25일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휴명 종의회의장, 회정 국제불교연구소장, 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국장 등 대표단 4인 7박8일간 북한 공식(종단 원장급은 최초)방문. 2000년 통일토론회 개최 합의 △11월26일 종단협의회, 중국 북경에서 조불련을 통해 월등용품(방한복 4천벌, 신발 4천켤레) 기증서 전달

▲2000년 3월11일= 경불협과 조불련, 북경에서 부처님 오신날 남북동시법회 및 공동발원문 채택 합의 △3월 12~15일 종단협의회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대표단 중국 북경에서 조불련과 접촉, 조불련, 진각종 대표단 공식 방북 요청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기사넘쳐 '선과 21세기' 쉽니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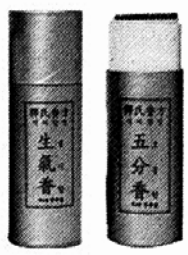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친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청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법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 · 정향 · 혜향 · 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악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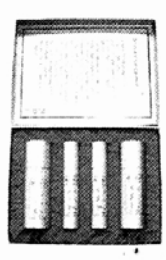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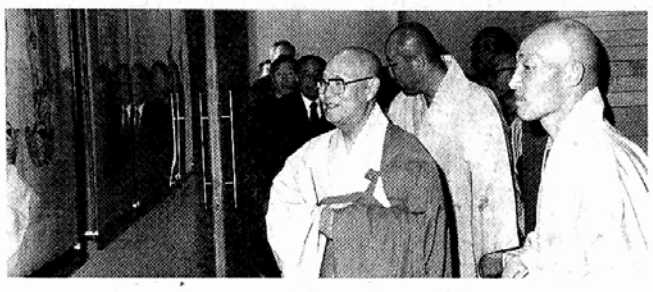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꽂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內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녹원스님, 소장유물 389점 박물관 기증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이 평소 소장해 오던 유물 260건 389점을 8일 직지사박물관(관장 홍선)에 기증했다.

녹원스님이 기증한 유물 가운데에는 어른 스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전적류와 우인들로부터 기증 받은 고서화 등 귀중한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 직지사 박물관은 기증유물을 교대로 전시하기로 하고, 현재 〈금강보문발원합부사경〉과 우리 나라에 2본밖에 없는 석씨원류응화사적(불암사판)등 4건을 전시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도 8일 직지사를 방문, 해강 김규진 선생과 소정 변관식 선생의 서화 등 32점의 소장유물을 기증했다.

직지사 설법전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직지사 조실 관응, 원로회의 부의장 도원스님, 송석구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8백 여명이 참석했다. 이윤호 기자

"소외계층 후원사업 펼칠 터"

양산사암련 초대회장 도봉스님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불교이념을 실천하는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독거 노인 등 소외계층과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8일 양산시 불교사암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도봉 스님(천불사 주지)의 포부다. 스님은 천불사에서 매년 양산과 울산 지역의 노인들을 초청 경노잔치를 베풀어 왔다. 올해에도 16일 양산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천불사 특설야외법당에서 위안잔치와 모범 소년소녀가장 표창 및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불보종찰이 있는 양산입니다. 뒤늦은 사암연합회 출범이지만 통도사와 내원사를 중심으로 각 사암들의 뜻을 하나로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도봉 스님은 불교사암련에 동참하고 있는 42개 사찰과 연합해 복지시설 후원, 불우이웃돕기, 휠체어 후원 등 크고 작은 자비행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山은 가슴으로 걸어야 운치"

'팔공산 영고' 펴낸 황보규태씨



팔공산의 유래와 불교유적, 그리고 팔공산이 배출한 고승 등을 망라해 소개한 팔공산 안내서가 나왔다. (주)성일건업 대표 황보규태씨(52)는 지난 2월 468쪽 분량의 〈팔공산 영고(榮枯)〉를 발간했다. 이 책은 대구지역 불교의 모태이자 국보 2점과 보물 24점을 간직하고 있는 팔공산의 생태와 인문지리를 망라한 종합안내서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팔공산의 유적은 실제의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석굴암에 버금가는 석굴이 또 하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책은 팔공산의 명승고찰, 팔공산록 문화유적, 팔공산의 지맥과 풍수지리, 불교문화재 분포, 팔공산 큰 인물 등 팔공산의 자연 환경과 생태계 등 모두 11부로 구성되어 있다. 4년간 자료를 준비하고 2년여에 걸쳐 집필한 황보규태 씨는 이 책에서, 러브호텔 상가건립으로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팔공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

정법회 회원이기도 한 황보 씨는 그 동안 〈사찰참배의 길잡이〉(98년) 〈문화재 찾는 길〉 등 4권의 책을 발간했으며 서화전 개최 등 불교활동이 왕성한 불자이다.

이윤호 기자

일주문

길상사 관음보살상 봉안



법정 길상사 회주는 28일 오전 10시 관음보살상 봉안식을 길상사에서 봉행한다. 이 관음보살상은 가톨릭 신자인 원로조각가 최종태 씨가 제작한 것이다.

해군 위문·방생법회



정각 법륜종 종정스님(목포 보현정사 주지)은 10일 진해 해군기지내 해안사에서 신도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문법회를 갖고 바닷가에서 방생법회를 거행했다.

화성사 탱화 점안법회



고산 전 조계종 총두원장은 21일 오전10시 대구 화성사에서 개최되는 후불탱화 점안법회에 참석, 법문한다.(053)325-1230

부불어 창립 16주년 기념법회



정여 부산 보현선원 주지는 8일 중앙동 다전에서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창립 1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어린이 포교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열었다.

대웅전 기금마련 도예전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대웅전 건립기금마련을 위한 설봉 스님 도자기 전시회를 23일~5월4일까지 서울역 그릿문화 전시관에서 갖는다.(032)933-8234

삼성각 개원법회



원욱 서울 호압사 주지는 8일 삼성각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원욱스님은 금강승 선관무원 회주를 맡아 선무도를 지도하고 있다.

전통사찰요리 시식회



선재 사찰요리 연구가 스님은 17일~22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랑카페 1층에서 사찰요리를 선보인다.(02)555-5656

서옹스님 초청법회

이상진 광주불교방송 사장은 27일 오후 3시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개국 5주년 기념 '서옹 스님 초청 대법회'를 연다. 서옹 스님은 '한국의 선사상, 21세기 정신문명의 새로운 좌표'를 주제로 법문한다.

국가홍보 기여 대통령 표창

이시규 서예가는 3월 31일 종교서예활동을 통한 국가 홍보 및 사회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인연으로부터' 주제 사진전



허애영 석왕사 사진동우회 심상회장은 20일까지 부천시청 로비 아트센터에서 '인연으로부터'를 주제로 11주년 기념 사진전을 연다.

인터넷 사이버 서당 열어

이계황 전통문화연구회장은 한자한문의 저변확대를 위해 인터넷상에 사이버서당을 1일 개설했다. 주소는 www.cybersodang.co.kr이다.

'오늘은 무슨…' 출판회

김상래 군법사는 11일 계룡대 무궁화회관 대홀에서 〈오늘은 무슨 기쁨을 줄까〉(뉴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 말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안스님이 8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장을 받았다. 임기 3년의 고충처리위원에 위촉된 법안스님은 도시계획 분야를 담당한다.

법안스님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수행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법안스님은 또 "승려의 신분으로 행정기관의 중요직책을 맡은 만큼 불교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94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 옴부즈만제도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불만사항을 해소키 위해 행정기관이다.

정성윤 기자

인 사

동방불교대 총동문회 △회장 : 도성(제주 백우정사) △상임부회장 : 대권(제주 운천사) △부회장 : 왕선(진안 탑사) △감사 : 운곡(제천 장엄사포교원)·청봉(신촌 봉원사) △사무총장 : 경허 △총무 : 성정 △재무 : 정섭 △조직 : 성인 △홍보 : 경준

국회의원 당선자 중 불자 43명



◇박상규 당선자



◇김기저 당선자



◇추미애 당선자



◇강신성일 당선자

13일 실시된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의원을 포함해 불자의원은 모두 4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사가 전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6대 불자의원은 새천년민주당 9명, 한나라당 29명, 자민련 3명,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 추미애(서울 광진을) 박상규(인천 부평갑) 조한천(인천 서·강화갑) 조성준(경기 성남중원) 최선영(경기 부천오정) 이회규(경기 이천) 이원성(충북 충주) 전갑길(광주 광산) 김기재(비례대표)

〈한나라당〉 김영구(서울 동대문을) 김기배(서울 구로갑) 목요상(경기 동두천양주) 안상수(경기 과천의왕) 전용원(경기 구리) 이재창(경기 파주) 최돈웅(강릉) 김용학(영월평창) 강신성일(대구 동) 강재섭(대구 서) 박헌기(경북 영천) 이인기(경북 칠곡) 김찬우(청송영덕영양) 김광원(봉화울진) 도종이(부산 진을) 엄호성(부산 사하갑) 박종웅(부산 사하을) 김진재(부산 금정) 김태호(울산 중) 최병국(울산 남) 윤두환(울산 북) 김종하(경남 창원갑) 하순봉(경남 진주) 김학송(경남 진해) 김영일(경남 김해) 김용갑(경남 밀양창녕) 나오연(경남 양산) 김용균(산청합천) 임진출(비례대표)

〈자민련〉 이양희(대전 동)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조부영(비례대표)

〈무소속〉 강운태(광주 남) 박주선(전남 보성화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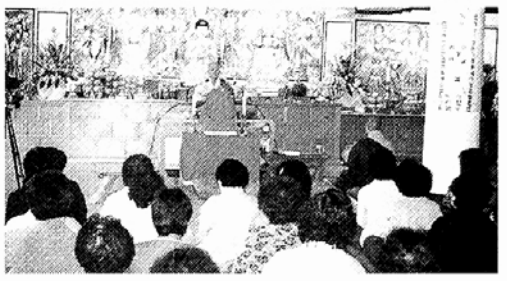
수덕사 근역성보관 개관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는 11일 불교 유물과 옛 스님들의 유품등 성보문화재와 민족유물 1천여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근역성보관을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 조계종 원로 청하·성수·활안·혜정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 주지 법장 스님, 일본 비조사 주지 야마모또 스님 등 1천 여명이 참석했다.



화엄종 장학회 3천8백만원 전달

화엄종 장학회(이사장 정희수)는 9일 인천 약사사 대웅보전에서 2000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종단 관계자 등 1백 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희수 이사장과 약사사 주지 화응스님은 문무왕(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4학기)씨 등 모두 49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3천8백만원을 전달했다.



명지사 1돌기념진신사리 친견법회

해인사 부산포교원 명지사(주지 수인)는 9일 개원 1주년 기념법회 및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사 주지 보광 스님을 비롯한 4백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수인 스님은 "회원 확보를 통해 공부하는 포교원으로 자리잡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불교대구회관 공사재개 고불식

불교대구회관 공사재개 고불식이 7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 건설현장에서 봉행됐다. 건축주인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은 최근 불교대구회관 건립추진위를 재구성, 첫 단계로 3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목재가 썩고 철재빔의 산화가 심한 지하 1·2층에 대한 보수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공사재개는 지난 93년 12월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6년 만이다.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 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정신병, 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입원실 사용, 식대 각자 부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 모든 질병과 성인병은 의혈만 잘 풀어버리면 완벽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스님들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무료치료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불자회

법사 모시기 '별따기'

인력 부족…신행지도등 법회 어려움

종단차원 상임포교사 파견제도 필요

소규모로 모여 법회를 운영하는 직장직능 불자회 회원들은 법회를 할 때마다 법사모시는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른다. 상임 지도법사를 모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스님도 없을 뿐더러 회원들이 적다보니 거마비 등 법회 때 법문 해줄 스님 모시기가 벅차기만 하다.

직장 직능 불자회의 신행을 점검해주고 이끌어줄 지도법사가 없는 곳이 많다. 최근 한국불교언론인회는 초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초청 간담회에서 직장불자회 지도법사 양성에 대한 건의를 했다. 가까운 절 주지스님들이 직장불자회를 하나씩 맡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거나 총무원이나 포교원 내에 직장 불자회 전담 포교사를 둬 어디 불자회든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직장 직능 불자회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종단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로 10년을 맞은 한전 반야회는 봉은사에서도 법회 지원을 해주고 현재 정일스님이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불회는 김정호 포교사가 97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도하고 있어 매주 법회 운영 뿐만 아니라 포교에도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반야회나 정불회와 같이 창립부터 꾸준히 지도법사가 이끌고 있는 불자회는 많지 않다.

MBC 불교연구회는 매주 정기법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몇 년 이상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스님이 없어 몇개월 단위로 다른 스님을 법사로 모시느라 보통 고역이 아니다. KBS 불교연구회는 법회 때마다 법문을 해줄 법사스님을 섭외하는 것이 신행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한다.

10여명 안팎의 회원들이 모이는 소규모 회에는 스님을 모시려 해도 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스님을 모셔도 걱정이 많다. 거마비 마련이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일부 '큰스님'의 경우 법문요청을 하면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법문비'부터 묻고 '합당'해야만 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형편 때문에 지도법사를 모시지 않고 법회를 운영하는 곳도 많다. 농림부 불자들의 모임인 농불회는 지도법사를 따로 모시지 않는다. 인근 보광사에 협조를 구해 가끔 그 곳에서 법회를 볼 계획은 있어도 자체적으로 모여 불교 공부를 하며 불법 수행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포교원에는 직장 불자회 담당 법사단을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 종종 들어온다. 뿐만 아니라 법사 섭외 요청도 많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종단 소임 스님이 법문을 하러 가거나 인근 사찰로 연계해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포교원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사단 성립에 대한 계획은 없다. 포교원에서 임금을 주고 채용하는 형태로 법사단 구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예산 책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직능 불자회는 포교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단체들이고 각 분야별로 포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 스님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스님 개개인의 관심에만 맡겨둬서는 개선이 안되고 종단차원에서 법사 지원팀을 구성해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직장불자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KEDO 연꽃회 봉축법회

KEDO 금호법당 연꽃회(회장 손동화)는 올해 봉축행사를 5월11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와 제등행렬로 준비하고 있다.

3월부터 2백여개의 연등을 만들어 일부는 법당에 봉축장엄하고, 나머지는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에 사용할 예정이다. 공사현장과 기숙사 법당 주변 약 2Km에 걸쳐 가로연등도 설치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단불자련 연합법회

금융단불자연합회는 22일 오후4시 잠실 수협본점에서 제23회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산업은행 불자회 등 10여개 은행 불자회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02) 398-6464

다보회 화엄사 성지순례

용산철도차량정비본부 불자들의 모임 다보회(회장 이일승)는 22일 구례 화엄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불교대학 양남분원 개원

월성원자력 반야회는 불국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의 불교대학(1년과정) 양남분원을 월성사택내의 반야선원에 12일 개원했다.

이에 앞서 영광원자력 선우회는 3월18일 불갑사에 아미타 불교대학(2년과정)을 개설했다.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이 연 주
〈마포 점자도서실장〉

내가 불교와 인연을 갖게 된 것은 은사이신 양만석 선생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이다.

나는 원래 시골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실명하여 87년 서울맹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95년 원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었다.

나는 원심회 활동을 통해 많은 불심을 키워 왔다. 그러나 장애인 불자들이 불교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게 되면서 안타까웠다. 사찰의 문턱은 직접 찾아가기에는 너무 높았으며 특히 점자불경은 전혀 없었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하여 나는 양선생님과 원심회 여러 법우들의 도움을 받아 불경의 점역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법우님들 외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일이 생각처럼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모든 일이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안타까움이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실은 하나 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 원심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1998년 〈법화경〉을 4권으로 제작하여 전국의 시각장애인 불자들에게 보급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 그리 큰 숫자는 아니지만 제법 많은 불자들의 관심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장애인이 불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바람처럼 물결처럼 살자"가 나의 좌우명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적극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좌우명을 잠시 접기로 하였다. 나의 원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중복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복시각장애인 재활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두번째는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좀더 많은 불서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자불서를 갖춘 점자도서실을 설립하는 것이다.

특히 점자도서실을 만드는 일은 불자들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적 많이 바꾸게는 하였으나 불교계가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에 불과한 것 같다.

불자라면 모두 불경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뜻을 기린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불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불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언제든지 불경을 접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은 알 수 없겠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불경이 읽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다. 읽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다는 것은 불경을 읽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하루만 반짝하는 기념일이 아니라 사찰에서 장애인 불자들을 위해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장애인 불자들이 사찰이라도 편히 드나들수 있도록 사찰문턱을 낮춘다거나 보조안내자를 둔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찰은 모든 불자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불자의 자격으로 나는 그곳을 진정으로 가고 싶은 나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싶다.

사찰에 자주 가서 그윽한 향내음을 맡고싶다. 그 곳에 들어가는 장애인불자를 포함하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공평하게 받았으면 한다. 어느 사찰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부처님의 자비를 아는 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가피를 함께 누려야 한다.

그로인해 장애인 불자들의 마음과 더불어 비장애인 불자들의 마음에도 참된 연꽃이 피기를 기원한다.

점자 불서 도서실 생겼으면…



◇한국전력본사 반야회 창립10주년 기념법회에서 한국전력인불자연합회가 창립됐다.

한전 불자연합회 창립

14개 불자회 구성…회장 김영창씨

한국전력 본사 반야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8일 거행된 기념법회에서 한국전력인불자연합회가 창립돼 그 첫 발을 내딛었다. 전력인불자연합회 초대회장에는 한전 본사 반야회 회장 김영창씨가 선출됐다.

정련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치사에서 "반야회의 창립 취지인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자'고 말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며 "하루만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각 사업장마다 새 법회가 생겨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날 법회에는 포교원장 정련스님,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정일스님 등을 비롯해 한일병원 반야회 등에서 5백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에 앞서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연주로 '봄·꽃·선율의 조화 작은음악회'도 선보여 회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현재 전력인 불자연합회는 본사 반야회를 비롯해 한일병원 반야회, 북부지점 반야회, 인천화력 법우회, 전력연구원 반야회, 경주지점 서광회, 울산화력 법우회, 월성원자력 반야회·마야부인회, 울진원자력 문수회·승만회, 삼천포화력 반야회, 삼랑진양수 보림회, 고리원자력 반야회, 영광원자력 선우회, KEDO 연꽃회 등 14개 불자회로 구성돼 있다.

강지연 기자

인터뷰 / 초대회장 김영창씨

"생활불교 불 밝힐터"



"교리공부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전불자들의 신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수행 지도에 나설 겁니다."

전력인불자연합 초대회장에 선출된 김영창씨(53·사진)는 한전불자들은 새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가져야한다고 말한다. 한전 사내 전산망에는 '반야회' 홈페이지가 개설돼 전국 사업소의 불자는 물론 비불자들에게도 불법을 전하는 포교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4개 사업소에서 활동중인 불자회 외에도 올해내에 부산전력, 부산지사등 4곳이 더 창립될 전망이다. 앞으로 KEDO 연꽃회 지원 방안도 모색해 볼 계획이다.

김영창 회장은 "우리 한전불자들은 자신이나 소속 단체 내에서만의 신행생활을 위주로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전력인불자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회사변화에 대비함은 물론 전력문화 창달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적극 실천하는 실용불교 생활불교로의 변환을 이뤄 나가자"고 밝혔다.

클릭! 새 홈 페이지

■수국사 모여라(http://www.freechal.com/sukuksa)-3월28일 개설. 수국사는 물론 불교에 관심있는 모든 불자들의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공간.

■화성사 청년회(http://cafe.daum.net/gotobuddha)-3월28일 개설. 화성사 청년회 회원들의 모임.

■동남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dongbul)-3월29일 개설. 동남불교학생회 동문 및 재학생 모임

■불자의 방(http://cafe.daum.net/ogbbm)-3월31일 개설. 초발심자의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자녀들이나 친구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불교의 근본 이야기 기타 신행생활에 대한 의문점 등을 논의하는 방.

■대둔사 학생회를 아시나요?(http://cafe.daum.net/daedunsa)-4월2일 개설. 대둔사 학생회 동문 및 회원들의 모임.

■나 한불인(http://www.freechal.com/hbc)-4월2일 개설. 한양대학교 한불회 모임, hbc.

■룸비니(http://cafe.daum.net/rombini)-4월5일 개설. 남원 룸비니 불교학생회 동문 및 회원들의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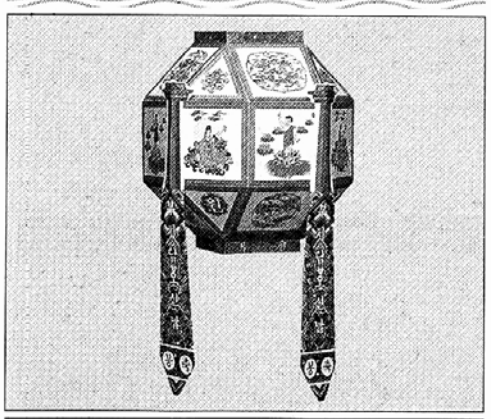
■동산불교청년회(http://cafe.daum.net/yinyen)-4월6일 개설. 불교기초교리, 시모음 등의 코너를 제공한다.

■조계사중고학생회동문모임(http://cafe.daum.net/cbg)-4월7일 개설. 조계사 중고학생회 동문 및 회원들의 공간.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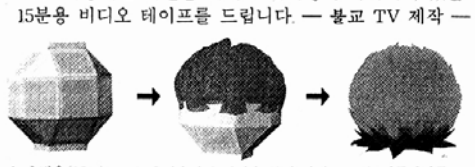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받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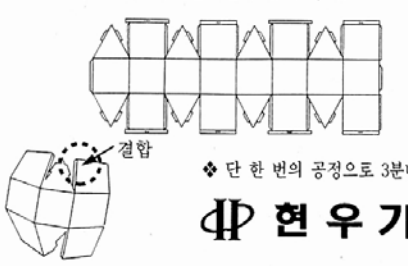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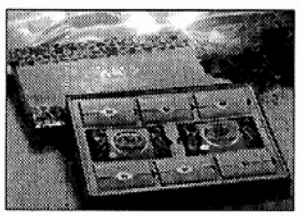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괴론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남북정상회담과 통일불사

민족 분단 50여년의 역사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행보에 무엇보다도 큰 낭보임에 틀림없다. 그 동안 민족의 통일 열망과는 달리 안타까우리 만치 더디게 이루어지던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좀 더 큰 보폭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것이 결국 가까운 미래에 다시 민족이 하나됨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에 모든 국민이 환호를 하고 있다.

불교계 또한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각 종단과 단체들이 일제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표명하고 있다. 중생의 괴로움을 건지는 것을 서원하는 불교가 우리 민족에게 가장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괴로움을 주고 있는 분단 상황의 극복에 밝은 빛을 던지는 이 소식에 환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교계는 이번의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그 동안 불교계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해왔는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성큼 한 걸음 더 가까이온 통일의 문제 앞에 불교계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한다. 북한의 동포들이 극한상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얼마나 자비의 손길을 뻗었던가, 통일 뒤 북한 동포들이 우리가 힘들 때 불교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당당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불교의 사회화라는 구호 속에서 조금씩의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을 반성하면서, 통일 불사를 이고득락(離苦得樂) 발고여락(拔苦與樂)을 위한 최우선의 불사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 불사를 위한 불교의 자산은 풍부하다. 민족 문화를 통해 오랜 분단의 장벽을 녹여 낼 수 있는 잠재력에 있어서 불교보다 앞서는 종교는 없다. 대립과 갈등의 극복을 근본 가르침으로 하는 불교의 교리, 삼국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던 원효스님의 화쟁사상 등은 우리의 통일 발원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뒤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처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 민족사의 질곡과 내부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탈피하여 불교가 현실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종교로 우뚝 서는 길은 바로 대승적 통일 발원에 불교계가 함께 떨쳐 일어서는 것이다.

신도교육, 방향설정부터

재가불자들의 신행형태가 중앙신도회 신행혁신 설문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실시한 신행혁신 세미나에서 발표된 '재가불자 信·解·行·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걱정스런 면이 적지 않다. 이런 결과는 그간 교계의 실정으로 보아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응답자의 반 이상이 이미 신행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법회에 한 주에 한번 참석하는 이가 46.7%라니 오히려 놀랍다고 하겠다. 더구나 응답자의 반 이상이 자신의 신행활동에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신행활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불자들이 불교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과거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또한 불교를 접하고 시작하는 길이 깨달음의 근본내용을 이해함을 시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복과 타력적인 붓다의 신성화 및 절대화를 믿고 따르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불교계가 급변하는 현실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이며, 법회나 교리강좌 자체에도 개선의 여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사실 우리 불교계는 이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도들에 대한 교육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교육을 소홀히 할 때 그 집단은 자기 동일성이 형성될 수 없으니 자연 구심력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신도 교육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신도교육의 1차적 의미는 교육을 통해 신도들을 불교 사상으로 정신무장 해나가는 의식화 작업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 교계에서는 불사의 1차적 의미가 불상을 조성하고 건물을 짓는 외형적 불사및 신앙에 치중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근본원인은 무엇인지 신도교육의 설정과 진행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할 사항이다. 특히 그 까닭이 교육의 목표와 방향설정에 차질이 있었던 때문은 아닌지 차제에 다시 한번 냉철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체계적으로 신도교육의 단계를 나누고 그 차제에 따라 신도교육을 해야 한다. 신도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념과 목표를 대승불교의 보살정신으로 회복하고 현대적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과 수계 의식을 통해 통일성을 확립하고, 사찰에서는 새 신자를 위해 교육 준비를 함으로써 초심자가 소속감을 갖도록 해야한다. 또한 불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시급한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승복 잘못입은 궁예 드라마 고증 충실하게

TV 사극은 픽션이라 할지라도 그 근거는 역사적 사실임이 분명하기에, 현대적 해석은 다를지라도 역사적 근거는 분명해야 한다.

드라마에서 궁예가 승려를 자처하고 승복차림으로 나오고 있는데, 궁예가 입고있는 의식용 법복, 즉 가사의 차림이 틀렸다. 드라마 속의 궁예가 걸치고 있는 것은 1950년대 이후에 생긴 현대식 밤색가사이다. 삼국시대 이래 일제시대까지는 홍색가사를 수했으며, 으늘에 이르러 조계종은 밤색가사, 태고종은 홍색가사를 수하고 있다.

특히 궁예가 가사를 수한 채 칼을 잡고 전장을 누비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승려의 옷은 일상 생활복, 외출복, 의식 법복으로 나누는데, 소매가 긴 장삼과 그 위에 수하는 가사는 법문이나 좌선 및 예불, 불공때 입는 법복이다. 따라서 가사를 수한 채 칼을 사용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제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궁예의 가사는 홍색가사로, 전장을 누빌 때는 두루마기 정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갓바위서 기도올리며 가방으로 자리 독차지

얼마전 팔공산 갓바위에 다녀왔다. 갓바위 부처님 앞에는 불자들이 하나의 틈도 없이 빼곡하게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 틈틈이 불자들이 보인 모습은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가방으로 자리를 차지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앉을 수도 없게 하면서 기도한답시고 탐욕스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다.

불교공부를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추태를 보이는 걸까. 남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진정한 불자이다. 그런데 내 자신의 복을 빌면서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부처님 법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불교를 행하지 못하게 된데는 스님들의 책임도 있다. 법회에 나오는 신도들에게 제대로 기도하는 법도 알려주고 욕심을 버리게 끔 지도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채희주(본지 명예기자)

성보문화재 보며 '감탄' 사찰 화장실에선 '불쾌'

얼마전 원불교의 원로 교무와 함께 모 전통사찰을 찾았다. 여러 전각과 성보박물관의 유물을 둘러보며 '참 대단하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그분도 종교를 떠나 문화재를 보는 시각에서 같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주차장 화장실을 다녀온 우리 일행은 할 말을 잃었다. 화장실은 경악 그 자체였다. 청소를 언제 했는지, 불결하고 지독한 냄새까지 났다. 게다가 낡은 시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것 같았는데, 불자로서 정말 안타까웠다. 관광객들이 교찰을 찾고 돌아가는 마지막 이미지가 어떨지 생각해야 할 때다.

김시연(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달라이라마 한국 방문 국민 대부분 원하는데…

우리 나라를 비롯해 전세계는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발달로 정신문화의 빈곤을 느끼고 있다. 나라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지도자를 초청하는데 힘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때에 달라이라마의 한국방문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작년 달라이라마의 뉴욕 강연은 엄청난 인파가 몰려 센트럴 파크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만큼 세계적 지도자라는 소리다. 그런 분을 한국에 모시는 것은 종교와 민족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무척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고개를 흔드는 것을 보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생각해 본다.

IMF의 고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신적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자각하고, 정부는 달라이라마의 입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승배(서울 은평구 수색동)

특 차 사 진 신륵사 법당의 제비둥지



사진제공 = 김득룡(서울 양천구 목4동)

평상심으로 통일문제 대하자



노귀남
〈새시대불교포럼 평화통일위원장〉

남북정상회담과 북한특수 기사가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다. 흥분하거나 냉담하지 않고, 통일 문제를 보는 바람직한 시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정당들은 남북 현실과 국제정세를 꿰뚫어보는 정책으로 말하지 않았다. 아무 준비 없던 돌발사태를 놓고 악쓰듯 서로 비난했다. 이 점은 우리 사회가 통일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 주는 대목이었다.

서로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진정한 민족문제로 풀어 가는지 지켜봐야 하고,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 냉전시각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하여, 북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이 함께 고민해야 할 인권문제들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현안이다. 국가보안법 장기수 탈북자 꽃제비 문제를 비롯해, 겨우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경제난 속에 위협받고 있는 북한 인민의 생존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국제 정치경제적 관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민·관이 비판적 동반관계로 협력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연구해야 한다. 예를들어 수십만에 이르는 탈북난민의 인권과 장래 문제는 원칙적 주장만 할 수 없이 복잡하다.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강제송환된 탈북자들 문제가 시사했듯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나 각국의 이해를 고려해, 정부와 민간 및 언론이 적절히 역할을 나눠야 한다.

또한 남한 자본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으로 기대하는 북합효과도 이윤창출이나 노동력의 가치가 다른 북한과 함께 해야 할 일이므로 환상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 연구된 실무능력이 뒷받침되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많다.

그러자면, 불교계 또한 전체 역량을 모아, 전문가와 불자대중이 결합하는 정책 제시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뚜렷한 의지와 제도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목탁소리

김 주 일
〈취재2부 기자〉

강건너 불구경 할건가

"불교TV 하나 못살릴 정도로 불교계의 힘이 그렇게 미약합니까."

파산 위기에 놓인 불교TV를 바라보며 내뱉는 불자들의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다. 불교TV는 현재 개국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10일 금오전기측의 건물 명도와 경매 신청으로 언제 문을 닫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불교 TV노조가 금오전기측의 경매 신청에 앞서 '체불임금 지불에 대한 방송기기 차압' 소송을 걸어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이것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금오전기측은 지난해 9월부터 건물 명도소송을 이미 법원에 신청해 놓고 있어 언제든지 공탁금을 내고 집행 절차만 밟는다면 2~3일안에 건물 퇴거명령을 내려 송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실제로 95년 개국이후 1년을 제외하곤 계속 밀리기 시작한 임대료로 골머리를 앓아온 금오전기측은 마지막으로 이달말 이사회가 열릴때까지만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직원들도 이달말까지 경영진에서 별다른 처방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경영진과 불교TV 이사들은 한결같이 강건너 불구경하듯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다.

이제는 대주주가 누구이든지 간에 범불교적으로 불교TV를 살리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위성방송 출범을 앞두고 있는 디지털 영상시대에 불교TV가 파산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포교 전략으로 불교는 퇴보하게 되고 만다.

우선 대주주인 봉도사가 경영을 정상화 시킬 능력이 없다면, 주식을 조계종단에 과감히 반납하고 종단 차원에서 '기금 마련 모금 법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사들도 투자를 할 수 없다면 주식 감자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 영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불교TV 직원들도 회사를 살리겠다는 열의를 갖고 광고 유치 및 수익 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불교TV의 파산으로 인해 교계의 영상 포교 방송을 우리 손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로 부터는 벗어나야 한다.

월간「불광」·목아불교박물관 주최

제 6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어린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그립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이 날은 우리들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날입니다.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에서는 이 날을 어린이들 가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모셔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제6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에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참 가 부 문
·크레파스화 부문 - 유치원 · 초등 1, 2학년
·수채화 부문 - 초등 3, 4학년
·목판화 부문 - 초등 5, 6학년

·일 시 : 2000년 5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여주 목아불교박물관 (0337-885-9952)
·대 상 : 전국의 어린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시 상 : 우뚝으뜸상 (1명, 상장 및 상품)
각 학년별 으뜸상 (6명, 상장 및 부상)
각 학년별 버금상 (6명, 상장 및 부상)
유치부 으뜸상 (1명, 상장 및 부상)
유치부 버금상 (1명, 상장 및 부상)
보람상 (500명, 상장 및 상품)
한마음상 (3곳, 상장 및 상품)
·참가비 : 5,000원 (10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당 3,000원)
·준비물 : 참가 부문별 준비물(크레파스, 그림물감, 조각도, 화판 등) 모자착용, 돗자리, 도시락
·기념품 : 기념 티셔츠, 동화책, 음료수 등 증정 (선착순 1,000명)

그림 그리기와 함께 펼쳐지는 올해의 놀이마당 - 신나는 서바이벌 따라잡기

종 목		내 용	참 고
깃발 서바이벌		학년별로 6명씩 출발해서 볼풀에 숨어 있는 깃발 찾아내기	찾아야 할 깃발 3개
퀴즈 서바이벌	10고개를 넘어라!	50명의 어린이가 한번에 참가. 교리 · 상식 등의 10개 문제를 도화지에 적어 맞추는 주관식 퀴즈	10문제를 다 통과하는 어린이는 모두 합격 (4 · 5 · 6학년대상)
	O 아니면 X ???	쉬운 교리, 상식을 '맞다', '틀리다'로 선택해 풀어가는 퀴즈	5문제를 다 통과하면 합격 (유치원, 1 · 2 · 3 · 학년 대상)
철인 서바이벌		춤추는 오리발 - 산악자전거 - 떼굴떼굴 럭비공	세 종목 연속참가 (학년별 선착순 모집, 예선 예정
가족 서바이벌	아빠와 함께	물벼락 타이타닉	타이타닉(?) 자세에서 응담은 세수대야 들고 있기
	엄마와 함께	밀 빠진 독에 물붓기	구멍난 종이컵으로 물나르기
	친구와 함께	어깨동무 사방 줄다리기	외발로 어깨동무해서 줄다리기

* 행사 당일 비가 올 경우에는 목아불교박물관 실내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
·월간「불광」 02) 420-3200 ·목아불교박물관 0337) 885-9952~4 ·선재이벤트 0502) 317-2555

후원: 문화관광부,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한국박물관협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불교방송, 학교법인 동국학원, 불광사 불광법회, 재단법인 보덕학회 협찬: 서울우유, 서울랜드, 롯데월드, (주)듀오백, 집경이 우리옷(주), 대한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월간「불교」, 월간「금강」, 중앙승가대신문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음악공연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포교당 소년소녀합창단과 원성스님의 '그림으로 못다한 동승의 노래-풍경'의 연습현장.

● 창작음악극 '진감' ● 도안사 '안숙선 판소리 불타전'

● 원성스님음악회 '풍경' ● 봉선사 '찬불가 발표회'

선율타고 오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음악행사들이 잇달아 열려, 색다른 부처님 오신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합창제 중심에서 탈피해 창작음악극이 선보이는가 하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무대도 마련되는 등 공연의 내용도 한층 다양해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음악회는 진감국사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창작음악극 '진감'이다.

신라 말의 고승으로 불교음악인 범패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했고, 차나무를 들여와 재배하는 등 불교문화의 외연을 확장한 진감국사(眞監國師 774~850)의 행장을 그린 음악극 진감은, 합창과 관현악이 주가되는 교성곡 스타일에서 벗어나 음악과 연극, 무용이 함께하는 총체적인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의 대본은 윤청광씨(극작가)가 썼고, 목정배교수(동국대)는 진감선사를 기리는 시를 지었다. 또 작곡과 지휘는 박범훈교수(전 국립극악관현악단장), 총감독은 김명곤 국립극장장이 맡아 작품의 완성도면에서도 교계 안팎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

특히 진감국사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5월의 문화인물이기도 해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음악극 진감은 국립극장 50주년 기념 및 국립국악관현악단 제19회 정기공연으로 30일과 5월 1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선보인다.(02-739-1830)

수원포교당 소년소녀합창단과 원성스님이 준비중인 음악회 '그림으로 못다 한 동승의 노래-풍경'은 어린이불자는 물론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다.

5월 1일~3일 서울 종로 연강홀에서 열리는 이 음악회는 서점가에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원성스님의 〈풍경〉에 담긴 시에 유익상, 이종만, 민선희, 정유탁씨 등 젊은 작곡가들이 곡을 붙였다.

특히 이 공연은 수원포교당 소년소녀합창단의 맑은 노래와 원성스님의 동승그림이 만나는 독특한 형식으로, 정례화된 음악회 형식을 벗어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님의 시낭송과 노래, 질문과 대답등 관객이 직접 공연에 참가하는 실험적인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02-582-4131)

안성 도안사도 5월 11일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안숙선의 판소리 불타전'을 특별 공연한다. 명창 안숙선씨(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판소리로 완창한다. 부처님의 생애를 '강생' '고뇌와 출가' '고행과 항마성도' '전법륜' '대열반' 등 다섯 대목으로 나누어 부른다.(0334-676-8700)

봉선사는 부처님오신날 기념연주회를 26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연다. 이번 연주회는 '봉선사합창단 창단 17주년 기념 연주회 및 창작찬불가 발표회'로 꾸며진다.(0346-527-1951)

조계사 청년회 보리수합창단의 '봉축창작음악연주회'는 5월 6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펼쳐질 예정이며(02-720-1390), 봉은사도 5월 10일 봉은사문화단공연 및 아미타불 오페레타 공연을 펼친다.(02-545-1448)

이밖에 서울불교청년회의 연꽃노래잔치가 4월 30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리고, 광주·전남봉축위원회가 영호남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4월 말경 준비중이며, 부산광역시 봉축위원회는 5월 2일 찬불가곡과 합창의 밤을 통해 부처님 오신뜻을 기릴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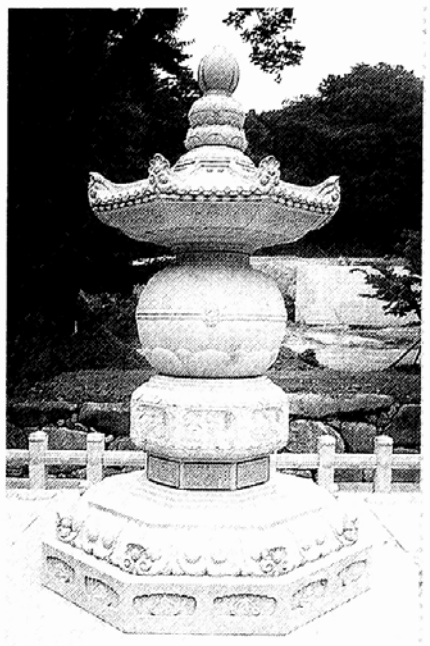
자운스님 부도·탑비 전통방식 재현 '주목'

8년간 원력…해인사에 조성

열반한 큰스님의 부도와 탑을 조성하는 데 있어 조각가나 석재상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화된 요즘, 전통방식을 고집하며 상좌 스님들이 직접 제작의 전과정에 참여해 큰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며 부도와 탑비를 완성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근세 고승의 한 분으로 한국불교의 율풍 진작에 매진해온 전계대화상 자운대율사의 부도와 탑, 영정과 영각이 7일 해인사에 조성됐다. 자운문도회가 92년부터 8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완성한 자운스님의 부도와 탑은 스님의 상좌인 지관스님의 원력으로 이뤄졌다.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은 통일신라와 고려초기의 여러 부도모양을 토대로 스님의 탑비를 구상하고, 자운스님의 행장과 인품에 맞도록 전통방식에 입각해 각종 조형물을 만들고 문양을 새겼다. 자운스님의 부도와 탑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의의가 크다. 또한 예술적으로도 뛰어나 후손에 남길 문화재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탑의 전체 흐름은 앙련(仰蓮)과 복련(覆蓮)을 층층이 올려, 구품연대에 앉은 탑주 자운 율사의 자비롭고 단엄한 좌상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상대석의 8면에 인도의 우팔리존자, 중국의 도선, 백제의 겸익, 신라의 자장, 통일신라의 진표, 조선의 금담과 대은 자운 율사 등 계율정신을 이어온 율종의 대표적 율사들을 특징적으로 형상화했다. 부도와 탑은 해인사 일주문에서 70여m 떨어진 자리에 조성됐으며, 성철스님의 사리탑과 마주하고 있어 두 탑의 대조적인 양식을 비교할 수 있다. 자운스님의 영정 또한 화학안료를 쓰지않고 석채(石彩)에 스님의 유골가루를 섞어 삼베의 뒷면에 채색하는 전통방식으로 제작해 스님의 기품이 은은하게 배어나게 했다. 영정을 모신 영각은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팔작지붕에 다포식 건물로 홍제암에 세워졌다.

자운문도회는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전



◇ '자운대율사원명사리탑(慈雲大律師圓明舍利塔)'.

과정을 〈율풍진작사업일차보고서 자운대율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 출판부)라는 책으로 엮어냈다. 율사 자운스님의 열반 직후부터 다비, 탑비와 영정, 영각 조성의 모든 과정을 화보로 담아 자료적 가치를 높였다.

이은자 기자

문화부 2002월드컵 기념 뮤지컬 '팔만대장경' 제작

내년 가을 시범공연

극단 현대극장의 뮤지컬 팔만대장경 해외수출에 이어, 팔만대장경을 모티브로 한 또 한편의 뮤지컬이 선보인다.

문화관광부가 2002년 월드컵 기념사업으로 준비중인 대작 뮤지컬 '팔만대장경'이 바로 그것이다.

팔만대장경은 서울예술단이 제작을 맡았으며, 대본은 소설가 이인화씨(이화여대 교수)가 쓴다. 그외 작곡, 안무, 연출, 주요 출연진은 현재 섭외 중이다. 문화관광부는 내년 가을 시범공연을 하고, 월드컵 개막에 즈음하여 야외 역사 유적지에서 작품을 선보인다는 계획.

대본을 맡은 소설가 이 씨는 "그동안 팔만대장경은 고려인의 호국의지 구현으로만 이해되어왔으나 실제 당시 교종이 몰락하고 선종계열의 종파가 생겨나던 권력투쟁의 한 과정이었다"면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팔만대장경 제작과정에 얽힌 이야기를 추리소설형식으로 극화하고, 탐진치 속에서 서방정토를 꿈꾸는 인간의 바람을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얻은 영감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서분순 교수.

삶과 죽음의 그림이야기

서분순 '인도연작展'

20일부터 한서갤러리

삶과 죽음의 경지를 뛰어넘어, 끝없는 집념과 정열로 쉼없는 창작열을 불태워 온 서양화가 서분순 교수(한서대학교 예술학부)가 20일부터 서울 인사동 한서갤러리에서 '인도 연작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지난 94년 서울 갤러리에서 열었던 전시회의 연장선으로 서 교수가 6년만에 다시 그리는 인도 연작전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작가가 7년여간 인도에서 생활하며 갠지스강 앞에서 느낀 삶과 죽음, 내세에 대한 지향점을 스케치한 것들이다. 서교수는 '전생의 이야기' '환생 너는 어디에' 등 화폭마다 인도의 인상과 풍물을 화려한 색체와 나이프를 이용한 독특한 기법으로 생동감 있게 표출했다. 특히 인도인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검은 소의 몸부림에서 자신의 힘들었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정신적인 '자화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갠지스강 곳곳에서 만나는 풍경 속에서 삶과 죽음이 함께 존재한다는 큰 가르침을 깨달았다"는 서 교수는 "인도에서 얻은 영감들을 앞으로도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연작전은 서울 전시에 이어 29일~5월 5일 서산시 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도 열린다.(02-737-8275)

이은자 기자

해성스님 수화 찬불가집

청각장애인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연화복지원 원장 해성 스님이 수화 찬불가 CD '넌 혼자가 아냐'를 발표했다.

이 CD에는 '사람 사는 정' '인연따라 바람따라' 등 대중적이고 흥겨운 리듬의 창작찬불가 8곡과 경음악 2곡이 수록됐다. CD발표와 더불어 스님은 30일 오후 3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수화 찬불가 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회는 동국대 손짓사랑회, 광림사 청각장애인 불자회 등이 참가해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티벳 '사자(死者)의 서(書)'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 CD(3장) : 정가 50,000원 → 30,000원
▶ TAPE(1시간 30분 테잎 2개) : 정가 28,000원 → 18,000원



이 오디오 북은, '티벳 사자의 서'를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배경 음악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언어로 녹음되어 있다.
단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들려 줌으로써, 죽음의 상태에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 주며, 올바른 자궁을 선택하여 환생하는 방법까지 알려 주고 있다.
'오쇼 삶과 죽음의 과정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etman)에 의해 만들어졌고, 전 세계 6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바르도

배경음악 : 친마야(Chinmaya) / 번역 : 최창식 / 목소리 : 장두석

바르도에 대한 오쇼의 강의 테잎과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90분, 5,000원).
오쇼는 이 테잎에서 바르도와 대한 설명과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르도 상태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은 꿈의 끝이다." -오쇼-



행사기간 : 2000년 5월 31일까지(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도서출판 황금꽃 :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제2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2nd Academic Award Of Jingak Order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관련 연구 특히 밀교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진각논문대상'을 매년 개최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주 제 : 불교일반 (불교관련 제반분야 포함)
밀교일반 (밀교관련 제반분야 · 진각종 교학 포함)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전형방법 : 인적사항 1부 및 논문계획서 1부
▶ 전형일정 : 접수마감 - 2000년 5월 6일(토)
당선작 발표 - 5월18일
당선논문발표회 - 10월 13일(금)
▶ 당선작 및 상금 : 불교분야 2~3편 · 밀교분야 2~3편, 상금 각 200만원
▶ 접 수 처 : 136-132 서울시 성북구 월곡2동 22.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 www. jingak. or. kr
e-mail : jingak@chollian.net
전화 (02) 913-0133, 0134 / 전송 (02) 913-0135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다른 논문 응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책으로 답사후 사찰나들이 떠나자

문화재 정보-기도성지 소개-명찰안내 등 다양

봄을 맞아 사찰로 향하는 상춘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 사찰이 신행의 공간일 뿐 아니라 역사도 배우고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상춘객들은 사찰을 관광지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을 뿐 사찰의 속내 알기에는 뒷전이다. 안내서 한 권 정도만 읽어도 사찰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텐데.

대부분의 사찰 안내서들은 불자예절과 각 전각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전통사찰, 보궁, 기도성지, 암자의 역사와 문화재 등을 소개하는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최근 발간된 〈나를 찾아가는 하루산행〉(푸른숲)과 〈고승과 명찰〉(책이있는 마을)도 이런 류의 책이다. 〈문화유산-명찰〉(한국문원), 〈우리 산 옛절〉(대원정사), 〈절을 찾아서〉(책세상), 〈길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해들누리), 〈절따라 전설따라〉(대원정사), 사찰문화연구소에서 출간된 전통사찰 총서 등은 이미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즐겨 찾는 전국의 유명사찰 50곳을 소개하고 있는 〈문화유산-명찰〉과 사찰문화연구소에서 내놓은 전통사찰 총서 시리즈는 사찰에 대해 견문을 넓히는데 적잖은 도움을 준다. 또 고은 시인의 문학 기행집 〈절을 찾아서〉, 고승들의 수행 사찰을 중심으로 엮은 〈고승과 명찰〉, 암자 순례기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사찰 연기설화를 집대성한 〈절따라 전설따라〉 등은 독특한 주제로 사찰의 속살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적멸보궁을 비롯 지장·관음 기도도량을 소개한 책들도 적지 않다. 적멸보궁만을 소개하고 있는 〈청산에 묻힌 보궁을 찾아〉(중명), 적멸보궁을 비롯 관음, 지장, 약사, 문수, 나한 기도성지 36곳을 소개하고 있는 〈한국불교기도성지〉(불교시대사), 〈지장성지를 찾아서〉(우리) 등이 그런 책들이다.

사찰 속의 불교상징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고, 참배의 즐거움을 배가 해 주는 책들도 있다. 석탑의 유래와 각 시대별 특징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석탑〉(역민사), 탱화와 벽화 등 불교회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풀빛), 사찰의 미학을 사진으로 엿볼 수 있는 〈산사의 미를 찾아서〉(다른세상) 등을 쉽게 꼽을 수 있다.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한 신영훈씨의 '역사기행시리즈', 대원사의 '빛깔 있는 책들' 시리즈, 유홍준 씨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책들은 필자들이 현장을 속속들이 답사했을 뿐 아니라 유려한 문장, 풍부한 내용, 그리고 다양한 참고 문헌 등이 실려 있어 사찰 답사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준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깨달음의 길 자연속에 있다

전재성씨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거지성자' 페터 한국 산천 만행기

〈거지성자〉란 책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독일의 수행자 페터 노이야르씨(58)의 두 번째 수행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선재)가 나왔다.

전재성씨(빠알리성전협회 한국대표)가 쓴 이 책은, 페터 씨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 사찰을 중심으로 우리의 산천을 돌아본 한국 만행기이다. 이 과정은 지난해 12월 KBS 일요스페셜에서 방영되었다.

이 책은 전편 격인 〈거지성자〉에서 다루지 못했던 페터 씨의 무소유 수행과 생태주의적 사상을 스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씩 보여준다.



특히 지리산 자락에 사는 한 할머니가 손수 재배한 국화로 만든 승복을 선물하는 장면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이들과의 만남과 여행하면서 글쓴이와 나눈 이야기가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페터 씨는 무소유자이지만 이 책에 담긴 그의 가르침은 아주 풍요롭다. 우리가 문명화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나'의 본질과 삶에 대한 성찰이 물질적인 풍요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 깨달음의 길이며, 대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것만을 소유할 것을 당부한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자연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 그의 설명이다.

만행기 사이사이 페터 씨가 털어놓는 우파니샤드, 셰익스피어, 카비르 등에 대한 한마디는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페터 씨는 묻는다. "사람들은 매일 겨울 앞에 서서 얼굴을 가꾼다. 그런데 왜 영혼은 가꾸지 않는가. 머리카락은 자르면서 마음 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나는 욕망은 왜 자르지 않는가…."

페터 씨는 한국을 떠나면서 말한다. "한국은 두 개의 보물을 갖고 있다. 하나는 불법이요, 다른 하나는 숨이 막힐듯이 아름다운 자연이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보우스님은 요승아닌 대선사"

박영기씨 '순교자 보우선사'



조선시대의 요승(妖僧)으로만 알려진 허응당 보우 스님의 본래 모습을 조명한 〈순교자 보우선사〉(한길사)가 나왔다.

이 책은 보우 스님이 요승인가, 대선사인가라는 의문에서 쓰여진 평전이다. 이 책을 쓴 박영기씨(동국대 강사)는 보우 스님은 조선의 불교말살정책 속에서 쓰러져 가는 불교를 중흥시키고 서산·사명과 같은 인재를 발굴한 대선사라는 결론부터 내린다. 요승이란 평가는 당시 불교를 배척하던 사람들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라는 것이다.

글쓴이의 보우 스님에 대한 평가는 "조선 초 숭유억불의 암흑기에 불교중흥에 앞장서 한국불교의 명맥을 이은 선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최근의 일이고, 당대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생들에게 요승으로 몰려 제주도로 유배돼 순교하는 비운을 겪었고 이후 400년이 지나도록 일방적인 자료에 의해 매도되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최근 몇몇 학자들에 의해 스님의 진정한 면모가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일본 봉좌문고에 소장되어 있던 〈허응당집〉을 비롯 근래에 발견된 보우 스님의 저술과 기존 자료들을 토대로 생애와 사상, 그리고 업적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되짚어가고 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이광준 교수 '정신분석해체와…'

"禪 심리학 21세기 학문으로"

서양의 해체철학의 관점에서 선심리학의 의미를 규명한 연구서가 나왔다. 이광준 씨(동서심리학연구소장)가 펴낸 〈정신분석 해체와 선 심리학〉(학문사)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해체주의 사상의 기초개념, 정신분석학에 있어서의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 및 인격구조에 대해 살핀 다음, 이와 관련된 선심리학적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가아(假我)와 진아(眞我)와 같은 선의 주요 개념을 통해 인간의식세계를 탐구하고 있다.

글쓴이는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선심리학은, 인간 자체를 해명하지 않고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선심리학은 정신적 빈곤 상태의 21세기에 있어서 정신과 물질,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학문의 꽃으로 발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선 심리학을 통해 의식계를 넘혀 온전한 깨달음의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이 책은, 선 심리학의 기초, 자아구조의 해체, 선심리와 정신분석 단상, 참선의 선심리적 이해 등에서 구체적 방법론을 찾는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지장보살 지장기도 이야기(진현종 지음, 은행나무)= 지장사상에서부터 유명 기도사찰과 기도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장기도 안내서. 철원 심원사 등 지장 기도처 12곳 소개를 시작으로 경전 속의 기도법, 스님이 일러주는 기도법, 경전 속의 지장보살, 역사 속의 지장보살, 지장의례, 명부전에 얽힌 이야기 등 지장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망라돼 있다. 지장기도를 하는 불자들에 올바른 기도를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만하다. 값 7천원.



▲TV뉴스 속지 않고 읽는 법(김종찬 지음, 새천년)= 불교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한 김종찬 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TV뉴스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 쓴 평론집. 보석 홍보하는 과소비 고발 프로, 오후 뉴스는 왜 관급 기사를 선호하나, 휴일 뉴스에 즐겨 쓰는 트릭, 토론프로의 허상과 실상, 특파원 국제전화 연결의 트릭, 신문과 TV뉴스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등이 이 책의 주요 내용. 올해 초부터 2월25일까지 TV 뉴스를 보면서 작성했다. 값 8천원.



▲한국의 풍수사들(노자키 미츠히코 지음, 동도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풍수사 최어중, 최창조 교수, 건축가 박시익 씨 등 글쓴이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풍수사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풍수관을 듣고 그 현장을 찾아 떠나는 흥미진진한 풍수 여행. 한국 풍수 사상의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 풍수와 일제 단맥설에 대한 일본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점은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다. 값 8천원.



▲남산스님의 불교산책(남산스님 지음, 아카데미북)= 불교의 기초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서.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초심자에서부터 일반불자들까지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한 '불교를 접하기 전'을 시작으로 초심자들이 불법에 쉽게 다가서기 위한 공부법을 담은 '바른 스승을 찾아라', '마음공부', '와 불교는 어렵다고 카노' 등으로 구성됐다. 값 9천원.



▲전통문화란 무엇인가(이범직·김기흥 편저, 건국대출판부)= 한국사의 전통문화를 서술한 역사서. 전통문화가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었던 지혜와 문화자산을 하나씩 고찰하고 있다. 전통문화관련 전문가들이 쓴 이 책은, 문화유산, 사상, 정치와 행정, 사회경제생활, 현대사회와 전통 등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3	깨달음의 열쇠-반야심경	김 사 철	한국불교연구원
4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5	적멸의 즐거움	정 휴	우 리
6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7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변 상 섭	시 공 사
8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	프레데릭 렌즈	황금가지
9	오계이야기	일 타	효 림
10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도서 안내:(02)737-0695

개국 10 주년
www.bbsfm.co.kr



젊은불교
젊은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다보빌딩
대표 (02) 705-5114 / FAX (02) 705-5229

협 찬 ▲현대증권 NEXEN 넥센타이어 로제화장품(주) SAMSUNG 삼성전자 ▲현대생명 한국통신 KORNET 선흥증권

선불교 뿌리는 어디?

'단경' 판본 논쟁

인경 스님 '덕이본' - 신규탁 교수 '돈황본' 주장


◇인경스님


◇신규탁교수

선불교의 뿌리가 되었던 혜능(638~713 · 원나라) 스님의 〈육조단경〉(이하 단경)에 대해 학계의 논쟁이 뜨겁다. 당(唐)대의 돈황본과 송(宋)대의 덕이본을 놓고, 어느 판본에서 한국 선불교의 뿌리를 찾아야 할지 진지한 학문적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쟁은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가 8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마련한 제9차 월례발표에서 인경(동국대 강사) 스님이 발표한 '덕이본 단경의 선사상적 의미'라는 논문에 대해, 논평자로 나선 신규탁(연세대) 교수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경 스님은 논문에서 "덕이본 〈단경〉은 임제종이 당시 선종의 일파였던 법안종을 비판하고, 선종의 전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펴냈다"며 "임제종의 법맥을 잇고 있는 한국의 선불교에게는 이 판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두 판본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심 사상은 돈오(頓悟)와 무심(無心)이고, 한국의 선불교 역시 이 사상들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발간 연대가 앞선 돈황본 〈단경〉이 혜능 스님의 깨달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고 말해, 돈황본 〈단경〉에 힘을 실었다.

두 판본에서 가장 큰 차이는 신회(670~762 · 당나라) 스님에 대한 평가다. 돈황본에는 신회 스님이 혜능 스님의 어록을 모아 집필할 정도의 중요 인물로 나타나 있는데, 당시 신회 스님은 혜능 스님을 이은 7조로 추앙 받았다. 반면 덕이본에서는 신회 스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방계의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덕이본에 따르면 7조는 신회 스님이 아닌 회양(677~744 · 당나라) 스님이다.

이에 대해 인경 스님과 신 교수는 '두 판본의 차이는 당 · 송이라는 각기 다른 시대의 선사상을 반영한 결과'로 동일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한국의 선불교에서 찾아야 할 본래의 선사상이 담겨 있는 판본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인경 스님은 "덕이본에서 전법의 주체는 '이 것'으로만 표현되어 있다"며 "이는 교설이 아닌 깨달음의 체험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의 선불교가 불입문자(不立文字)의 선풍을 세우는 데 결정적이 계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경 스님은 "돈황본에는 '단경을 소지한 사람은 나(혜능 스님)를 친견하듯이 하라' 등의 표현이 있는데, 깨달음을 〈단경〉이라는 '책' 자체에 한정한 것에서 덕이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신 교수는 "돈황본에는 중국에서 태동했던 선종의 본래 사상이 담겨 있으며, 그 뒤에 나온 판본에는 후대 선사들의 사유가 더해진 것"이라며 "선종사에 대한 연구는 선사의 어록과 그 속에 담긴 사상을 찾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논쟁의 중심인 신회 스님의 저서와 관련 자료 등이 부족한 만큼, 가장 먼저 발간된 돈황본 〈단경〉에서 선사상의 본 뜻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 교수는 "돈황본은 '돈오돈수', 덕이본은 '돈오점수'를 각각 강조하고 있어, 판본 논쟁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한 한국 선불교의 입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판본 중 우리 나라에 처음 전해진 것은 덕이본 판본이지만, 현재 불교학계에서 집중 연구하고 있는 판본은 돈황본이다. 국내에는 돈황 · 덕이 · 설숭본 등 모두 13종의 판본이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남과 북 동질성 문화재서 찾는다

북 지정문화재중 성보 33%

분단의 벽에 가려진 채 역사적 기억의 공간에만 존재하던 북한의 불교문화재를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이들 문화재에 대한 학계의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 이를 계기로 민족 동질성을 확인할 바탕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에는 1993년 말까지 국보 50점, 보물 53점, 사적 73개소, 명승지 19개소 등이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중 불교문화재는 국보 19점(38%), 보물 35점(66%), 사적 4점(5%) 등 모두 58점으로, 전체 지정 문화재의 33%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문화재 관련 학계는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유교 · 불교문화재 등을 배격해 왔다"며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그동안 가려져 있던 중요 불교문화재들이 대거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까지 북한은 묘향산과 보현사에 소장된 '팔만대장경'이나 고구려 불상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원오리소조불' 그리고 남방불교의 불상 양식을 보여주는 금강산 출토 '아미타삼본불' 등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불교문화재들을 이념 논리에 따라 그 가치를 외면해 온 게 사실이다.

문화재와 관련해 북한의 두드러진 성과는 〈조선 유적 · 유물도감〉이다. 1989년 조선유적 · 유물편찬위원회가 전 20권으로 엮어낸 이 도감에는, 원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한반도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유적 · 유물 자료 1만여 점이 수록되어 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발굴사를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도감은 또 남측 문화재 전문가들의 주요 연구 텍스트로도 적극 활용됐다.


◇83년 북한의 강원 금강군에서 출토된 '금동아미타삼존불'.

따라서 교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50여년간 이념에 밀려온 북한의 불교문화재들이, 그 실체를 들러내고 신앙과 연구의 대상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조계종 문화부 '바쁘다'

문화재 조사-박물관 지원 등 업무 폭증

"대전 비래사입니다. 불상이 오래되었는데, 문화재 지정이 가능합니까." "박물관을 개원하는 데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일철)가 바쁘다.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본 · 말사의 전화 문의에 응답하느라 진땀을 빼는 것은 기본이고, 수 차례 출장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부 김현권 주임은 "문화재 지정의 경우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한 주에 2건 정도 본 · 말사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는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최근 대전 비래사에서 17세기에 조성된 비로자나불을 조사했는데, 김 주임에 따르면 '민속자료' 정도는 무난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기도 가평 현등사, 경북 경산 제석사, 전남 담양 용추사, 서울 연화사 등이 조사 방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부는 '문화재 조사' 이외에도 △〈성보〉 2집 발간 준비 △법률 자문 △성보박물관 지원 △전통사찰 관리 △성보 조사 및 전산화 △북한문화재 조사 등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지만, 고작 4명의 정식 · 임시 직원들이 5만 5천여 건에 달하는 성보문화재를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 업무 가운데 문화부에서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법률' 관련 업무다. 현재 진행중인 대원사 목각사자상 반환 소송의 경우, 실정법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종단 내 관계법이 미비해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대원사 외에도 문화부는 청연사 · 중흥사 · 도갑사 · 삼학사 등의 문화재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며, 문화재청과 문화재보호법 개정도 협의하고 있다.

"올해 화엄사와 해인사 그리고 이들 말사의 문화재를 정밀 조사하고, 또 8월부터 강화도 일대의 문화유적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일철(조계종 문화부장) 스님은 "문화부는 종단 지원의 폭을 늘이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또한 '성보 지킴이'로서의 첨병 역할을 성실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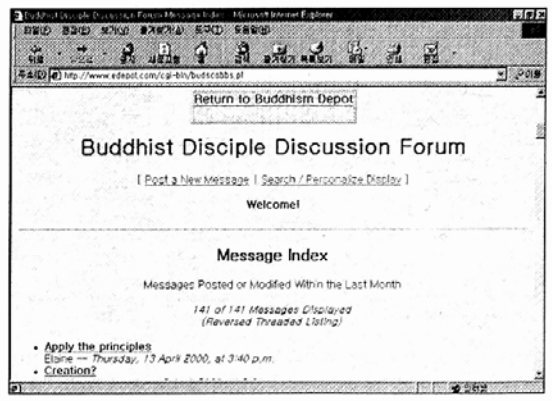
보조사상硏 월례발표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오)은 22일과 29일 불일문화회관에서 각각 '월례발표회'와 '불교와 심리학 발표회'를 갖는다. 22일 월례발표회에서 이병욱(고려대 강사) 씨는 '보조 스님의 선교일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논평은 이창구(전북대 강사) 씨가 맡는다. 또 29일 '불교의 연기론과 상담'을 주제로 마련된 '불교와 심리학 발표회'에서 윤호균(가톨릭대) 교수가 발제하고, 권성만(서울대) 교수와 전재성(한국빨리성전협회장) 씨 등이 논평한다. (02)733-5311

고고학 · 미술 등 논문 공모

미국 LA카운티박물관은 정기 국제학술회의에 발표할 논문을 공모한다. '방법론의 설립:한국 미술사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주제로 오는 2001년 3월 16일 개최될 회의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국의 미술사학 · 고고학 성과를 서구에 소개하고, 동 · 서양간 활발한 논문 교류를 꾀하고자 마련된다.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의 고고학 · 미술 · 건축에 관련된 미발표 논문을 3백자 내외(영어 또는 한국어)로 요약하여, 6월 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kwilson@lacma.org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수장고

미국인 불자 자주찾는 전자사랑방

인터넷의 하이 테크를 즐기며 이국의 불교를 탐험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없을까?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불자 네티즌들이라면 '불교 수장고(Buddhist Depot)'에 접속하면 된다.

'매트릭스' 불교적 비평

'불교 토론' '채팅(대화)' 'E-메일' '비디오 및 미술 감상' '전자 도서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현재 미국인 불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자 사랑방으로 꼽힌다.

▲불교 토론 서비스는 동시대 미국인 불자들의 시사 · 학술적인 주제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이곳에서 가장 인기있는 주제는 국내 N세대의 이목이 집중됐던 영화 '매트릭스'에 대해, 어떤 불교적 비평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 서비스의 창에 올려진 글을 읽어보면 미국인 불자들의 활발한 상상력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또 이 곳에는 〈법구경〉 〈반야경〉 등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경전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논의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미국인 불자들과 채팅(대화)할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이 사이트의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영어를 잘 모르더라도 대화방에 들어서면, 자비심 가득한 불자들을 만날 수 있다. 'Hi' 'In Dharma' 등의 단순한 영어로도 참여 가능하다.

만약 이 서비스를 통해 좋은 법우(法友)를 만나면 ▲E-메일 서비스를 이용,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남겨 놓으면, 외국인 불자와 지속적인 사이버 교류가 가능하다. 또 어느 정도 불교영어에 익숙해지면, 서투른 법거량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비디오 및 미술 감상 서비스에서는 캄보디아의 마하고사난다 스님이 지난해 미국에서 전개된 '대인지뢰 근절을 위한 캠페인' 현장에서 봉행했던 법회 현황을 녹화한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다. 항마상 · 고행상 등 부처님의 다양한 수행상과 네팔 카투만두 계곡에 있는 탑골사원의 장관, 네팔인들이 만든 루파스 · 상카스 등 40여 장의 고화질 그래픽 사진들을 볼 수 있다.

法友들과 만나 법거량

미국 여성불교계의 대표 인사로 꼽히고 있는 벨 훅(Bell Hook) 여사와 페마 초드론(Pema Chodron) 스님이 '두카(dukkha · 苦)'를 주제로 한 대담 내용도 이 곳에서는 열람 가능하다. 바로 전자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고통이 존재하느냐 혹은 존재하지 않느냐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고통을 다루어야 깨우침을 얻을 수 있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 붙이는 일상의 관습이나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는 등의 두 여성지도자들의 육성을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불교-비(非)종교의 종교〉(알란 와츠), 〈아주 짧은 불교학 개론〉(데이비드 키온) 등을 비롯해 불교 서적 30여 권에 대한 서평도 볼 수 있고, 미국인 불자들이 주로 읽고 있는 빨리어 장경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오종욱 기자

△http://www.edepot.com/buddha.shtml

경북 청송의 관음기도 영험도량
샘재 영천암(靈泉庵)에서 불자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소납은 지난 1998년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법당이 전소된후 새로이 조립식으로 임시법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필설로 다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 현재도 부처님 좌대를 비롯해 후불탱화와 좌우보처 보살님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불자님께서 오는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에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루속히 영천암을 정상화시킬수 있도록 등불 한 등이라도 밝혀 주시온다면 크나큰 도움이 되겠사오니 부디 도와 주시옵기를 7일동안 삼천배기도를 지성으로 드려서 모신 우리 영천암 부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복과 덕이 부족해서 늘 여러 불자님께 염려를 많이 끼쳐 드려서 참으로 송구하오나 앞으로 반드시 사회사업을 해서 불사회향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꼭 제가 이 불사를 성취하여 저 수미산 같은 한은 풀 수 있도록 하루속히 백겁좌법회를 꼭 꼭 꼭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옵니다. 이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면 제가 살아 있어도 어찌 살아 있다고 하겠사오며 불사를 성취한다면 저는 죽어도 산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겠사오며 저 사해바다 같은 한을 풀도록 부디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옵니다. 그리고 또 영천암에 도서실을 만들고져 하오니 불자님 가정에 다 읽으신 불서와 법문 카세트 테이프, 법문 비디오 테이프, 불교관련CD가 있으신 분께서는 영천암으로 기증을 해 주시온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사오니 저 혼자의 힘으로 도서실을 열기가 어려우니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 등불을 밝히시는 분께는 일년내내 기도 축원해 드립니다.
※ 탁발 다니는 관계로 평일 내사시(來寺時) 미리 전화 연락 바랍니다.
※ 등불공양 올리실분은 가족상황과 전화번호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1리 548-3번지
샘재 영천암(靈泉庵)
전화문의(팩스겸용):0575)873-2724 휴대폰 : 016)521-2724
주지 곽 승 만 합장
▶ 온라인입금 계좌번호 농 협 : 711089-51-056599
▶ 예금주 : 곽 명 희 우체국 : 700419-0136013

영천암 오시는 길안내도



연밥 (연꽃씨) 을 드셔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연밥은 풍부한 녹말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아미노산 조성분인 리신이 상당량 포함된 양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인더스 문명 유적에서 연꽃 장식이 출토되었고, 불교전래 이전의 고대인도에서도 이미 다산(多産)이나 생명(生命)연장(延長)의 상징 또는 대지와 그 창조력, 신성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청순한 꽃을 피우는 연(連)을 극락정토(極樂淨土)라 하는 견해도 있어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味甘無毒養氣力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기력을 돕는다
除百疾補五臟 인체의 온갖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止渴益神安心 오장을 보호하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多食令人喜 정신을 좋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많이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 - 본초강목 일부 중에서 - -

補中, 益氣, 止血, 治痢 등의 효과가 있다. 기운을 더해주고 몸을 보신해주고 지혈작용과 질병을 다스리는 효험이 있다
- 삼성출판사 새 우리말 큰사전 중에서 -

1Kg포장속에는 알곡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속심과 껍질을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입니다. 알곡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가 15000여개가 들어있으며 충분히 물에 불리신후 사찰이나 가정에서 밥지으실 때 콩개념으로 넣어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품안내	3Kg	36,000원	각각 포장되어 판매
	5Kg	55,000원	
	10Kg	10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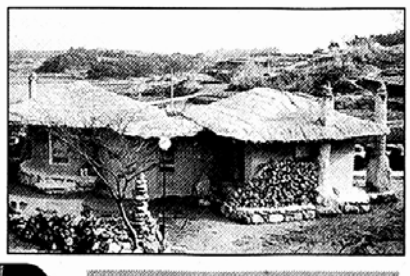
예금주 : 기업은행 (337-009547-04-018) 인창 물산
농 협 (217028-52-013565) 여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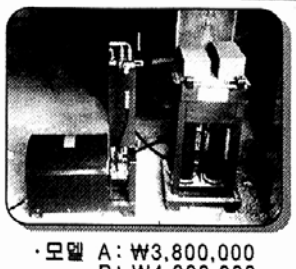
구입문의
인 창 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73-25
(0344)907-2567, 906-5691-2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 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생사윤회 끊으려면 살생 말라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5〉

오계상경-9

총이나 덫 사용해 죽이면 무거운 죄
실수하여 죽게한 죄 참회할 수 있어

▲원문

'연기도 나지 않는 불구덩이에 빠뜨려 죽인다'는 것은, 사람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연기 나지 않는 불구덩이를 만들고 그 위를 모래나 흙으로 덮어 두고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구덩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이쪽으로 오던 사람이 이 인연으로 죽게 되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죽는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中罪)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을 위해 연기 나지 않는 불구덩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되고, 비인(非人, 모든 천인과 아수라와 귀신들)이 죽으면 이것은 중죄이기 때문에 참회할 수 있다.(주: 사람에 대해서는 방편에 따른 죄를 얻지만, 비인에 대해서는 살생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살생한 죄를 얻지 않는다.) 축생이 죽으면 하죄(下罪)로써 참회할 수 있다.(주: '하죄'의 하(下)는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닐까 싶다. 다른 여러 율장에 준거해 보면 이 죄는 '중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사람에 대해서는 방편에 따른 죄를 얻지만, 축생에 대해서는 살생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살생한 죄를 얻지 않는다.)

비인(非人)을 위해 만든 구덩이에 비인이 죽으면 중급의 죄로써 참회할 수 있고,(주: 비인은 모두 도의(道義)가 미약하므로 죽이더라도 계체를 잃지 않고 다만 참회함으로써 없앨 수 있다.) 사람이나 축생이 죽으면 하죄로써 참회할 수 있다.(주: 비인에 대해서는 방편에 따른 죄를 얻지만, 사람이나 축생에 대해서는 살생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살생한 죄를 얻지 않는다.)

만약 축생을 위해 만든 구덩이에 축생이 죽으면 이는 하죄로써 참회할 수 있으며,(주: '짐승은 모든 하늘들과 귀신과 비교하면 더욱 하열하다. 그러므로 죽인 사람들의 죄는 작고 가볍다.) 만약 사람이 떨어져 죽거나 비인이 떨어져 죽으면 모두 하죄를 범하는 것이 되며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특정한 한 가지 일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구덩이를 만들어 두었는데 지나다니는 것들이 모두 떨어져 죽었을 경우,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비인이 죽으면 중급의 죄, 축생이 죽으면 하죄로써 참회할 수 있다. 전혀 죽은 것이 없으면 세 가지 방편에 따라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연기도 나지 않는 불구덩이로 죽이는 것'이라 한다.

▲강의

여기에서는 '연기도 없는 불구덩이로 남을 죽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핵(核)이나 덫, 함정에 빠뜨려 죽이거나 쏘아 죽이는 것' 등도 이 내용에 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목숨이 있는 모든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살생을 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신과 용과 귀신을 죽인 것에 대하여는 중급의 죄라 하고, 짐승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겨우 하급 죄라 하고, 게다가 계체(戒體)를 잃지도 않고 악도에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가?"

계를 받은 이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계체를 잃게 되는 경우는 사람을 죽이거나, 오전(五錢) 이상을 훔치거나, 삿된 음행을 하거나, 크게 거짓말을 하는 등의 근본 네 가지 중계를 범했을 때이다. 이 네 가지 중계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하면 결코 작법(作法)으로 참회할 수 없다. 비인이나 축생 등을 죽였을 경우 죄의 본질은 비록 중대한 것이나 무작죄(無作罪)에 위배되는 것은 오히려 작고 가볍다. 본문에서 말하는 '중급 또는 하급의 죄로써 참회할 수 있다'는 것은 무작죄에 위배되는 것을 참회하여 없애고 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한다는 것이지, 죄의 본질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목숨이라도 죽이게 되면 반드시 한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일부러 죽이면 자신도 똑같은 갚음을 받게 되며, 잘못하여 죽이게 되면 역시 잘못된 갚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능엄경〉에 이르기를, "그의 몸과 목숨을 죽이거나 혹은 그의 고기를 먹으면 미진겁을 지나도록 서로 먹고 서로 죽이는 것이 마치 구르는 바퀴가 번갈아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계를 잘 받아 지켜 범하지 않으면 윤회를 끊을 수 있을 것이며, 설사 다시 범하게 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다시 범하지 않는다면 또한 삼악도에 떨어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급 또는 하급의 죄로써 참회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살생의 죄가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인데, 수행하여 열반을 증득하거나, 염불하여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업연을 갚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해인총림 율원장〉

가톨릭 나라에 1880년 불교 첫선

세계의 불교학 〈15〉 오스트리아 ①

학자들 빨리어 경전 가르침에 매료
불교 1983년 공식종교로 인정 받아



◇티베트사원을 찾은 오스트리아 불교학자들.

오스트리아 불교는 1983년에서야 종교로써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강한데다, 또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잠깐 불었던 불교에 대한 관심이 1·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풀 꺾였던 탓이다. 오스트리아 불교학은 유럽의 식민지 정책이 극에 달했던 1880년대를 전후로 시작되었는데, 제1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주로 문학과 철학 분야에서 활동했던 학자들이 동양의 지혜를 인식했던 단계로 볼 수 있다.

제2기는 19세기말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1888년부터 1916년까지 경전과 같은 불교문헌을 수집하는 운동이 펼쳐졌는데, 당시 인문학계 학자들이 이 운동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냈다. 1918년부터 1924년까지는 나치들에 의해서 불교가 금지되었다. 물론 1918년에 벌써 불교에 강한 관심을 보였던 독일의 상황과는 달리 오스트리아에서는 2차 세계대전 후에야 겨우 불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 1948년 오프레찰(Oprechal)·칼(H.Klar)·스테파노프스키(J.Stepanovsky) 박사들이 모여 '불교 단체 빈(Buddhitische Gesellschaft Wien)'을 설립한 것에서, 그 계기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인구 백만 도시 빈의 '종교단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고작 12명의 시민들만이 이 단체에서 활동했다. 이들 회원들은 강의나 토론을 통해 오프레찰과 같은 학자들은 만날 수 있었고, 불교 교리와 신행을 접할 수 있었다. 이후 이젠버그(Exenberge) 박사와 페트라소위취(Petrassowitsch) 교수가 이 단체에 합류했다. 그들은 학문, 즉 이론적인 면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오래된 빨리어 경전에 있는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빨리어 강좌가 생겼고 달케(Dahlke)의 장부와 중부의 빨리어본 번역을 지원했다. 당시 불교단체들은 회원들이 서로 책을 바꾸어 읽는 것을 적극 권장했는데, 단체 내 소규모의 대출서점을 만들기도 했다.

빨리어경전협회(PTS)의 영역본 빨리어 경전은 이때 오스트리아 학자와 불자들에게 중요한 서적이었다. 이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견과 서적을 교환했는데, 전쟁 후에는 출판의 자유와 서신 교환이 가능함에 따라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그러나 1941년 게쉬타포(비밀경찰)에 의해 불교단체의 활동이 금지되고, 스타인케(Steinke)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이 체포되고, 1942년 불서 출판이 금지되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불교가 사라지는 듯했다. 1950년대 세계대전이 끝나자 1960년대 중반까지 오스트리아에서는 예전의 불교단체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또 새로운 불교단체들이 생기는 등의 변화가 계속되었다.

제3기는 196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다. 이 기간동안 오스트리아의 불교계는 불자의 수를 늘리고 불교센터를 세우는 한편 선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중 불교센터는 1970년 중반부터 약 10여년간 오스트리아 각 지역에 세워질 정도로 '붐'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오스트리아 불교학계는 1990년 초까지 티베트 불교를 적극 수용하고 티베트·한문장경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오스트리아 불교는 1983년 2월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공식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불교가 종교로써 법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오스트리아의 중심 종교인 가톨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오스트리아 불교계는 빈을 중심으로 포교 확대와 조직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대육신 흩어져도 참된마음 변함없어"

법회증계

익산숭림사
〈2000년 4월 11일〉



지광스님
〈숭림사 주지〉

조그마한 보시 하더라도 일체중생 위해 마음내면 한량없는 이익 얻게 돼요

오늘은 숭림사 주지 소임을 맡아 불사를 시작한 지 꼭 13년이 됐습니다. 요즘 불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군소리들이 많은데, 숭림사 2차 불사 회향법회가 열리는 만큼 '불사의 공덕'에 대해 법문을 할까 합니다. 처음 이곳 산사에 왔을 때 고찰의 정적만 있을 뿐 낡은 법당과 요사에 비가 새는 등 폐허나 다름이 없었지요.

절에 온 다음날부터 손을 걷어붙이고 흙을 이겨 담장과 법당의 지붕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3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 우화루 보수, 법당 내부 수리, 종각 건립, 요사 안심당 건립, 산신각 건립, 축대보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까지 숭림사에 관심을 갖고 불사에 동참해 준 전국 각지의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사를 하는 것은 중생들의 보리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 공간일 뿐 아니라 중생들의 불법 공부를 돕는 장소입니다. 도량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부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궁극의 진리, 깨달음의 길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불사의 숨은 뜻은 대중스님과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준다는 데 있습니다.

모두 하나된 마음이 원력으로 승화되고 실천하는 속에 비로소 복덕이 만들어지는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문서불사, 인간불사와 함께 부처님을 조성하고 탑을 세우는 불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선대의 불자들은 불사를 위해 신도들이 모여 공불계를 조직했습니다. 그 만큼 십시일반의 정성을 중시한 것이지요. 이곳 우화루에 걸려 있는 '공불계'의 내용을 보면, 1737년 임치번 불자가 공불계를 조직하여 1백여 명의 계원과 함께 약간씩 곡식을 내어 불량답(佛粮畓)을 마련, 몇 년간 직접 경작했다고 합니다. 그 수확물로 건축불사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사가 끝나면서 불량답을 절에 보시했는데, 이 땅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부처님 앞에 늘 향이 사뤄질 수 있도록 발원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얼마나 의미 있는 불사입니까. 그 토지는 지금도 내려오고 있지요.

부처님 말씀에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든지 조그마한 보시를 하고라도 능히 증상심으로 널리 일체중생을 위하는 가장 수승한 선심을 내어 얻는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면 그 이익은 다할 때가 없으리라. 만일 향 하나를 보시하더라도 마땅히 이런 뜻을 내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사는 후대의 중생들을 위해 회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덕 중에서도 최상의 공덕이 남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사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자비정신의 표현입니다. 우주의 나이로 보면 사람은 이 지구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집착과 욕심, 성냄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찰나의 생을 사는 동안 잠깐 이용할 뿐입니다.

가깝게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몸은 흙(地)·물(水)·뜨거움(火)·바람(風)이 잠깐 인연작용으로 뭉쳐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나의 마음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밖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지요. 모든 문제는 밖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참 재산을 많이 비축하는 불자가 되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이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 전국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를 위하여 전국의 지사를 안내합니다.

지사명	주 소	전화번호	FAX
본 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02)737-8881(代)/737-0090(直)	02)737-0697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397 서일아파트 A동 503호	0391)643-5599/019)366-1315	겸 용
고성지국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옥천사내 청련암	0556)672-0078/011-836-0078	0556)672-1308
광주지사	광주시 서구 쌍촌동 837-4 한마음선원내	062)375-9986/016-602-7544	062)371-7544
대구지사	대구시 동구 용계동 1013-1 새마을금고 2층	053)983-9222/011-813-3679	053)983-9223
목포지국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44-3 목포불교대학 4층내	0631)279-3788/019-644-0701	0631)279-0577
밀양지국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213 용정사	0527)353-1196/017-650-1196	0527)356-1346
부산지사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47-18 건축사빌딩 6층	051)634-5114	051)634-5188
안산지국	경기 안산시 원곡동 838 은하연립 108동 202호	0345)494-8859/011-9912-8859	
영주지국	경북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242-17	0573)674-1199/011-546-3788	0573)673-8836
울산지사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2동 693-2 3층	051)752-0851(자택)/052)257-7737	052)244-0182
진주지사	경남 진주시 신안동 현대2차아파트 205동 1202호	0591)743-5020/016-585-2120	
제주지사	제주시 연동 320-44	016)695-6885	
충청지사	대전시 서구 변동 254-105 칠불사내	042)527-0559/011-9846-2115	겸 용
일본지사	日本國 大阪市 生野區 鶴橋 2丁目 11-4 現代佛敎新聞社 日本國 支社	0347-766-0242/011-265-5118	
	경기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35-16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김용사 괘불탱. 오는 9월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이 괘불탱은 석가여래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것을 상징하는 '영산회상도'다.



◇통도사 일주문을 들어선 '괘불이운연'. 자주빛 천으로 곱게 단장한 이 연은,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이번 이운의식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다.

"
지혜 구족하고
내세 안락정토
기원하옵니다
"



◇괘불을 실은 연 좌우로 연등을 들고 행렬을 따르는 통도사 신도들.

통도사 성보박물관 괘불 이운의식

석가모니불 자비로운 눈웃음
영축산 찾은 불자들 환희심

11일 오전 11시 경남 양산 통도사의 부도전 앞마당에는 괘불을 실은 연이 놓여지고, 그 앞에는 향로·촛대·다기 등의 상이 차려진다. 잠시 후 긴 호적 소리가 울리자, 앞마당을 메우고 있던 스님과 불자들은 옹호게를 봉독하기 시작한다. 팔부금강신으로 하여금 부처님이 오시는 도량을 정화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게송에 이어, '나무아미타불' 염송과 영산회상불을 청하는 법음이 울려 퍼지며, 괘불을 실은 연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오는 9월까지 전시하는 김용사 괘불탱의 이운의식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괘불탱 특별전'을 연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이번 김용사 괘불탱 특별전에 앞서 개최한 전시회와는 달리 괘불이운의식 재현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통도사성보박물관은 김용사 괘불탱을 모시기 위한 '괘불이운연'을 특별히 제작하고 통도사 신도로 구성된 '괘불봉찬회'를 창립해, 한달 전부터 괘불이운의식 예행연습까지 했다.

김용사 괘불탱(9.47×7.02m)은 석가여래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것을 상징하는 '영산회상도'인데, 조선시대에 널리 유포된 《법화경》과 더불어 당시 법화신앙을 반영하고 있다.

괘불탱은 전각 벽면에 장엄된 탱화와는 달리 건물 밖에 마련된 괘불대에 거는 걸개 그림으로, 1년에 1~2회 수륙재·영산재·관음재·초파일 등과 같이 많은 불자들이 모이는 대형 불교 행사 때 사용된다. 그래서 괘불탱을 내건 사찰은, 춤과 노래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의 마당이 되고 또 민중의 염원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경배의 장소가 된다.

괘불이운의식이란 영산재나 수륙재 등을 봉행할 때, 야외 법당을 설치하고 괘불탱을 법회 장소로 옮기는 '괘불재'를 말한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빈번했다는 이 의식은 현재 통도사나 서울 봉원사에서 특별한 날에만 베풀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 까닭은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는 야외 법회에서 봉안되었던 괘불이었던 만큼 매우 크게 제작되었고, 이로 인해 현대의 사찰 규모와 신행 형태와는 어울리지 않은 탓이다. 괘불탱의 평균 크기는 5.6m를 웃돌며, 국내에서 가장 큰 통도사관음보살괘불탱은 14m에 이른다. 현존하는 괘불탱은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화, 안심사 영산회상괘불탱, 갑사 비로자나삼신불괘불탱,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 등 80여 점이 전부다.

괘불봉찬회원들을 중심으로 1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현된 이번 이운의식은 나무대성인로왕보살(南無大聖引路王菩薩)이 새겨진 번(幡)이 재일 앞서고, 괘불탱을 중심으로 청도, 홍도, 나무석가여래사령, 칠여래, 사보살, 보고, 오방, 향마, 팔금강, 십이지신상 번기들이 따랐다. 그 뒤에는 좌우로 연등과 향, 초, 꽃 등을 든 사람들과 이운 연에 밴 광목 끈을 잡은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괘불이운의식이 한창 진행되자 길가에 늘어섰던 불자와 관광객들도 하나 둘 괘불을 실은 연에 이어진 광목 천을 어깨에 두르고 이운 행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점점 길어지는 행렬은 부도전에서부터 괘불탱이 가야 할 박물관에 이르는 길목을 가득 메웠다.



◇괘불이운 행렬을 이끌고 있는 50여 기의 번(幡)들. 괘불봉찬회원들이 들고있는 번 사이로 축소제작 된 김용사 괘불탱이 보인다.

행렬에 참여한 불자들의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소리는 더욱 장중해지고, 그들의 바람이 펄럭이는 번 자락을 따라 하늘을 수놓았다.

마침내 괘불탱은 박물관 앞마당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걸 때에 안치되었다. 이어 어산 작법을 닮은 스님들은 단상에 올라가 괘불탱을 향하여 바라춤·나비춤 등을 추는 가운데 이운 행렬에 참여했던 불자들은 등상계를 읊으며 헌괘를 하기 시작했다. 괘불탱을 거는 의식인 헌괘는 통도사성보박물관내 중앙홀에 마련된 괘불 전시실에서 따로 행해졌다. 돌돌 말아져 있던 대형 괘불탱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자 대중들은 저절로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괘불탱이 불단 위까지 완전히 올라가자 어산 작법을 시연하던 스님들은 '사무량게' '현좌게' '영산헌다' '보공양진언' 등을 읊었고, 대중들이 '영산지심'을 하는 것으로 괘불이운의식은 끝났다.

"일년에 한 두 차례밖에 친견할 수 없었던 귀중한 괘불탱을 전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사람들이 괘불탱 친견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근본 불성으로 향하는 인연 공덕 짓길 바란다"는 법하(통도사성보박물관장)스님의 말을 듣지 않아도 절로 환희심이 우러나올 만큼, 괘불이운의식은 참으로 장중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괘불이운의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처님의 그 원만한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이운되고, 그것이 세상을 불국토로 가꾸어나갈 때야말로 괘불 이운의 끝이 아닐까.

글=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신개발
숙면, 쾌변 그리고 氣…
장안 최제 목발명 실용신안 등록 출원(20-003948)
황토 물침대 겸용 돌침대 탄생!!
딱딱한 돌침대를 물침대로…
2Way Bed … 돌침대로! 물침대로!
돌침대 만들기 10년, 침대기 전자파 제거 기능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특허(등록 0157651호)제품
※무이자 할부 개시 (5월말까지만)
· 6개월 무이자 (200만원 이상 구매)
· 3개월 무이자 (200만원 이하 구매) LG 캐피탈 제휴업체
목단 902
국내 및 국제특허출원
101 싱글보료
돌침대의 名家
氣
리빙스톤 (옥스톤)
본사 · A/S : 02)424-9427 직영점: 0333)618-7773
돌침대와 황토물침대의 효능…
◆봄(春)에 불을 안 넣으면 방바닥이 차고 …첫말 돌침대가 필요할때
◆여름에 새벽바닥 축축하고 눅눅한 냉기에 … 황토물침대로 시원하게
◆척추를 반듯하게 교정해 줍니다.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뿜어져 배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환상의 나라 황토물침대가 음이온 원적외선을 펑펑!!
◆초정밀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⑪

凡夫神識昏昧 不同聖人內外明徹
범부신식혼매 부동성인내외명철
若有疑卽不作 作卽流浪生死
약유위즉부작 작즉유랑생사
後悔無相救處 貧窮困苦
후회무상구처 빈궁곤고
皆從妄相生 若了是心 遮相勤勉
개종망상생 약료시심 체상근면
但無作而作 卽入如來知見
단무작이작 즉입여래지견
初發心人 神識總不定
초발심인 신식총부정
若夢 頻見異境 愼不用疑
약몽 빈견이몽 첩불용의
皆是自心起故 不從外來
약시자심기고 부종외래

범부는 아는 것이 어두워서 성인이 안팎으로 밝은 것과는 같지 않다. 만약 의심이 생기거든 의심을 짓지 말아라. 의심을 만들면 생사의 바다에 떠돌게 되어 후회하여도 구제할 길이 없다. 빈궁과 고통이 다 망상에서 생겼으니, 만일 마음을 깨달아서 서로 경책하면서 작용하는 일 없이 작용하면 곧 여래의 지견(知見)에 들 것이다.

의심 만들면 생사의 바다 떠돌아

후회해도 구제할 길이 없다

처음 발심한 사람은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니, 자주 꿈 속에서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선뜻 의심하지 말라. 이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夢若見光明出現 過於日輪
몽약견광명출현 과어일륜
卽除習頓盡 法界性現 若有此事
즉여습돈진 법계성현 약유차사
卽是成佛之因 唯自知
즉시성불지인 유자지
不可向人說 或靜園林中行住坐臥
불가향인설 혹정원림중행주좌와
眼見光明 或大或小 莫與人說
안견광명 혹대혹소 막여인설
亦不得取 亦是自性光明
역부득취 역시자성광명
或夜靜暗中行住坐臥
혹야정암중행주좌와
眼見光明 與晝無異 不得怪
안견광명 여주무이 부득괴
幷是自心 欲明顯
병시자심 욕명현

꿈에 광명이 나타나는 것이 햇빛보다 밝은 것을 보면 남은 습기(習氣)가 다 없어지고 법계의 성품이 나타나리라.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성불할 요인이 되는 것이니, 오직 자기만 알고 남에게는 말하지 말라. 혹 고요한 숲 속에서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웠을 때, 눈에 크고 작은 광명이 보이더라도 남에게 말하지도 말고 또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라. 이는 자기 성품의 광명이니라. 혹 어두운 밤에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웠을 때, 대낮 같은 광명이 눈에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모두가 자기 마음이 밝아지려는 징조인 것이다.

或夜夢中 見星月分明
혹야몽중 견성월분명
亦自心諸緣欲息
역자심제연욕심
亦不得向人說
역부득향인설
夢若昏昏 猶如陰暗中行
몽약혼혼 유여음암중행
亦是自心煩惱障重
역시자심번뇌장중
亦自知 若見本性 不用讀經念佛
역자지 약견본성 불용독경염불
廣學多知無益 神識轉昏
광학다지무익 신식전혼
設教只爲標心 若識心 何用看教
설교지위표심 약식심 하용간교
若從凡入聖 卽須息業養神
약종범입성 즉수식업양신
隨分過日 若多嗔喜 令性轉
수분과일 약다진희 영성전
與道相違 自賺無益
여도상위 자잠무익
여도상위 자잠무익

혹 꿈에 별과 달이 분명하게 보이면 자기 마음의 모든 반연이 쉬려는 조짐이니 역시 남에게 말하지 말라. 꿈이 흐려서 밤에 다니는 것같으면 마음의 번뇌가 무겁다는 뜻이니 스스로 알아라. 만약 본성을 보았거든 경을 읽거나 염불할 필요가 없다. 많이 아는 것은 별 이익이 못되고 도리어 정신이 혼미해진다. 교법이란 마음을 표방하기 위한 것이니, 마음을 알면 교법을 볼 필요가 없다. 범부로서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한다면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서 분수대로 세월을 보내어라. 성내거나 기뻐함이 많으면 성품이 변해서 도와는 어긋나며 스스로를 속일뿐 이익이 없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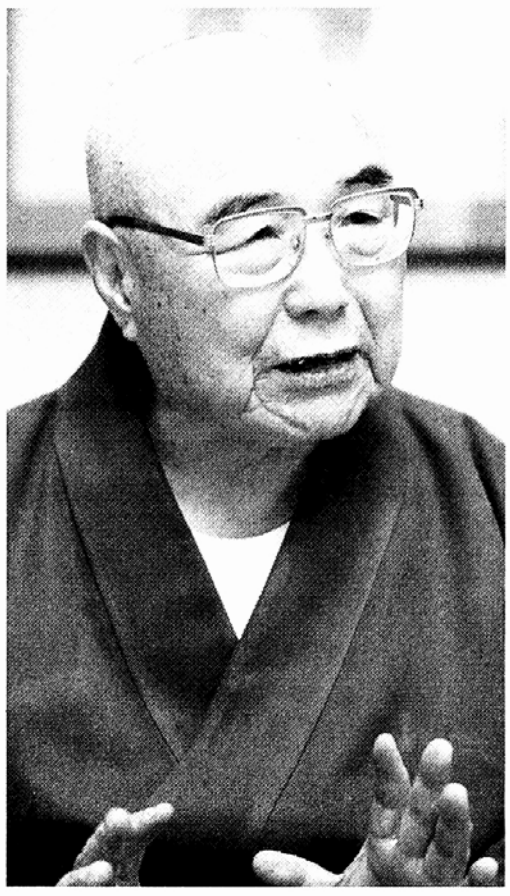
효란스님

연천 오봉사 주지

장례법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가 된 지 오래 되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화장과 납골이 얘기된다. 여론조사에서는 화장과 납골을 선호하는 추세가 높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불교에서는 일찍이 화장하는 것이 장례법의 전형으로 자리잡았으며, 최근에는 묘지난과 환경오염의 피해를 들어 화장법을 장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인데도 부모님만은 묘지에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왜 화장과 납골을 해야 하는지, 일제 치하와 한국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헤쳐온 80의 노스님이 젊은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또 일본문화의 유입, 정보통신의 발달, 군포교 등 요즘 우리 사회의 일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효란스님에게 여쭈었다.

"부처님도 다비 유언했어요"



- 1919년 충남 예산 生
- 31년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을 은사로 득도
- 조선독립운동을 이유로 3년3개월 옥고
- 43년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 졸업
- 46~65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보성전문학교 등에서 문화사 강의
- 68년 동헌스님을 은사로 건당
- 화엄사 등지에서 안거 수행
- 78~83년 조계종 반야회 회장
- 83~84년 군법사단 후원회장
- 現 오봉사 주석, 고대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창립추진위원장
- 〈관무량수경 의역과 해설〉〈불교의 전통신앙〉 등 편역 및 저술

—스님께서는 납골당을 준비하고 계신데, 아직 화장률이 높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최소한 불자들은 화장을 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을 왜 기피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과 슬픔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육친에 이끌리는 정 때문이지요. 그러나 불교에서의 죽음은 적멸(寂滅)입니다. 그리고 정토로 환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는 유교 사상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불교를 배척했고, 유교를 한민족 생활의 지배원리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숟가락을 꼽는데, 혼백이 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교의 관습입니다.

유교에서는 죽은 사람도 3년 동안은 살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주들이 묘소 옆에 초막을 짓고 묘소를 지켰는데,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동안 어떻게 잘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유교를 기초로 생활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매장을 했는데, 신라 때만 해도 화장이 많았어요. 일본의 경우는 왕도 화장해서 모신 것이 많습니다. 불교식대로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유교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종단의 권위있는 기관에서 불교의 여러 의식을 불교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정비해 시행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장례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서 유래합니다. 부친인 정반왕을 손수 다비했습니다. 석가모니 자신도 다비하도록 유언을 했고, 다비 후 유골을 여덟 나라에서 가져가 불탑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화되지 않아 화장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불교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에는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모두 화장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일본인의 마음 속에는 불교문화의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교의 뿌리가 깊다보니 화장은 아직도 드물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화장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들도 화장을 선호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잖아요. 지난 청명 때 묘소를 파서 유골을 화장해서 뿌린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장을 해야 하는 이유를 부처님 가르침에 바탕해서 들려주십시오.

▲원래 고대 인도에는 화장, 수장, 토장, 풍장 등의 장례법이 있었는데, 왕과 같은 경우는 화장을 했어요. 화장이 불교 특유의 장례법으로 정착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구를 화장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대반열반경〉에 화장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가르쳐준 전륜성왕의 장례법입니다. "먼저 향탕(香湯)으로 그 몸을 씻고 새 옷으로 두루 몸을 감싸되, 오백 겹으로 몸을 감싼 뒤에 황금의 관에 넣고 기름을 거기에 쏟는다. 다시 그 황금의 관을 쇠로 된 관 속에 넣고 전단향의 목관으로 그 겉을 다시 싸고, 온갖 기이한 향을 두텁게 쌓아 불을 붙인다. 그리고 나서 사리를 거두어 네거리에 탑을 세워 거기에 넣고, 겉에는 비단을 걸어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탑을 보고서 그 바른 교화를 사모하여 많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했습니다.

화장을 하건 또는 매장, 풍장을 하건 육신이 없어지는 것은 같습니다.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돌아갑니다. 불교에서의 죽음이란 육신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형체가 없어지는 것, 모양도 소리도 없어지는 것, 적멸(寂滅)이지요. 그러니 모습도 없어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49일 동안만 이 세상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7일마다 염라대왕이 심판을 하지요. 악업을 지었으면 벌을 받고, 선업을 쌓았으면 공덕을 받는데, 49일째가 판결을 받는 날이죠. 죽으면 모습이 없어지니 예토(穢土)인 이 세상에 모습을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 환생하라는 것이지요.

다만 가까웠던 사람의 유골을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납골은 아직 인식이 넓지 않아요. 화장은 하지만 납골은 하지 않고 있어요. 화장해서 산에 뿌리기보다는 곁에 두고 모시려는 효성이 있으니 납골도 늘어날 것입니다.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생각해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으리라 보는데요. 어떻게 설득하셨는지요?

▲앞에서도 얘기했듯, 우리 민족의 생각 속에는 죽음이나 해골에 대해 두려움과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혼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불교에서는 49일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요즘에는 화장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화장에 대한 혐오감을 많이 없애주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득을 챙기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혐오시설이라며 나오는 것인데, 설득하기보다는 당연한 이치를 얘기했지요. 누구나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점쟁이들 하는 말이, 상가에 가면 상문살(喪門殺)이 있어서 화를 당한다. 그러니 상가에 다녀오면 화장실을 한바퀴 돌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문상을 가지 않으면 누가 죽은 사람을 수습해줍니까. 괜한 소리예요.

납골당에 뼈를 모시는 것은 부모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효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혐오스럽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죠. 납골당에 모셔진 뼈가 무슨 작용을 하겠어요. 법당에도 유골을 모셔놓고 있는데, 해를 입은

신간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천도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흔히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6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바라밀!
4×6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이 한권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선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아미타도량인 오봉사에 납골당을 건립해 영가들을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말하는 효란스님. 건평 180평 규모의 납골당 외부골조 공사는 모두 끝났다. 빠르면 올 가을부터 유골을 모실 계획이다.

적이 한번도 없어요.

화장과 납골은 전통 불교문화
사는것도 죽는것도 부처님 뜻

—스님께서는 아미타 염불신앙을 강조하시는데, 납골당 건립도 스님의 신앙관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중생이나 죽은 중생 모두를 구제하는 원을 세우셨습니다. 아미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리불아, 만약 착한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마음깊이 새겨 하루,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레를 두고,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외우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수명이 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투시느니라."

아미타도량인 여기 오봉사에 납골당을 세우는 것은 경전의 가르침대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이지요. 염불소리를 듣는 영가들에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불하라는 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염불이라고 하면 그만인데, 나는 본원염불이라고 합니다.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이 중생을 염려해서 중생의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 '나무아미타불' 하고 내 명호를 부르라고 했어요. 석가모니불이나 다른 부처님의 칭하는 것은 찬불, 천수경을 독경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원이란 말을 꼭 붙입니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면 공덕이 쌓입니다. 해독제가 생기는 것이예요. 업이라는 독을 해소하려면 공덕이라는 해독제가 있어야 합니다. 수행의 목적도 공덕을 쌓아 부처님께 회향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살아온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주시지요.

▲지금까지 내가 한 행위가 내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내가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나서 보니 부처님 뜻이었음을 깨닫습니다. 13세에 출가한 것도 그렇고, 독방에 들어앉혀 300여권의 불교책을 읽게 한 것도 부처님 뜻이었지요. 나를 승으로 만들었고, 공부시키려니 마땅한 곳 없으니 형무소로 보낸 것이죠. 일거수 일투족이 부처님 뜻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고통과 불안이 뒤따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오늘도 깨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가끔 법문을 부탁하는 곳이 있어요. 가기 싫지만 거절 못하고 갈 때도 부처님이 여기에 왜 불렀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몇 일 지나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발생적인 법(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믿고 시봉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자연스런 법에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없애기 전까지는 부처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살고 죽는 것을 부처님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불자의 길입니다.

—스님께서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고, 이후 일본 불교인과 교류가 많습니다. 일본문화 개방 이후 영화 연극 등의 유입이 많습니다. 우려했던 저질문화의 유입보다는 고급한 문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스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본문화의 바탕은 불교입니다. 기독교신자건 불교신자건 일본인의 기본자세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일본 말 '아리가도(有難)'는 감사, 사례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불가사의한 인연으로 생겼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 행위로는 성불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성불하게 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을 생겼으니 고마울 따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리가도'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온 말이지요.

일본인의 생활과 문화에는 기본적으로 '아리가도'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저질의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일본인이 추구하는 것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것이 모두 좋다, 모두 싫다, 그러면 안되고 우리들이 옥석을 잘 구분해야 하겠지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옛 어른들의 가르침과 삶이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의 시대에 옛것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요즘 사회를 지식사회, 정보사회라고 부르는데,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멀리서 왔다가도 하룻밤 묵어가는 일이 드물어요. 바쁘니까요. 현기증을 느낄 정도예요.

나는 정보사회의 본질을 도구가 발달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비교되는 것은 도구의 사용에 있다고 합니다. 도구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지 정신은 아닙니다. 정신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나고 죽고, 그리운 사람과 헤어지니 고통스럽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면 싫은 것이 당연하듯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와 가치를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추우면 옷을 더 껴입고, 더우면 땀으로 열을 식힙니다. 날씨가 변하는 것이지 우리 몸뚱이가 다른 무엇으로 바뀝니까?

정보사회이면서 동시에 지식사회라고 합니다. 지식사회는 앎의 문제인데, 지식과 지혜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인들의 가르침 혹은 고전(古典)은 도구적인 수준이 아니고 삶의 근본적인 성찰이 담겨 있어요. 정보사회는 삶의 도구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지 않거나, 고전의 가르침을 전달하지 않는 정보는 우리들을 빠름의 노예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정보사회가 도구의 발달로만 치닫지 않도록 인문적 교양과 지식의 중요성이 그 이상으로 커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정보사회, 지식사회의 등대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이곳이 군부대가 많은 곳이어서 그런지 스님께서는 군법당에 자주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포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군포교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해 전에 목사 한분이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교회에 안 가고 이곳에 온다기에 왔다는 거예요. 라면값 하라며 2만원을 주고 가더군요. 그 병사는 이곳에 나오다 제대했는데, 교회보다 절이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바른 종교는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목사 아버지도 수긍했다고 하더군요.

사찰 주변에 군부대가 많다보니 군포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요. 30여년 동안 매주 일요일이면 군부대를 돌아다녔어요. 요즘은 장병들이 이곳에 옵니다. 30~40명 정도가 오는데 법회 후 라면을 끓여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군포교는 경제적,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군법당에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는 병사들을 배불리 먹여야지요. 신도들이 협조하고 참여해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군포교가 필요하다고 입을 열면 한결같이 말하지만, 돈도 보태고 시간도 내서 함께 해야겠지요. 장병들을 불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군생활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대담=정성윤 차장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무술고수 대오스님 (上)

혈기가 왕성한 젊은 나이에는 남보다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길 좋아한다. 나도 출가하기 전에는 그랬었다. 아니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난뒤에도 그같은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자주 다투기도 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처음에는 겪는 일인데 어떤 곳에 가서 살아도 항상 미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둘 있게 마련이다. 저 놈만 보지 않으면 수행을 잘 하고 살 것 같은데 하다가 결국 다른 장소로 옮겨 살아보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조금 지나면 또 미운 사람이 생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에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런 마음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해소가 된다.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수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양평쪽에 있는 운길산 중턱에 수종사가 있다. 나는 출가하여 행자시절부터 스님이 되고 난 뒤에도 수종사에서 많이 살았다. 절이 너무 아름다워 내 마음을 끌었기 때문이다.

"폭력 앞에서 죽어가는 생명 살리려고 무술 배우는 것"

그 수종사 시절에 '대오'라는 스님이 있었다. 키가 훤출하고 몸이 날렵했는데 무술에 관심이 많고, 또 무술 고수로서 무술을 연마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았다. 나이는 나보다 서너 살 위였지만 우리는 서로 의기가 투합되어 아주 허물없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우리는 아침마다 마을까지 내려가 쌀을 한 짐씩 지고 올라오곤 했다. 수종사는 마을에서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부식이나 생활용품 등을 운반해다 먹는 일이 큰 일이었다. 그것을 대오스님과 나는 신체단련으로 활용했다. 특히 그 해에는 대웅전을 짓는 큰 불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절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니 무엇보다 쌀이 많이 들어갔다. 말이 그렇지 무거운 쌀을 한짐씩 지고, 그것도 매일같이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일은 여간한 일이 아니었다. 훈련을 한다는 생각이 아니면 못할 일이었다. 그렇게 두 달 정도를 했을까, 다리에 철근이 하나 박힌 것 같이 튼튼하게 되었다. 짐을 지지 않고 그냥 산을 오르는 일은 몸이 가벼워서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산을 올라가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힘이 넘쳐나서 산을 뽑고 세상을 덮을 정도의 힘(力發山兮 氣豈世兮)이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절밑 숲속에서 열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와서 개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다. 털을 태우는 냄새가 온 산중을 덮었다. 우리는 나는 듯이 달려내려가 불문곡직하고 그들이 가지고온 솥 단지며 술병이며 그릇들을 닥치는 대로 발로 걷어차고 부숴버렸다.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던 그들이 덤비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선 숫자가 많았다. 하지만 이쪽은 상당히 몸을 단련한 사람들이었다. 대오스님과 나는 각기 손에 몽둥이 하나씩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싸웠다. 몇 사람이 머리가 터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하는 상처를 입었다. 싸움이 끝나고 보니까 대오스님과 나 역시 성한 곳이 없었다. 온 몸이 멍투성이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통쾌하게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다.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았다. "자식들 다시한번 절밑에 와서 개를 잡아먹어만 봐라. 그때는 뼈도 못 추릴 것이다"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절에 와서 주지스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였다 대오스님이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났다. 어디 조용한 장소로 가자고 하자 대오스님은 자신의 무술을 믿었기 때문에 순순히 따라갔다. 싸움이 벌어졌고 대오스님은 칼에 팔목과 옆구리 두 군데를 찔리는 상처를 입었다. 그들쪽은 더 비참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성한 사람이 없었다. 그나마 그 정도에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신고를 해 경찰이 달려왔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저들이 집단폭행이라 하여 가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지만 주지스님은 오히려 이쪽이 무술고단자이니 잘못이 많다고 해 화해를 해주고 처벌을 하지말라는 부탁까지 해서 사건은 간단하게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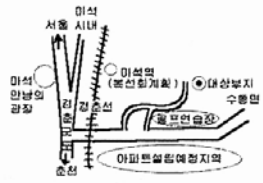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하지만 대오스님과 나는 주지스님 앞으로 불려가 "수행자동안은 어떤 경우라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해야했다. 특히 대오스님은 무술을 그만 두든지 아니면 다시는 힘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하든지 양단간에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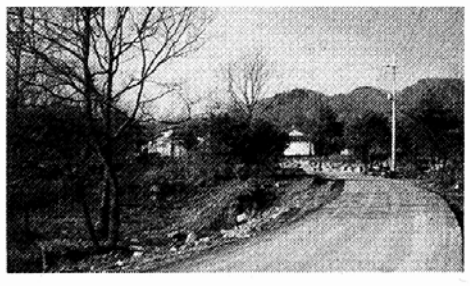
"자고로 무술이란 폭력이 아니니라.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또 살리고자 하여 배우는 것이다. 폭력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도 내게 힘이 없어서 그것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앞으로 힘자랑이나 할 생각으로 무술을 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귀에 다시는 누구에게 맞았다거나 누구를 때렸다고 하는 말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다시는 이와같은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

남양주시 최고의 대가람터

▶ 소재지 :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 면 적 : 2,000평 ~10,000평
▶ 가 액 : 상담후 결정
▶ 연락처 : 0346)511-0433
017)302-2550
017)391-1003



▶ 특 징
1. 46번 경춘국도에서 직선 1Km
2. 진입도로 아스팔트 포장 및 기반시설 완료
3. 송라산 자락에 위치하여 마석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
4. 정남향 대지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려다
산세가 너무 아름다워
훼손시킬수가 없었읍니다.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납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증9포와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환 및 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넘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분 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친견

주문신청 0523)372-1221 / 011)564-1217
■대 금 : 20만원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지장선원 개념4주년 기념
지장발심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약동의 계절 새봄을 맞이하여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여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두손 모읍니다.
지장보살의 은혜 속에 불초소납이 지장선원 개원 4주년기념으로 지장도량 큰스님을 초청하여 "지장발심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7일간 매일 지장예찬기도와 지장법문, 무료천도재에 불자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이 법석을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기 2544년 4월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선원장 지공손모음

근입재 : 불기 2544년 4월 22일(토요일)오전 10시
근회향 : 불기 2544년 4월 28일(금요일)오전 10시

법문일정

입재날	4월 22일(토요일)	덕풍큰스님(부산녹야원) - 지장기도성취법
둘째날	4월 23일(일요일)	철현큰스님(철원심원사) - 지장행자의 수행생활
셋째날	4월 24일(월요일)	주광큰스님(신산업명사) - 지장보살의 사상과 원력
넷째날	4월 25일(화요일)	정목스님(춘천정토원) - 지장업불로 나와 세계를 밝힘
다섯째날	4월 26일(수요일)	보각큰스님(증앙승가대) - 지장신앙과 사회복지 실천
여섯째날	4월 27일(목요일)	범진스님(영천반자마을) - 지장경 대의
회향날	4월 28일(금요일)	묘허큰스님(김해원명사) - 올바른 지장신앙

연락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541-1 효목B/D 3층
053)744-0150(~1)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E-mail : hbac.@chollia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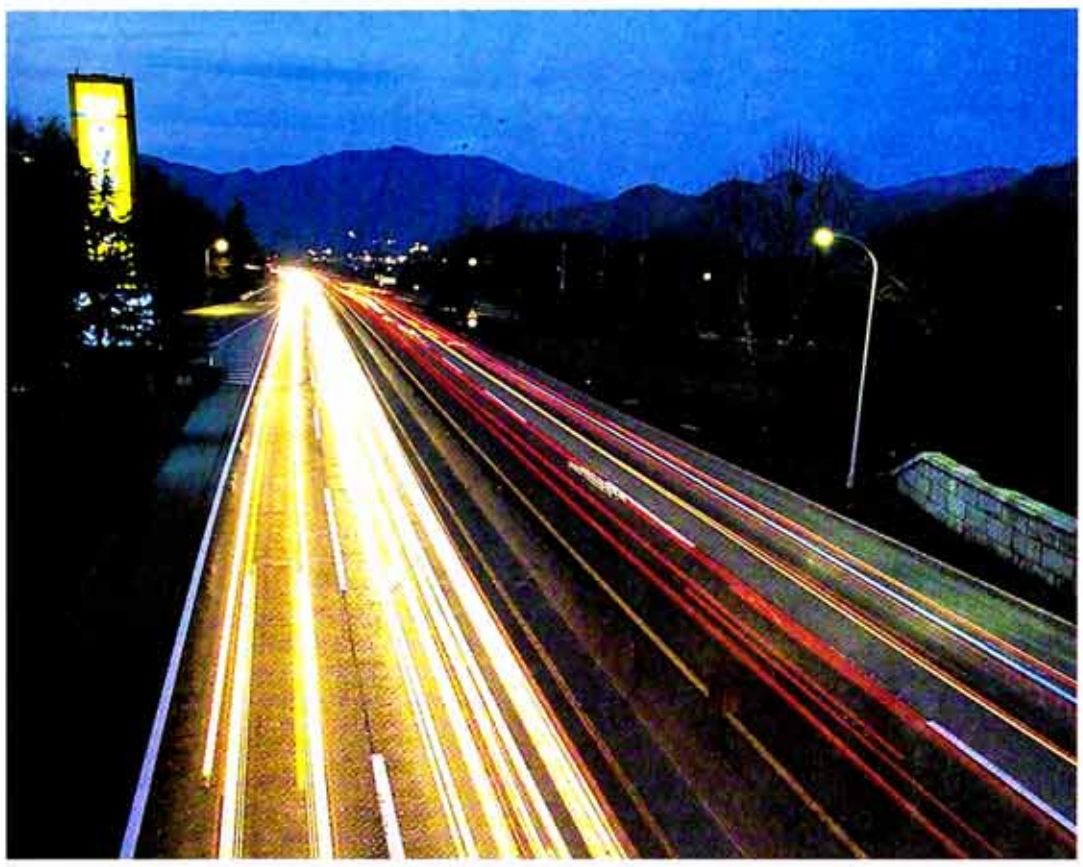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봄 깊은 대간마루…흐드러진 꽃물결

백두대간 속으로 〈13〉

황악산→추풍령



◇추풍령 휴게소에서 본 경부고속도로의 야경.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추풍령은 전국에서 가장 바쁜 고갯길이지만 본래의 추풍령은 예나 지금이나 한적하다.

고승 풍모 닮은 덕스러운 황악산 뒤로하고 걷다가 꽃 보고 꽃 보다 쉬어가는 봄 산행

심장 박동만 있을 뿐 모든 운동 기능이 정지된 사람을 일러 '식물인간'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사람과 식물 모두에게 중대한 결례다. 사람됨의 기준을 식물의 불박이성에 빗댄 것도 그렇거니와, 식물의 속성을 광물질과 같이 고정된 면에서만 찾았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식물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생각은, 모든 식물을 한 그루 혹은 한 포기 단위로 볼 때나, 화병의 꽃을 두고 말할 경우에나 옳다. '숲'은 보지 않고 오직 '나무'만 바라봤을 때나 옳은 말인 것이다. 굳이 과장하여 민들레 홀씨의 화려한 비행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식물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생각은 인간 중심의 사고에 갇힌 사람들의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식물의 움직임이란, 한 알의 씨앗이 숲으로 바뀌어가는 것과 같은 거대한 흐름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낮과 밤 그리고 봄·여름·가을·겨울에 따라 변하는 숲의 표정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그러한 변화 양상은 시계의 시침과 같은 것이어서,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는 포착할 수 없다.

그러나 봄 깊은 날 산에 들면, 약간의 인식 전환만으로도 숲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솔 숲에서, 참나무 숲에서, 혹은 진달래 무더기 속에서, 닮았으되 똑같지는 않은 그 모습들에서, 한 알의 솔씨나 도토리가 숲을 이루어가는 거대한 몸짓을 느낄 수 있다.

목련과 진달래가 봄마중 채비에 한창이고, 고로쇠나무들이 수액을 빨아올리느라 부산한 황악산의 능여계곡을 거슬러올라, 다시 백두대간의 마루에 선다. 왼쪽으로 계곡을 따라 내려서면 어촌저수지 방향이고 오른쪽으로는 직지사 운수암이 지척인 곳이다. 이곳에서부터 백두대간은 저 멀리 충청도 보은 땅의 속리산을 이루기까지, 이름이 무색하리만치 몸을 낮추어 고만고만한 봉우리들을 이끌고 간다. 그런 만큼 그 어느 곳보다 사람들의 발길이 부산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부터 여시골산의 정상을 오른쪽에 두고 울망졸망한 봉우리를 오르내리는 대간 길은, 아이들이 아트막한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한시간 남짓 콧노래라도 흥얼거리다 보면 괘방령으로 내려서는 긴 내리막을 맞닥뜨리게 된다. 내리막을 다 내려서면 제법 너른 목초지와 목장 건물이 보이는데, 철사로 이어놓은 목장 울타리를 벗어나 조금만 더 가면 괘방령(掛榜嶺)이다.



◇병아리털처럼 보송보송한 노란 꽃을 피워올리는 생강나무. 꽃에서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지만 나뭇가지를 꺾어 보면 짙은 생강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충청북도 영동군과 경상북도 김천시를 잇는 977번 지방도로 위에 있는 이 고갯길은, 지금이야 한가로운 시골길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의 두 다리가 주요 교통수단인 시절에는 꽤나 시끌벅적한 고갯마루였다고 한다. 이 고개는 관로(官路)로 쓰이던 추풍령과 달리 일반인들이 즐겨다니던 상로(商路)였다. 더욱이 '말이 씨가 된다'고 믿는 이른바 '언령의식(言靈意識)'이라는 것은 뿌리가 깊어서, '추풍낙엽(秋風落葉)'을 연상시키는 추풍령을 넘기가 께름칙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 고개를 이용했을 것이다. 특히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급제자들의 이름이 나붙는 '방(榜)'이라는 글자에 더욱 집착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도 그대로 다 믿기는 힘든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괘방현(卦方峴)'으로 표기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추풍'이나 '괘방'이라는 말의 어감에 따른 후세 사람들의 의미 부여가 오늘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게 아닌가 싶다. 또한 이 고개는 임진왜란 때 박이룡이라는 의병장이 퇴각하는 왜군에게 혼찌검을 내 준 곳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지금은 추풍령에 밀려 이름도 희미해진 곳이긴 하지만, 영동과 김천을 오가는 요긴한 교통로의 구실은 하고 있다. 김천에서 추풍령을 향하다 직지사 길로 접어들어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괘방령이다.

괘방령을 지난 백두대간은 가파르진 않지만 긴 오름길을 이루며 가성산을 향한다. 따스한 햇빛에 꽃샘바람이 그리 싫지 않은 요즘 같은 때는, 걷다가 꽃 보고 꽃 보다 쉬어가도 한두 시간이면 정상에 이를 수 있다. 그러고 보면 꽃샘바람이라는 것도 편한 시샘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나른함을 거두어 가고, 꽃들에게는 흐드러지게 피었다 순식간에 자지 말라는 배려의 손길일지도 모르므로.

가성산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비껴선 산줄기 끝에서 바라본 황악산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아온 황악산의 모습 중 가장 근사하다. 덕스러우면서도 기온차고, 우뚝하면서도 오만하지 않은 그 모습은, 높아서 오히려 낮아보이는 고승의 풍모와도 같아서, 과연 직지사라는 대찰이 깃들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가성산 정상에서 지척으로 보이는 높은 황악산 정상까지도 그리 힘들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장군봉(696m)이 걸터앉아 있으므로 근육의 긴장을 마냥 풀 수는 없다. 오른쪽으로 김천 공원묘지가 내려다보이는 가성산과 장군봉 사이의 골짜기가 워낙 깊기 때문이다.

대간 마루 어디에고 무덤은 있지만 장군봉을 오르는 길 이곳저곳에는 유독 무덤이 많다. 산 사람에게 편안한 산은 죽은 사람에게도 편안해서일까? 아니면 명당을 찾을 형편이 못되는, 그렇고 그런 가문의 후손들이 백두대간에 기대어 발복해 보려는 심사 때문에서일까?

장군봉을 넘어 제법 높다란 봉우리 하나를 또 넘으면 넙다란 헬기장이 닦여 있는 눌의산(743.3m) 정상이다. 이곳에서는 퍼어내리면 한달음에 닿을 듯 추풍령이 발끝에 걸린다. 동쪽으로는 추풍령 휴게소가, 길에서 만나면 반가울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동북쪽으로는 추풍령면이 한눈에 들어온다. 도심의 번잡이 싫은 나머지, 배낭을 꾸리면서부터 콧노래로 시작되는 산행이건만, 웬일인지 바삐 추풍령을 넘나드는 차들을 보니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동한다. 참으로 간사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더니 딱 그짝이다.

눌의산을 내려와 추풍령이라는 고갯길을 내어준 백두대간은, 형세도 희미할 뿐 아니라 등성이도 조금은 애매하다. 경지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품을 풀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4번 국도상의 본래 추풍령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의 등뼈로서 그리고 분수령으로서의 본래 모습은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서쪽의 물은 모두 금강으로 흘려보내고 남동쪽의 물은 모두 나동강을 살찌우게 하는 분수령의 구실을 분명히 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구름도 자고 넘는 바람도 쉬고 가는"으로 시작되는 가수 남상규의 노래로 이 고개를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실망스런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추풍령은 그런 고개가 아니다. 오늘날에야 백두대간을 넘는 유일한 고속도로(대관령을 넘는 영동고속도로는 국도와 혼합 구간이다)인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가장 바른 고갯마루이지만, 높이라야 200m 남짓인데다 나그네들도 쉬어가기는커녕 휭하니 스쳐가는 그런 고개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추풍령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세간의 오해가 있다. 그 얘기는 다음 차례에 이어가기로 한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6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잎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등 연잎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납품형태〉 ■ 비단 연잎 ■ 등통 + 비단 연잎
■ 완성비단연등(법당용) 빨강·노랑·연분홍



팔모주름등 (링크)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 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 공단(비단) 연잎등 완성과정



디자인 대구여래기획
(053)426-3395~6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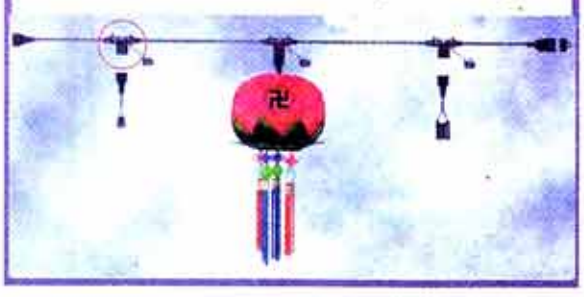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품목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용)

안정성 확립을 새롭게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전등배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 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본사 영업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관 대원기업

※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공심으로 살아야 생사 걸리지 않아

영원한 오늘,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늘 현재도 공한 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또 더군다나 경칩이라 개구리 입이 떨어진다고 하는 날이죠. 여러분도 그와 같이 다 눈 뜨고 귀 뜨고 입 뜨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사람들 사는 전부 하나하나가 에누리가 하나도 없더군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도 삶도 또 원력도 그렇게 전부 끼리끼리 가지고 나오죠. 요만큼도 에누리 없이 말이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생이다 공심이다 공체다 공용이다 공식이다 하는 그 뜻을 새삼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생활에서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렵게 생각해서 넓게 보지 마시고 개개인의 나 하나로 생각해 보세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내 몸안에 다 들어 있는데 내 세포가 모두 법망입니다. 타의에서 들어오고 자의에서 나오고 하는 문제들이 걸려 있죠. 이게 바로 내 몸체 하나를 놓고도 공생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심이며 공체며 공용하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법망

그리고 이 네 가지가 한데 합쳐진 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이 공식으로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 나간다 이럴 때, 내가 늘 말하죠, 둘로 보지 말라구요. 또 공생이니깐 내 생도 둘로 보지 말라. 이것도 즉 말하자면 생사가 걸린 문젭니다. 공생으로 살아야 생사에 걸리질 않는다. 공심으로 살아야 더불어 같이 사는 도리를 안다. 또 공체로 살아야 사람없이 사람할 수 있다, 착이 없이 사랑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전부 공용을 하고 있다. 이 몸뚱이 하나 속에서 모두 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도 공용, 듣는 것도 공용, 말하는 것도 공심으로서 공용하는 겁니다. 음죽거리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일체 일거수 일투족이 다 공용으로서 움죽거리고 있기 때문에 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누가 그거를 따지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 속에서 저절로 그게 한 몸뚱이가 공생이며 공용 아니냐, 그러니까 물 한 컵을 먹어도 내가 먹었다는게 없이 먹었다 이 얘기죠.

늘 이런 소리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붕지가 적으면 뭘 하고 크면 뭘 합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가 공기주머니라고 한다면 이 몸뚱이 하나도 주머니입니다. 이 몸체 안에서 생명이 나가면 죽듯이 이 지구안에서도 생명이 나가면 죽습니다. 그건 모두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 몸뚱이 안에서 벗어나고 내 지구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공생인줄 알고 공용으로 공식하는 거를 알면 바로 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잘하고 못한다 이런 것도 따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신다 이겁니다. 잘하고 못한다 또는 강도다 선지식이다. 또 이건 나쁘고 이건 좋다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이건 공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둘로 보지 않는 분인데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자기를 자기가 죽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선 환히 보이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이 그렇게 통해서 돌아가니까요. 물 속에서 노는 고기한테도 마음을 통하려고 한다면 통하고, 나무하고도 통하려고 한다면 통하죠. 그러기 때문에 일체 만물하고도 더불어 둘 아니게 통한다. 그러면 선지식과 중생은 따로냐? 따로가 아니다. 우리 몸을 봐라, 몸체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뚱이를 형성시키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불성이라고도 하고 별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정자 난자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한데 합쳐져야 임신이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런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죠. 생명체가 있는 것이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똑같은데 만약 미생물로 살았다면 그 미생물의 습성이 있어서 다른 모습으로 쉽게 화하질 못하는 것 뿐이죠. 몰라서 화하지 못하는 그 까닭에 모습을 또 그렇게 가지고 나오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살게끔 가지고 나오는 거죠. 누가 못살게 하고 안하고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나와서 권리를 가지고 사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나오는 거죠. 누가 주는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요만한 거 하나도 살아나가는데 에누리가 없다. 그러니 말없이 채찍질을 하고 가르치는 일이, 사람을 진짜 사람 아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구나, 이럴 수가 있죠. 우리는



그림 · 최주현

물고기 · 나무 등 일체 만물만생과도 마음으로 둘 아니게 통할 수 있어요

항상 인간의 내부는 생각지 않아요, 외부의 것만 생각하죠. 이 몸뚱이만 생각하는데 무게와 에너지로 따진다면, 이 안 내부가 무게가 많다면 겉의 물질인 이 껍데기는 한 웅큼 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몸뚱이 뿐만 아니라 일체 지구도 그렇고 은하계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에누리 없이 사는 인생

인간에게 세포가 있다면 인간의 세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망입니다. 인간에게만 있는게 아니라 땅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지구에도 있고 태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 전부를 안다. 하나에서 지혜가 터지면 둥글게 더하고 덜함도 없는 도리를 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배우든 부처님 말씀 한 마디만 알아들어도 그것은 다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찰은 많지만 사람이 없다면 부처가 없느니라. 이 말 한마디 말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어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면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이 소릴 가끔 하죠. 부처님은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셔서 미생물 같은 생물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그 내면에 있는 뜻은 뭐냐. 그 말씀은 바로 부처님은 미생물로 화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화할 수도 있고, 찰나찰나 그냥 모두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찰나찰나 넘어가면서 그 노릇을 하듯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일거수 일투족 하나도 버림없이 그렇게 스스로 작용이 되신단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깔보고 미워할게 아니라 저절로 그 공도리를 둘 아니게 알 수 있다면 거지도 미워하는 법이 없고 그냥 저절로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한마음이 되어 줄 수 있죠. 이 세상 도리를 알려면 얼마만큼 많이 극복을 하고 훨훨 털고 일어나야 될지 모르는데 그저 조그만거 가지고 네가 틀리다 내가 옳다 하고 따지다 보면 아마 몇생을 죽었다 또 태어나도 깨우치질 못하고 연방 이 수레바퀴에 말려서 굴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넘어라 뛰어넘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공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수억겁 전으로부터 진화해서 형성되어 올라 온 자기의 장본인이니깐요. 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지구에 딴 혹성이 부딪치게끔 달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그걸 부딪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모든 생명들이 다 살고 이롭겠습니까? 달마대사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큰 구렁이가 죽어서 썩고 있으니 그 냄새가 진동하여 아무도 그 마을에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치우려니까 그 구렁이 속에 들어가서 멀리까지 치우고 오더라 이겁니다.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간에 진짜로만 믿고 하시거나 찰나찰나 둘 아니게 돌아가는 도리만 아신다면 그 흑성에 들어가서 그것을 아무 얼도 없는데다 옮겨 놓고 지구를 살릴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샛별이란 말입니다. 별성이라고 하기 보다 불성이라고 할까요, 불성.

4대로부터 생명 탄생

우리가 때로는 지수화풍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애당초에 어디서 생명이 생겨 나왔나를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흙과 물, 이 세 가지가 뭉쳐서 돌아다니다 보니깐 그 속에서 원기가 생겨서 생명이 생기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거를 무심하게 돌리지 마시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수화풍 아니고선 생겨난 게 없거든요. 어떤 물질이든지 지수화풍으로 생겨나서 다시 지수화풍을 먹고 살죠. 지수화풍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우리는 대고통을 받죠. 그것으로 태어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은하계에 별성이라 하더라도 바로 자기가 은하계예요, 생략해서 말하지만 자기 하나가 있다면 그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바로 칠성에서 합니다. 이 사람 관리라는 것이 생명을 주고 생명은 그 생명으로 살게끔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들 이런 거죠. 그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 몸뚱이 속이 암흑이라고 해도, 그 암흑 속에는 에너지가 가득해서 연료가 많은데 껍데기는 한줌 밖에 안된다. 은하계든지, 어느 부분에 그 칼칼한 암흑 속이든지 전부 에너지를 뒷받침해서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일체 만법을 유동성있게 관리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면 암흑과 밝음이 둘이냐, 둘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둘이 아니게끔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밝음을 가져 오는 거니깐요.

우리가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한다 이런 게 있죠. 이 뜻을 과학자 여러분은 미처 생각을 못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움죽거리고 모든 걸 생각으로 기억해 내고, 왜 이렇게 어둡게 살고 왜 이렇게 밝게 사냐, 그런 것들이 어디서 다 나오냐, 이런 걸 말이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구독문의
0二-七三七-八八八一

금선학회 수련회

慧命經의 원저자 유화양 禪師를 깨달음에 이르게 한 수행비전"
"영보통 지능내공법" 한국 최초 공개
"건강없는 道는 없다."

"인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
유화양선사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법을 찾아 중국전역을 헤매시다 호운 老師와 오충허 眞人으로부터 法을 전수받아 수행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法輪과 천백억 化神의 실체", 몸과 마음이 허공과 같아 진리와 하나되는 경계를 몸소 이루게한 최상승 수련비전

영보필법은 1년을 수행하면 1년의 증험이, 3년을 수행하면 3년의 증험이, 그리고 10년을 수행하여 大成에 이르게 하는 "漸修漸進 수행법" 이며 중.하근기의 중생이라도 영보필법의 수련체계(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性命雙修 수행법)로 꾸준히 수행하면 반듯이 최상승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완벽한 修眞體系입니다.
기존의 참선수련법으로 수행에 진전이 없으신 분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행정진이 어려운 수행자, 보살님들께 드리는 "인체와 마음"을 재생 시키는 유일한 代案입니다.

■ 수련내용
1) 오장육부의 기운을 조화롭게 이끌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법
2) 복두칠성과 인체의 기운을 상응시켜 천체우주로 代를 확대해가는 법
3)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性命雙修)하여 본성품에 이르는 법
4) 慧命(法眼, 佛眼, 天眼)수련을 통하여 法界 진리를 깨닫는 법

■ 수련의 효과
1) 정신적 : 불면증, 우울증, 각종스트레스, 노이로제, 화병 등
2) 육체적 : 만성피로, 변비, 만성위장병, 심장질환, 신장병, 비만, 고혈압, 간경화, 오장의 부조화, 냉병 등
3) 수 행 : 참선수행시 졸음방지 및 잡념제거, 삼매체험(字我 · 如)

■ 수련일정 및 장소
1. 일시 : 2000년 4월 25일(화) 29일(토)
25 28/PM 7:30 9:30, 29(토)/PM 3:00
2. 장소 : 세계금선학회 본원(사당역 부근)
3. 문의 : 02)512-7057, 7233(팩스 겸용)

세 계 금 선 학 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1-1 은혜빌딩 6층
(http://www.myhome.sinbiro.com/~kumsunac)

전국영탑 대리점 모집

■ 가족, 종중, 묘지의 혁신!
천안 영락사 영탑이 해결해 드립니다.
· 영탑기본형 1기에 유골 18기 봉안으로 묘지와 장례비가 경제적이며 사후관리가 편리하다. 문중, 종중, 탑30기 60기 90기 제작 설치도 합니다.
· 선산, 정원등 어느 곳이나 최저 3평이면 설치가 용이하다.
· 탑1기에 조상을 대대로 봉안하며 성묘나 제사 모시기가 편리하고 가족 화합이 잘된다.
· 화장은 어떤경우에도 후손에게 영향이 없으나 시신을 잘못 매장하거나 이장하면 종교와는 상관없이 우환이 생기며 유골을 버리면 후손은 반드시 후회하게된다..

실용신안 등록번호	0172542호
의장등록번호	30-1999-0022081
탑기본형규격1)	높이190cm, 넓이:100cm 세로100cm
유골합규격(원통형)2)	높이 17cm, 지름:16cm
상석의 규격	가로 50cm, 세로65cm,



■ 영탑 분양 및 주문 제작 판매 설치
· 가족형, 종중형, 일반형, 종교형 기타 단체형
· 전국 어디나 신속 제작 설치가능
■ 전국 판매 대리점 모집
· 전국 사찰경내 영탑공원 영탑주문 환영
· 전국 시, 군, 구 단위
· 석재 가공 및 장묘 부대사업 부동산 소개업 점포 운영하시는 유경험자.
· 희망자는 전화 또는 내사문의 요망
· 폐사의 소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숙식은 1박2일 무료 제공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시장리 51-35번지
TEL : 0417) 584-6674~6 FAX : 0417) 584-2335

천안영락사 영락영탑공원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주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뼈에 관절이나, 골다공증, 골절등에 특효라는 홍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황과 불재를뿌리고 재배한 토종홍화씨환을 필요하신 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를 맑게 해 줍니다.
3. 당뇨병
4. 신경통
5.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6. 간이 나쁜사람
7.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8. 고혈압, 저혈압
9.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0. 정력 회춘에도 아주 좋습니다.
11. 불면증, 황달
12.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 주 문 처 080-988-4774
☎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지〉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둘 아닌 도리 알면 미워할게 없어요

☞ 15면에서 계속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그 뒷면, 즉 그 과거를 보지 못하면 지금을 알 수 없죠. 반면에 현재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를 알면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되죠. 또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고요. 모두가 참 지혜롭고 자유스러워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 없는 사랑이죠, 진짜 사랑이요. 그러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같이 눈물이 나는데 이건 둘이 아닌 까닭이에요. 에너지가 큰 덩어리가 있다면 거기에서 모두 별성이 하나하나 나왔고 그 별성은 다 여러분한테 주어졌거든요.

큰 별을 블랙홀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블랙홀은 왜 블랙홀이라고 하고 그렇게 많은 별중에 왜 특별나게 그렇게 크냐,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나 그 모든 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데서 우리의 삶이 나온다는 것, 이 인간도 수명이 다 되면은 껍데기가 벗어지고 알맹이 원소만 남아서 그 원소가 또 다시 반복해서 콩나무가 되고 또 콩이 열리고 그렇게 되듯이 우리 별성도 때가 되면 옷을 벗고 원소 자체만 남는 거예요. 그럼 암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부 그것이 한데 합쳐지면서 순환을 하죠. 그게 다 형성되도록 순환이 돼서 나중에 그게 터지면 별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나오죠. 그렇게 반복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사람이라면 이 마음공부를 안 할 수 없죠. 한마음공부 즉 말하자면 공심 공용 공체 공생 공식 이거를 내 몸 하나면 다 알 수 있다. 그러니 꼭 이 공부를 해야만 된다 이런 문제죠.

죽이고 살리는게 공법

그런데 우리가 잘 되기 바라고서 절에 가서 '살려주시오. 내가 잘 할테니 잘 주시오. 좋은 일을 이렇게 할 테니까 참 잘 되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한다면 항상 얻어먹는 거지와 같다. 목 마를 때 남의 집에 가서 물 한 바가지 주시오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내가 벌어서 내가 먹을 생각 안하고 남이 벌어 놓은거 한 바가지 달래서 먹는 격이에요. 그건 기복이에요. 몇시간 후에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거를 애석해 하지 말고, 죽기 이전에 이 모습도 내 모습이 아니니 내 주인의 내 모습을 만들어서 내가 이끌어 가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착을 갖지 마세요.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빨리 죽는다 늦게 죽는다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주인이 잘 쓰면 고장이 덜 나겠죠. 이 몸이 자동차라면 말입니다. 운전수인 주인이 그 차를 잘 쓰면 고장도 덜 날 거고 고장이 나도 운전수가 다 고치겠죠. 그런데 이 차 껍데기인 내가 언제 죽느냐 여기에 애탄기탄 해 본들 뭘 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어리석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되야 되나. 그걸 건너다 보고도 껄껄 웃게끔 될 수 있는 거, 소가 싸움을 해도 그 소의 경지를 다 알 수 있고 그걸 거들어 줄 수 있어야 되죠. 죽어서 얼른 소의 모습을 벗어나고 넌 인간으로서 공부를 해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죽어도 좋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죽이는 것도 공법이고 살리는 것도 공법입니다. 죽인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다가는 길을 못 가시니까 악이든지 선이든지 그냥 한군데다 놓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따지는 일이 돈을 주고 하래도 못하죠. 왜냐, 만약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둘아가다가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가.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거북하고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마음이 항상 떳떳하지 못하고 펴질 못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길이 막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사시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게 연구죠. 다른 게 연구가 아니죠.

질문자: 광주지원에서 올라 왔습니다. 큰스님의 이렇듯 높고 간절한 회상에서 광주지원 신도들을 대신해서 질문의 인연을 맺게 된 지중한 인연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스님께서는 이미 답을 다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에너지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큰스님 회상과 이 법문의 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현대불교신문에 '길을 묻는 이에게'를 통하여 또는 한마음요전이나 매달 나오는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그리고 인터넷 한마음선원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스님 법문을 접할 때마다 거기서 큰 힘을 느낍니다. 신문이 신문이 아니고 책이 책이 아니고 에너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광주지원 법당에서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볼 때면 그때는 더 큰 힘을 느낍니다. 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큰스님을 직접 뵙게 되면 너무 너무 마음 깊이 되새겨집니다. 이것이야말로 큰스님 회상이 무한량의 에너지라고 생각되는데 큰스님의 높으신 가르침 청합니다.

스님: 여지껏 얘기했고 또 지금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듣는 분에 따라서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틀리죠. 즉 말하자면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합쳐짐으로써 불이 들어온다면 이게 둘 아니게 하는 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묻는 분도 없고 물은 예도 없고 대답한 예도 없는 겁니다. 말로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바로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죠. 그 생각이 에너지를 불리고 쓰고 또 불리고 쓰고 하는 것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설법 듣고 그냥 헤어지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거와 같이 이 은하계에서도 한번 터지면 수없이 나온다. 새로 나온 것은 크고 또 나중에 늙게 되죠. 사람도 늙으면 옷을 벗듯이 별성도 원소만 남으면 그 원소끼리 또 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도리를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 주인공이라는 이 샛별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거는 연방 통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멀어도 먼 사이가 없고 가까워도 가까운 사이가 없다. 가고 옴이 없다. 얼마나 가까우면 가고 옴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금방 우리가 말을 했다면 그 힘이 에너지가 되어 말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끔 나타나서 건져지고 이익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우주 안에 전체가 다 그런 거니깐요.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아는게 많습니다. 어쩌다 이름을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몰라도 좋습니다. 이름을 알고 한다면 이미 늦어지죠. 예를 들어서 6·25전쟁때 보니깐 사람이 먹고 체했는데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다 없을땐 어떡하느냐. 그럼 말없이 그냥 체기가 낫게끔 하는 것이 그냥 원력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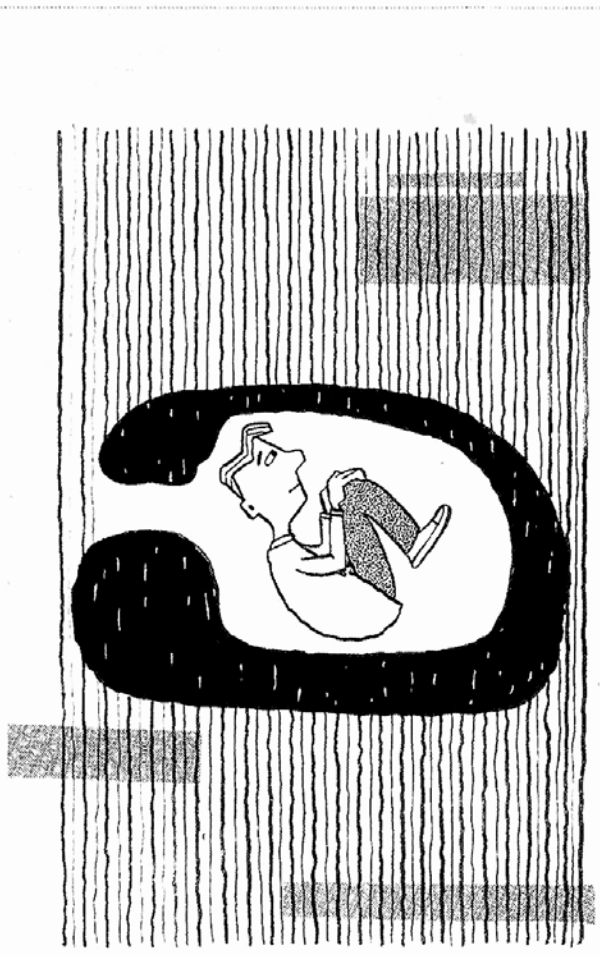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온곳이 없기에
갈곳도 없듯이
생사윤회 없는 도리
알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 나온거지
잘 먹고 잘 살기위해
나온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미생물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한마음 돼 주지요

질문자: 제가 그동안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의 어머니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건강하게 되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구요. 한 8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그동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드렸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문득 관하는 도중에 꼭 큰스님처럼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라고 발원을 몇 번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큰스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굳게 발원드립니다.

귀신 방귀털 잘 먹여야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주인공을 관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는데요. 책에 보니까 주인공이란 우리가 마음으로서 알아질 수도 없고 어떤 형체도 없기에 참나를 상봉하기 전에는 그 자리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할 때에 주로 가슴쪽에다 내 마음을 응시하고서 마음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는 머리쪽에서 생각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머리쪽으로 해서 밝은 광채가 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는 건 어디 특별히 있는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관해도 일들이 뜻하는 대로 풀려지는 경우를 여러번 경험했거든요. 이게 올바른 공부방법인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스님: 우리가 지금 말을 하죠. 수없이 바꿔서 말을 해도 그 말 나오는데는 지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에너지가 한군데 모여 있으니까 이 가운데서 말을 하려면 나오고 안 하려면 막히고 그러죠. 그러니 이 모습이 있으니까 이 모습에서 공생으로서 공용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네가 제일이냐 내가 제일이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뱀이 어느날 꼬리가 앞장 서겠다고 하는 바람에 가시덤불에 찔려 죽었다잖아요, 공생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게 몸체가 돼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현실도 공했으니까 공한 대로 결정하고 그것이 바로 공심의 법이다 이거죠. 그러니 머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모든 게 아닌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닌 것 때문에, 아닌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부처님은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방귀씨는 심었느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예, 심긴 했는데 기르는 걸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 아 그게 뭐 어려우냐, 귀신 방귀씨를 심었으면 방귀털을 더 먹이지도 말고 덜 먹이지도 말고 그걸 잘 먹이면 되지 이러더랍니다. 이런게 우리가 지금 관하는 겁니다. 자기 앞에 닥치는 대로거든요. 그걸 내가 잘한다 이러구선 과용을 하지 말고 남한테 해롭게 하지 말고 남을 이익하게 하는 거, 그래서 서로가 좋은 거죠, 좋은 마음이죠, 남이 이익하게 잘되는 거 보면은 참 좋죠. 안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좋지 않구요. 그렇듯이 아무것도 내세울게 없는 것이 물 한 모금 먹는데 이거를 누가 먹었다고 할 수 있나 이겁니다. 누가 먹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자불이라 부르고 불성이라고 불러요, 이름없는 이름입니다.

질문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책에서 보니까 주인공은 절대선이라고, 선을 바탕으로 한다 라는 글귀를 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한테 안좋은 마음을 냈는데 그 후에 제가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일이 생겼나를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좋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 인과가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절대 선이라면 제가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냈어도 주인공이 그렇게 나쁘게 작용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게 아닌가 참 의문이 나거든요.

스님: 오늘 참 질문 잘 했어요. 여러분도 다 알아야 할테니까요. 집이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냈는데 아무 일도 없었으면 이런 생각도 못했죠. 주인공이 절대선이라는데 왜 그렇게 나쁘게 했나 하고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구덩이를 만났는데 구덩이가 있으니 가지마라 이런다면 어린애들은 구덩이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져 봐야 구덩이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건 구덩이가 있어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벗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잘 믿고 남을 언짢게 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나도 '서로가 살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 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스님: 허허허허, 모두가 둘이 아니예요. 이게 인생이라는게 참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디서 이렇게 직장을 잃고 담배를 피면서 괴로워하는걸 보면 하도 가엾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남자면 뭘하고 여자면 뭘하나. 누구나가 다 아프면 운다 이거야. 좋으면 웃고. 남자는 외로울 때가 더 많지 않느냐. 속으로 울어야만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문제들도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깐 길을 지나다가 어린 애 업고 걸리고 이렇게 가는 걸 봐도 안됐구요. 물결 흐르는 대로 쭉 앉아서 한숨을 푹 내쉬고 그러는 걸 볼 때도 그렇구요. 모두가 하나 같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만날 때마다 댁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꼭 살아나게 돼 있으니깐요. 그건 임시 방편이지만요 그 사람이 진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임시방편이 아니라 세세생생이죠.

탐하지 말고 생활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시고 비록 스님네들처럼 저 옷을 입고 공부를 하시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착을 놓으시고 탐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에도 난 저게 좋으니깐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하시는 게 좋죠. 우리가 당분간 살다 헤어질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애석합니까? 뭘 갖고 싶습니까? 보석이 큰 덩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보석이 우리로서는 흙 덩어리 하나 있는 거와 같이 보일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 생명도 탐이 없는데 어째서 다른데에 또 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생이라는 이 자체는 그냥 버려도 공생이요 또 버리지 않아도 공생이요, 버려도 죽지 않고 안버려도 죽지 않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것도 없다 이런 소리죠. 생사의 윤회도 말입니다. 없다 이러는 것이 뜻이죠. 이 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이럴려고 나온 게 아니죠.

스님네들도 참 한번 나와서 한번 머릴 깎았더니 머리가 되나더라. 그래서 머리를 쉴 사이 없이 깎아도 또 되나오더라. 끝이 없더라. 끝이 없는 문제를 머리를 항상 깎으면서 끝까지 사람이 돼서 즉 말하자면 화성에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화해서 분리가 되듯이 우리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공부해서 화한다면 이 지구가 빌 겁니다.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깐 다 그냥 자유스럽게 된 거죠. 분산된 거죠. 주머니 속에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유스러웠는데, 그러니 '너도 가지' 그러면서 자기 좋은 데로 전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렇게 해서 모이니까 그것이 많은 은하계도 되고 많은 우주도 되고 많은 등불도 되고 그러죠. 우리 지구에는 등불이 하나밖엔 없다죠. 허허허허허. 다른 목성에는 등불이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의 마음들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도 등불을 하나 다느냐, 집이 먼데 있으니까 마당에도 거느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더 지혜롭게 생각을 안으로 굴려서 사세요. 찰나찰나 돌아가는 도리를 아니까 뭐를 한다 하고 하는게 아니라 고정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과거가 있다, 꿈을 꾸었는데 이렇더라, 구정물이 뭐 산더미 같이 들어오니깐 우리집은 큰일났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구요 모두, 여러분이 마음으로써 개척해 나가시면 정말 순수하게 세세생생을 다 길잡이로서 사실 겁니다.

※위 법문은 2000년 3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족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주역8괘비전 명리학 통신강의
■ 과목 : 사주명리학, 수상학, 관상학, 작명학, 주역팔괘비전신점술
■ 한글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한문에 토를 달았음
■ 직강가능, 강의 후도 궁금증, 개업지도, 각종 자료 등 유기적 관계
■ 책 : " 한국인의 작명보감 : 가격10,000원 (송달료 포함)" 개운비법 등신 김관희 이야기 가격10,000원(송달료 포함)
■ 일반인 : 평생운 사업운 선거운 법세판단 등 감정함 (동양철학 강원) 금호철학관
0563)335-6708
0563)335-6748 / 011)533-7389

불교발전의 획기적인 모델
- 한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가장 엘리트스님 배출을 목표- 공부와 수행 · 모든지원)
통신불교대학 · 인터넷 불교 대학 접수중
대구 053) 474-8282 / 011)560-5698(총무스님)
(선착순 100명)

제6기 무료강좌안내
⊙ 따주기 ⊙ 수족침요법
⊙ 침구 ⊙기공
2개월간 주1회 교육
통신교육도 가능
※지회및 분회 개설할 분도 연락요망
한국전통민간요법학회
02)2246-7477
011)9090-1049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 창 본
011)545-7252 처 사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발종광고

탈 종 공 고
일승종 총무원장 귀하
◇주 지 : 박순옥 ◇등록번호 : 99-412
◇사 찰 명 : **수덕사** (부산)
주지 박순옥의 사망으로 인하여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지할 수 없어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 4. 3

구인구직

행자(男)모집
본 사찰에서는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인원 : 00명 · 긴간 : 4월 15일~5월 30일
· 연령 : 만19세 ~ 35세
· 학력 : 고(재)졸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학력이 되지 않는 자는 행지수련 기간 중 검정고시를 볼 수 있음
문의처 0342)0719-0408~9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선원 주지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52)211-1009
011)9027-8207

사찰에서 운전기사겸 일할 곳을 찾습니다
02)
774-4458

모십니다
스님들이 야생사철쑥과 자연산 약초로 제조한 건강보조 식품을 전국에 공급하고자합니다.
대리점이나 판매하실 처사님이나 보살님을 모시고자합니다.(20~55세)
※ 사무직(서울거주자)모집
02) 988-4773

토굴에서 정진하는 비구승입니다.
탁발을 위해
천도제 · 49제기 · 기도및
법회 보아 드립니다.
필요하신 사찰에서는
도움 주시는 마음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561)773-8640(경주)
011)562-8640
동로 합장

인연있는 사찰을 찾습니다
· 가정화목
· 사업성취
· 불치병 치료
· 영가천도
· 친견하는 스님입니다
018)633-1935

후원자를 찾습니다
본인은 업보 업장이 두터워 병고로 신음하고 있는 40대 비구니 수행자 입니다 간이 굳어지고 뼈와 근육이 굳어지고 방광이 오므라들며 잠만 자는것이 이 병에 특징입니다
몸이 이런데 치료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몸하나 편히 쉴만한 공간이 없어 잡도 절도 없는 고달픈 처지입니다
이런 절을 도와 주신다면 수행정진 열심히 하는것으로 그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이 있다면 저처럼 몸이 아파 늙고 병들어 오갈데 없는 수행자들이 바랑펴고 편히 쉴수있는 장소를(수행자양로원) 마련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서원입니다
보립있는데 돈을 쓰고 싶은 불자님들은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0416) 854-3695

절도량에서 처사로 일할 곳을 원합니다.
017)
340-018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43)
954-039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99)
932-5706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불자들을 위한 생활한복 염가판매
각종 중국차와 다구도 있습니다
茶 侶
서울 구반포 한신종합상가 1층 나열 15-2호
02) 3477-5336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자병차 소탁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맑고 향기롭게…
꽃 공양
◆불교전통 사찰 행사용꽃 전문
◆일반 생화 일절 도소매
◆화환 · 꽃바구니 · 신부화 · 웨딩꽃길전문
◆전국 꽃배달
淨我 꽃집
※ 금강자비회 초대 회장 윤 대현화 합장
남대문 꽃 도매상가 138
02)774-5886 / 011)737-4657

기타

한국불교미술문화원 부설
korea art gallery [대한민국 미술화랑] 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 korea-art - gallery.org
동양화 서예 서양화 선화 도자기 공예 디자인 작가들의 상설 전시 작품을 공모합니다.
02) 2242-0331 / 2242-0255
무료 매물 사이트
게시판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많이들 보고 올리세요
WWW. MEMULL.com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상담문의 환영
▶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 못으로 시공하고 방수시트
▶ 페이트 제거제
▶ 목조, 석재, 세척제
▶ 방영성, 방부제
02)3474-6232

사찰안내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산직동
◆ 지명 : 삼보실, 산새수려한 명당임 약수가 좋음. 사찰이나 복지시설 적지
◆ 평수 : 2,333평 답 · 준농림지역
◆ 가액 : 8천 5백만원
011) 433-77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가평
◆ 평수 : 2500평 이상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2동, 용화전, 용왕전, 산신각, 정각2개 황토방1개
◆ 가액 : 윕세가능 답사후 절충
※ 입주가능, 공양주보살, 스님 구합니다
※ 인연닿는 행자스님(남, 녀) 모십니다.
0356) 582-0635 / 017) 708-0635

부지 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산직동
◆ 지명 : 삼보실, 산새수려한 명당임 약수가 좋은 사찰 이나 복지시설 적지
◆ 평수 : 2,333평 답 ,준농림지역
◆ 가액 : 8천 5백만원
011) 433-7767

사찰 안내
◇ 위치 : 제천
◇ 법당및 요사 : 15평
◇ 부지 : 12,600평
◇ 가액 : 8천만원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무료로 연결해 드립니다.
02) 998-1994
청송기획 011)713-5634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전, 조치원, 공주30분거리 청주40분거리
◆ 지명 : 금당골 산세수려함
◆ 건물 : 법당1,현대식 53평 요사채1, 허공 산제당 있음
◆ 가액 : 1억 5천만원
011) 433-7767

포교당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 평수 : 80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
◆ 시설완벽 (전통사찰에 버금감)
◆ 신도 및 불사미수금 기도비 인계함
◆ 가액 : 답사후 결정
011)303-6188(스님직접)

토굴(수양원) 안 내
◆위치 : 경남 산청군 와룡사
◆건물 : 80평
◆법당10평, 방10개, 욕실3개 임야 4,500평
◆가액 : 2억 5천(저렴절충가능)
안대수려, 수질 양호, 주차장
0593) 835-1078
011) 803-2880

아주싼집 - 투자가치있음
◆시흥빌라 3층 18평형 방3개 가액: 4,500만원 95년 분양가 5,700 이었음. 융자금 저당권 일체 없음 전세 3,500만고 800만원에 인수
◆수원시 빌라2층 17평형. 가액3,200만원 분양당시 가격 4,800만원이었음. 중계인 사절 주인 직접 연락 선착순 (위 두채중 먼저 팔리는 한채)
◆전세 사양함
011)9973-4248

사 찰 안 내
◆ 위 치 : 당고개 전철역 6분거리 ◆ 대 지 : 400평(국유지:불하가능),
◆ 법 당 : 40평(부속방사3실포함) ◆ 요사채 : 30평(주방및 거실, 방2개)
◆ 가 액 : 2억 7천만원
◆ 특 징 : 주차시설 완비(약 20대분), 노천 나한님 20분 조성석조) 추가 480분 모실 시설 완비, 수락산 기슭에 자연 경관이 수려한 청정기도 도량으로 도심 포교의 최적지입.
◆영업안내 1. 사찰 양도, 매매, 전월세, 포교당,사찰부지, 상담안내 2. 부전스님, 의식 집전스님, 공양주보살 소개 알선 3. 청동불조성(천불전, 삼천불전, 만불전) 4. 법종 조성 5. 기타 사암관련 정보제공
사찰 전문 용역 금강기획(구 금강실업)
02) 736-3578~9 / 359-9492 / 011) 789-2255

요양원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 산19-17 (월명공원 근처)
◆ 수익허가 면적 893m 대지300평, 건물 48평
◆ 가액 : 5천만원 (가격절충)
011) 9646-322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평수 : 290평, 법당22평 목조, 요사35평 기와
◆ 특징 : 포교최적지 기도도량
◆ 가액 : 1억 8천만원
0594)862-6199
011)856-36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1천평 법당, 요사, 용왕당
◆ 특징 : 산세수려, 기도포교 도량
◆ 가액 : 1억 3천만원
0594)862-6199
011)856-36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평수 : 4천평 법당, 요사, 산신각
◆ 특징 : 산세절경, 기도수량 최적지
◆ 가액 : 2억 3천만원
0594)862-6199
011)856-36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68번지 대동사
◆ 대웅전12평, 방3개 18평, 방2개9평 요사채 2동 9평, 산신각 2평, 칠성각12평, 종각1동, 창고1동
◆ 특징 : 실평수임 터는국유지
02) 385-2331(대동사)
02)2267-7791 / 019) 466-7791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덕유산 자락
◆ 건물 : 임법당30평, 황토방1, 요사채1
◆ 가액 : 전세 1천만원 (건물위치 좋음)
0597)962-3528
011)842-3525

토굴(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 건물 : 25평 임법당, 큰방2개, 거실, 욕실
◆ 가액 : 건물만 1800만원 (답사후 가격 절충)
0371) 763-6023

사찰 안내
◆위 치 : 서울시내 (지하철역 200m거리)
◆대 지 : 60평
◆건 물 : 2층법당 40평 1층요사 40평 도심포교당으로 최적이며 모든 내부시설 최고급으로 완비
◆가 액 : 3억 5천 (대출가능)
한국불사 02) 561-7791 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이나 암자 양도,양수하실분 찾습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의령군 부림면 신반 공원 밑
◆ 대지 : 200평 법당 8평, 야외법당 25평,요사채 12평-2동
◆ 가액 : 1억 2천만원
0555) 572-2462
011) 828-6006

사찰(급)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남평군
◆ 부지 : 320평 법당, 산신각, 칠성각 요사채 3동
◆ 특징 : 교통이 편리, 조용하며, 산사이에 위치함
◆ 사찰운영관계상 급매함
◆ 가액 : 2억
011)606-3681

포교당 안내
◆위 치: 미아3거리 길음역
◆평 수: 2층 45평
◆모든시설완비, 포교당 내년에 현대백화점 오픈, 성북구에서 제일가는 포교당
◆가액 : 전세가능
017)214-4385
011)9862-6566

토굴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근교
◆ 평수 : 422평, 대지, 텃밭
◆ 특징 : 산중 맑은 계곡옆 평지(현재 건축허가 취득중)
◆ 가액 : 3천 5백만원
0563)337-5156
011)9857-5156
청산 합장

포교원 운영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위치 : 김포공항 요지
◆부지 : 법당28평, 삼존불, 달집, 법당 집기류 일체
※ 당일 법회가능함
◆ 가액 : 4천(전세)
017) 325-5603

사찰 안내
◆ 위치 : 남구청 네거리
◆ 평수 : 대지 67평, 건평30평 한옥(법당 기타)
◆ 가액 : 1억 3천만원
※ 위치좋고 아담함
053) 475-7504
012) 1720-7504

'아픔함께' 동체대비심 내자

구제역 파동…잇단 산불
삶의 터 잃은 사람들


◇12일 강원도 강릉시 교동의 한 주민이 언덕에 앉아 불타버린 집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잔인한 봄이다. 꺼질 줄 모르는 산불은 여러 마을을 송두리째 잿더미로 만들었고, 구제역 파동으로 많은 축산농가는 삶의 터전을 잃었다.

12일 현재 삼척, 고성, 강릉 등지에서 번지고 있는 사상 최대의 산불로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고 학교가 휴교를 하는가 하면 교통이 통제되는 등 곳곳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강릉~속초간 일부 도로는 승용차와 트럭, 경운기에 보따리를 싣고 이동하는 노인들과 소를 끌고 나온 사람들로 인해 마치 피난길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고 한다. 가축도 비닐하우스도 흔적없이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재도구를 잃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

이밖에도 산불은 마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전국 곳곳의 산들이 타 들어가고 주민들은 부랴부랴 대피하는 소동을 빚고 있다. 시커멓게 그을린 산림도 그렇지만 산불발생 지역의 우리 이웃들 마음도 타 들어가고 있다.

이미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남 홍성·보령, 전북 김제 등지에서 발생한 구제역도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 소고기, 돼지고기 값이 뚝 떨어져 축산농가들은 울상만 짓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 두 차례 큰 수해를 입었던 파주지역의 경우는 아예 '사람이 못살 곳'이 돼 버렸다. 축사는 불타고 마을은 폐허로 변했다. 자식처럼 키워오던 소를 도축현장까지 따라가 지켜본 농민들에겐 '악몽'이 따로 없었다. 흥성도 마찬가지다.

몇몇 군(郡)은 같은 도(道)에서 발생한 '재앙' 인데도 전염이 우려된다며 구제역 발생지의 가축반입을 거부해 수매가 전면 중단되는 등 구제역으로 인한 지역이기주의도 멍든 농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앞장서 나서고는 있지만 이들이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절실하다. '잔인한 4월'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

〈유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문수보살은 앓아 누워 있는 유마힐을 문병하기 위해 여러 대중들과 같이 그에게 문안했다.

"병환은 좀 어떠십니까? 부처님께서도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병은 어째서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유마힐이 답했다.

"모든 중생이 앓기 때문에 나도 앓습니다. 만약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내 병도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 미혹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세계가 있으면 병도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중생들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보살도 병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병은 대비심(大悲心)에서 일어납니다."

이웃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 보살이다. 중생이 앓기 때문에 나도 앓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내 몸처럼 슬퍼한다는 것, 그와 같은 사랑을 가리켜 동체대비(同體大悲)라고도 한다. 세상이 앓고 있는데 나 혼자 건강할 수는 없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할인점 '눈가리고 아옹'

대용량이 소용량보다 10% 비싸

〈우바새계경〉에 "장사를 하고 재물을 모으되 계량기를 속여서 팔거나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면 죄가 된다"는 말이 있다. 또 〈백유경〉은 "장사하면서 온갖 법답지 않은 일을 하니 일은 비록 성취하지만 그 이익은 손해를 보충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상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마치 두 눈알이 빠지는 것과 같다"며 그릇된 상도의의 업보를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가르침이 필요한 곳이 있다. 바로 '속임수 판매'를 해온 대형할인점들이다. 수도권 신도시와 주변지역 할인점에서 같은 품목의 소용량 제품보다 대용량 제품의 단위가격이 높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소비자정보보호센터가 10일 발표한 '할인점 단위가격 분석자료'에 따르면 같은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제품의 단위가격이 소용량에 비해 대용량제품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의 한 할인점은 400g짜리 치즈의 10g당 단위가격이 76원이었으나 1.8Kg짜리는 이보다 10.5%나 비싼 84원으로 조사됐고, 분당의 어느 할인점은 0.9ℓ들이 식용유의 100㎖당 단위가격이 206원 이었으나 1.5ℓ들이의 단위가격은 218원으로 5.8%나 비쌌다.

이밖에도 수도권의 여러 할인매장에서도 같은 회사제품의 설탕, 참기름, 마요네즈 등이 대용량의 경우 소용량보다 단위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용량 제품이 소용량보다 싸야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용량 제품이 비싼 것은 명백한 사기판매다. 속임수 판매를 하는 할인점도 반성해야 하겠지만 소비자들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목이 필요하다.

서울(http://econo.metro.seoul.kr), 인천(http://tonggu.jnc.kr), 성남(http://songnamshi.kyonggi.kr) 등의 구청, 동사무소, 소비자보호단체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물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린이 수백만명 매년 고문으로 희생

세계고문반대기구 발표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고문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세계고문반대기구(OMCT)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세계고문반대기구는 10일 세계 30여개국에서 어린이 고문 피해사례 2169건이 공식 보고됐으며, 유괴, 강간, 처형, 강제노동, 성적 학대, 구타, 살해, 음식물 안주기, 임의 구금 등으로 해마다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문반대기구는 "이번 보고서가 어린이 피해상황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브라질, 바레인, 멕시코 등과 같은 국가들의 고문사건을 기록했을 뿐, 어린이 인권유린이 심각한 아프리카 지역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은 많다. 〈아난사사경〉에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애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고, 〈육방예경〉이나 〈장아함경〉 등 많은 경전들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사회의 도리에 대해 설하고 있다.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어떤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호주 노동단체 국경초월 '자비실천'

호주의 한 노동단체가 국경을 초월한 '자비'를 실천하고, 그 은혜를 입은 유족이 다시 사회에 '자비'를 베풀어 감동을 주었다.

현지에서 불법체류하다, 그것도 근무외시간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한국인 노동자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7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내 이를 한국에 직접 찾아와 가족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러자 유족은 즉석에서 1천4백만원을 우리 건설산업연맹과 호주 건설노조, 민족교육문화원쪽에 똑같이 나누어 전달했다.

10일 유족에게 보상금을 전달한 앤드류 퍼거슨 호주 건설노조 뉴사우스웨일스 지부 사무총장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정성을 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풍토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광석보리심론〉에 이런 얘기가 있다. "보살은 한 중생에게도 친우라는 생각을 갖지 않음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차별 없는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시방의 온갖 중생을 두루 살펴본 끝에 한 중생이라도 괴로움을 지닌 자를 보았을 때는 자식같이 사랑하여 대신해 괴로움을 받음으로써 그 중생이 괴로움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준다."

국경을 초월해 자비를 베푼 호주 노동단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시대의 보살이 아닐까.

시론

불탄 산과 人災

정녕 4월은 사(死)월인가!

올해도 어김없이 산불은 우리를 찾았고 그 피해는 참담하다 할 정도다.

연례행사…대형화 심각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강원 영동지역의 산불은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며 아직도 화마로서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양이다. 참으로 비통하고 근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12일까지 집계된 피해면적만 산림 1만여 ha와 주택 500채, 그리고 17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니 과학기술의 발달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요즈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산림을 원상태로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말문이 막히며, 생태계파괴에 따른 또 다른 자연재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화영
〈동국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50, 60년 대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 나라의 산불 역사를 보면 이 당시의 산불은 주로 민심혼란이나, 벌채허가 등과 관련된 방화성 산불이 주였으며, 70년대는 화전이 산불의 주요원인으로서 74년도부터 실시된 화전정리 5개년 사업과 방화선 설치 및 입화(入火) 신고제를 통해 산불예방을 하였다. 80, 90년대 이후는 사회전반의 경제사정의 호전과 생활환경악화에 따른 입산객들의 증가로 매년 산불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보듯 그동안 우리 나라 산불의 원인은 사람에 의한 것으로 100% 인재(人災)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우리 나라는 기후적으로 보아 외국에서와 같이 낙뢰나 수목끼리의 마찰에 의한 자연발화성의 산불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불의 특성은 점점 대형화 추세를 보이면서 그 양상도 산림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명, 가축, 재산상의 피해까지도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지난 96년 강원도 고성의 산불과 올해 강원도 영동지역의 산불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산불을 수십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치룬 탓에 그 원인부터 시작해 특성과 진화방법, 사후대책, 예방방법, 외국의 사례까지도 꿰뚫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불의 발생빈도는 점점 높아지고 그 결과는 대형화로 인한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로 이어지는데도 늘상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묻기만 한다는데 심각성이 더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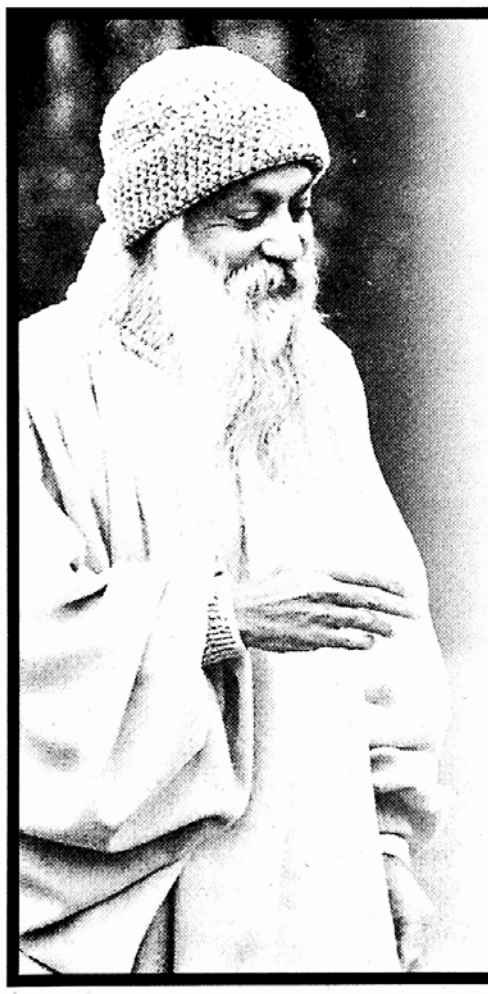
여기서 우리는 '실천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산불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까지 나온 산불예방의 방법을 보면 산불에 대한 국민계도 및 홍보활동, 산불위험예보제, 공중감시강화와 산불감시원 배치, 산불예방국민운동, 농산촌의 논두렁 등에 대한 입화(入火)금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 보다 더 이상 가는 예방책은 없다.

그러나 7일부터 시작된 강원 영동지역의 산불은 군부대와 농촌에서의 쓰레기소각이 원인이며 특히 13일의 삼척에서 발생된 산불은 방화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앞에서 언급한 예방의 방법들이 전혀 실천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산불 예방법 중 공중감시의 강화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체계가 이루어졌다면 초동진화도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산불확산의 차단도 이번과 같이 지표화(地表火), 수간화(樹幹火), 수관화(樹冠火)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충분한 산림항공기의 지원과 진화전문인력 및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육상진화대와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가능했을 것이다. 즉, 산불진화장비의 현대화, 우수한 성능의 산림항공기 확보, 정예화된 진화요원의 확보라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진화방법들이 실천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대형산불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적-환경적 가치 '보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실천적 의지로 정상화 해야한다. 산림은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발현하는 그 속성상 비록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의 전유물일 수가 없다. 오직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불예방 및 진화방법을 정상화하는데 필요로 하는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The Book of The Books
법구경 I·II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10,000원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만든다.
오쇼의 법구경 강의는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불교의 경전을 넘어서서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진리의 선물이다.

The Diamond Sutra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 값 10,000원

그대는 오직 의식하는 만큼만 존재하리라.
의식은 그대를 깨어 있게 한다.
이 진언은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달음의 땅'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여기 금강에서 가장 높고 옳으며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The Heart Sutra
반야심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 값 10,000원

그냥 존재하라. 삶이 춤추도록 놓아두라!
이것이 진리가 찾아 오는 유일한 길이다.
집착과 소유를 버려라! 삶의 덧없음에 명상하라!
그대가 무(無)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날, 모든 붓다들이 그대를 환영하고, 열반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 탄트라 더알는 계탕음)
10. 신후도
11. 신심명
12. 하난 언꽃일마대사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뀨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새로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그늘진 이웃에 자비와 지혜 법등 밝힙시다

97년 6월 시작 총 92,228구좌 돌파
군·양로원등 1,152곳에 '법' 배달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따사로운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남도땅에는 벚꽃을 비롯한 봄꽃들이 활짝 펴 겨우내 움추렸던 중생들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며 봄을 맞이하는 행복감에 젖어 있을 이 시간에도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은 아직도 추운 겨울입니다 소외된 이웃과 우리사회를 지키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에 동참합시다.

신문보내기 법보시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런 취지로 97년 6월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기 쉽지 않은 군부대나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 보내기 법보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구좌 1천원으로 동참하는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은 동참 시주자에게는 보시 공덕 가운데 으뜸인 법보시 공덕을 짓게 하고, 시혜자에게는 귀한 부처님법을 만나는 인연공덕을 짓게 합니다. 신문 법보시 운동이 확산되면서 총 9만2천2백28구좌에 전국 1천여 불자들이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현재 현대불교신문은 군법당(215곳), 교도소·교정청(73곳), 구치소·감호소(21곳), 소년원(18곳), 양로당(25곳), 아동복지시설(45곳), 장애인복지시설(20곳), 청소년복지시설(27곳), 사회복지기관(221곳), 불교병원(16곳), 경승실(257곳) 등 총 1,152개 시설에 매주 1,500부의 신문을 법보시해 현재까지 총 22만5천부가 발송되었습니다.

법보시 후원자 3백명에게는 창간호부터 지난해까지 발행한 '현대불교'를 담은 '창간 5주년 기념 CD-ROM'을 발송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법보시 동참 현황

구 분		발송처	보시부수	총보시부수
군부대	군법당	215	274	41,000
	국군병원	18	50	7,500
교회기관	교도소·교정청	73	173	25,950
	구치소·감호소	21	79	11,850
	소년원·감별소	18	18	2,700
복지단체	양로당	25	25	3,750
	아동복지	45	45	6,750
	장애인복지	20	20	3,000
	청소년복지	27	27	4,050
	사회복지기관	221	221	33,150
	불교병원	16	68	10,200
경찰	경승실	257	261	39,150
	경찰병원	2	6	900
지정 법보시	단체	96	135	20,250
	개인	98	98	14,700
전 체		1,152	1,500	225,000부 발송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 동참하세요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군부대 경찰서 교도소에 '부처님 말씀을'

'현대불교'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천5백 여부의 신문이 부처님의 손길이 되어 지혜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의 공덕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동참방법 : 매월 또는 수시로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계좌번호(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3-01-236053
한빛은행	082-090001-13-701	신한은행	324-05-007-450
외환은행	150-13-12902-6	뱅크라인	50-01-124-050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99
조흥은행	390-01-05647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하나은행	111-21644-00104	한미은행	100-51057-249
주택은행	504537-01-000064	평화은행	052-25-0001-512

▷참여방법 :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자동이체 및 온라인 입금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은행에 가셔서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셔도 됩니다.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직접 정하셔도 됩니다.
▷문 의 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군부대, 병원, 교도소 등 소중한 이웃들에게 보내는 '1구좌 1천원 법보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진은 신수회 주최로 열린 법보시 기금마련 하루 찻집에서 원성스님이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 법보시 불자 인터뷰

"호국불심 되살아났으면…"

비행기서 만난 군인에 권유

조경자 보살

"부산으로 내려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에 타고 있던 군인에게 현대불교신문을 건네 주며 부대 주소를 적은 것이 법보시를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98년 9월부터 매달 법보시 후원을 꾸준히 해온 조경자씨(60).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면 항상 현대불교신문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읽는다는 조씨가 법보시 후원을 할 주인공인 군인을 만난 것은 2년전 부산행 비행기안.

조씨가 신문을 읽고 있자 옆에 타고 있던 그 청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조씨를 쳐다보았다. 비행기 안에서 종교신문을 보는 조씨가 생소하게 느껴진 것이 그 이유였다.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갔지만 고모부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 고모부의 끈질긴 선교로 개신교를 믿게 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신은 불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 제가 신문을 보내줄테니 주소를 적어 달라고 하니까 좋아했지요."

집에 돌아온 즉시 조씨는 그 청년이 가르쳐 준 주소로 현대불교신문을 신청해 보내줬다. 또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불교가 활성화되야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씨는 더많은 군불자들이 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법보시 후원'에 동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법당 지는 것만이 불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조씨는 "포교의 사각지대에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책자나 신문을 법보시하는 것도 큰 포교불사란 자부심으로 후원하고 있다"며 여력이 있는 한 꾸준히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움준다는 생각에 힘솟아"

야채장사하며 후원 앞장

지명심 보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의 작은 정성으로 나마 그들이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춘천 중앙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지난해부터 법보시 후원에 동참해 온 지명심보살(63). 20여년 동안 홍천 수타사에 다니며 불심을 돈독히 해온 지명심보살은 2년전까지만 해도 한글도 못읽는 속칭 까막눈이었다. 시민단체에서 마련한 무료 한글교실을 통해 한글을 가까스로 깨우친 지명심보살은 법당에 비치된 현대불교신문을 한글교재로 삼았다.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불교공부와 한글공부를 동시에 한 것이다.

"한글을 깨우친 기쁨에 빠져 신문기사를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고 있던 중 어려운 이웃들에게 법보시 후원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평소 가난한 살림이지만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부터 지명심보살은 교통비를 아껴가며 법보시 후원자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식들의 도움없이 자신이 번 돈으로 매달 후원을 계속하고 싶다는 지명심보살은 좀더 많은 이들에게 후원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시장사람들과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도 법보시를 권유한다는 지명심보살은 "평생 도움을 받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절로 힘이 솟는다"며 "보시의 진정한 공덕은 나눔 그 자체에 있는 것 같다"고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현대불교를 받아보고

좌절한 인생에 다가온 한줄기 빛

인천에서 온 편지

저는 한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수감된 수인입니다. 항상 신문을 받을 때마다 사회의 관심 밖에 있는 이곳까지 현대불교신문을 보내주시는 이름 모를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현재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저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안겨준 현대불교신문과 법보시하신 분들 덕분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절망에 빠졌을 때 조용히 다가온 한줄기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주 전달되는 현대불교신문을 받아보며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에게 지금은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몸이지만, 악업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면 지금까지 받아온 많은 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꼭 회향해야겠다고 발원하고 있습니다.

이원식(인천구치소)

자신감 줘 힘든 군생활 쉽게 적응

연천에서 온 편지

저는 군에 입대한 지 8개월째 되는 군인입니다. 처음 군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별다른 고생 한번 않고 살았던 탓에 군생활 적응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방황도 많이 했었고 탈영도 몇번이나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연히 연대 법당에서 보게된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부처님의 진리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간만 나면 연대 법당에서 혼자 기도도 드리며 불서도 읽을 만큼 불교와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의지처가 생기다 보니 힘든 상황에 닥쳐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두가 현대불교신문을 무주상보시해 주시는 불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깊은 인연을 맺어 보람있는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법보시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민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IMF 실직 노숙자에 따뜻한 위안

광주에서 온 편지

새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저는 목포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는데 지난해 경제 한파가 밀어닥치면서 순식간에 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인해 실의에 빠졌고 점점 술로 하루하루를 소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어 노숙자 쉼터에서 구직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중 접하게 된 현대불교신문은 저에게 많은 위안이 됐습니다. 게다가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이 신문이 이름 모를 '1천원 법보시 후원자'들에 의해 우리 손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빨리 일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갑자기 불어 닥친 고난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이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 운동'에 꼭 동참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최재호〈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교도소서 만난 참된 삶의 나침반

원주에서 온 편지

요즈음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기운이 교도소 담장 너머에서부터 밀려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원주교도소 불자님들은 현대불교신문 덕택에 지난 겨울을 평온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1천원 법보시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현대불교신문을 서로 돌려 읽으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우리들에게 밝은 지혜와 참된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자님들은 아직도 따스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내일의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갈망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준 현대불교신문사의 고마움에 감읍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철주〈원주교도소 불교반장〉

용기와 희망 얻고 장애 설움 이겨

대전에서 온 편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도 빠짐없이 신문을 보내 주신 '법보시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항상 목발에 의지해야 하는 신체 장애자입니다. 사춘기 때부터 친구들과 다른 신체 여건 때문에 심한 열등감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성장해서는 마땅한 직장이 없어 사회복지시설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아무런 희망 없이 지내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읽게 된 현대불교신문은 무종교자인던 제 자신을 불자로 바꿔 놓았습니다. 특히 대행스님의 마음법에 관한 법문은 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우연히 접하게 된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이 마음 밭에 뿌려지면,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진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 귀중한 신문을 보고 나서 매주 모아 부산의 복지시설에 법보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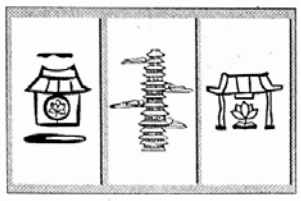
이진아 〈대전시 유성구〉

법보시 후원자 명단

간동흡 강갑순 강경중 강말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복복지관 강성욱 강숙희 강순영 강신욱 강신택 강영신 강옥구 강은영 강인성 강인숙 강장옥 강정기 강정숙 강정화 강정희 강종남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현숙 강황진 경 정 경순자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순진 고영해 고영이 고용순 고은주 고재선 고필선 고현사 공영근 구진모 구필희 권갑남 권계순 권동희 권미경 권복연 권복자 권복현 권성행 권 순 권순혁 권연지 권영숙 권영형 권오석 권오용 권오진 권옥숙 권은경 권정숙 권진순 권차순 권춘순 기현정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애 김경열 김경옥 김경해 김경훈 김경희 김광숙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국중 김귀남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춘 김길운 김남경 김남석 김남숙 김대현 김덕임 김덕자 김두영 김돌남 김동인 김명덕 김명옥 김명훈 김명희 김문자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미정 김민옥 김법수 김병서 김병주 김병철 김병훈 김복남 김봉운 김봉혜 김상덕 김산웹 김상분 김서분 김석순 김석용 김선남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송자 김수영 김수희 김순경 김순남 김순녀 김순덕 김순련 김순식 김순옥 김순희 김승재 김승지 김식자 김신엽 김애란 김애리자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연득 김연봉 김연수 김연옥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민 김영배 김영삼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자 김영희 김 옥 김옥점 김옥련 김외선 김용구 김용범 김용준 김원순 김원용 김원우 김유학 김윤선 김윤중 김윤환 김은희 김이식 김인성 김인숙 김인희 김일동 김자경 김정란 김정선 김정숙 김정옥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제철 김종미 김종애 김종옥 김종일 김주곤 김주원 김준만 김준모 김준엽 김준형 김준희 김지영 김지헌 김창수 김철수 김춘호 김춘화 김춘희 김치훈 김태현 김태훈 김택곤 김하나 김 헌 김현수 김현숙 김현승 김형창 김형철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 호 김호영 김홍순 김화남 김화수 김활수 김희남 김희수 나관숙 나숙희 나순옥 남선수 남성진 남숙경 남수경 남수미 남수진 남일우 남철수 남하자 남화자 노만호 노순남 노유택 노윤택 노진희 노창숙 노혜숙 덕성암 덕운화 덩형관 도옥희 도재권 동사섭 류경훈 류봉수 류성란 류정남 류정철 류혜훈 마정혜 마진희 명세정 모영희 목포지원 무명 문명순 문병기 문상철 문숙자 문순조 문정강 문필금 문필수 문형주 문화자 민경주 민병용 민복순 민소영 민승자 민을식 민하식 박강숙 박경숙 박경남 박경래 박경선 박경수 박경숙 박경애 박경화 박광수 박광호 박구숙 박금숙 박기규 박남순 박남옥 박내순 박명희 박무순 박미경 박미정 박병묵 박봉주 박상규 박삼섭 박석열 박성례 박성수 박성진 박세광 박수진 박숙경 박순덕 박순득 박순희 박신영 박양님 박양원 박양자 박영애 박영우 박영준 박영철 박옥남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윤기 박윤식 박은숙 박은주 박익형 박재련 박재진 박정산 박정순 박정자 박정하 박제원 박종두 박주연 박주원 박준형 박준호 박찬환 박찬연 박찬혜 박현혜 박철수 박춘자 박태규 박필원 박현준 박현주 박혜명 박혜숙 박혜정 박혜진 박혜희 반경숙 반동금 배명진 배성호 배순자 배연수 배춘자 백상준 백성옥 백양심 백유선 백현기 백혜원 법인스님 법현스님 변미자 부지원 사천5동 사랑방 상미옥 서경자 서귀연 서말자 서발희 서명선 서병학 서봉순 서부웅 서삼조 서옥경 서울은행 서윤아 서정숙 서 준 서 진 서희선 서춘건 서충우 서형관 석혜월 선유진 선장재 선정호 선현자 설갑문 설정수 설지식 성동환 성묘경 성민자 성재영 성필제 성호승 소진업 손관자 손금희 손미숙 손봉희 손상률 손율선 손인아 손인희 손정숙 손진일 손혜숙 손화자 송광욱 송규환 송미숙 송미애 송복희 송성의 송양숙 송인영 송정구 송필재 신경희 신기호 신미향 신미환 신복 순신상섭 신수호 신순애 신순희 신시균 신원민 신유진 신윤진 신재락 신재철 신조현 신진임 신택건 신호용 신홍재 심곤영 심근희 심능희 심단희 심묘희 심법희 심보희 심성학 심안희 심원희 심일희 심춘자 심향희 심희주 안성모 안순옥 안영선 안진후 양병덕 양세욱 양영애 양은숙 양의군 양정순 양정순 어종선 엄남주 엄점임 영등포법회 오동규 오두환 오막순 오명자 오미환 오병현 오선희 오세철 오승준 오순자 오승종 오원희 오주종 오주희 오진희 오창일 오창희 오현승 오현정 오형만 오형희 오희숙 한마음선원용신구법회 온정웅 우경애 우금식 우상용 울산지원 울산한마음선원 원정옥 유강수 유광수 유금식 유미양 유선재 유양상 유은경 유인복 유재춘 유정연 유정용 유춘자 육성희 윤경애 윤경희 윤기수 윤미희 윤병창 윤병혜 윤상문 윤석법 윤 성 윤옥희 윤인자 윤재경 윤제학 윤준상 윤지응 윤필은 윤참섭 윤태원 윤향숙 은경애 이강희 이경민 이경숙 이경아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계선 이관현 이교재 이구자 이귀숙 이규만 이규환 이금순 이금주 이기오 이기철 이남심 이대섭 이덕의 이동기 이명규 이명수 이명순 이명자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애 이미자 이범규 이병만 이병진 이보경 이봉순 이봉우 이분순 이상란 이상옥 이상은 이선임 이성재 이송자 이수자 이숙희 이순교 이순량 이순옥 이순임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희 이숭숙 이승은 이승훈 이신정 이 씨 이아리 이애자 이양희 이억수 이연규 이연우 이연옥 이영경 이영숙 이영순 이영조 이영희 이오석 이옥색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우승 이운자 이유순 이윤옥 이은숙 이은주 이은진 이의남 이익수 이인상 이임순 이장혁 이재국 이재윤 이재화 이점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정혜 이정희 이종동 이종례 이종희 정 희 정진욱 정필수 정필순 정학선 정해정 조남주 조명식 조미란 조미숙 조미애 조민우 조분옥 조상호 조승우 조약식 조양자 조영숙 조영희 조은경 조은미 조인자 조정현 조철제 조혜숙 조혜연 주영란 주우순 주인공 지순임 지연옥 지유미 지청인 진경상 진경수 진광현 진명숙 진영희 진옥례 진옥상 진원중 진재열 진재용 차동호 차상환 차수항 차용욱 차정순 차현주 차희자 채희순 천재경 천현수 천화조 청주교도소 최경락 최경자 최경조 최광례 최금철 최만례 최명희 최범순 최병언 최병조 최복내 최복순 최상철 최서윤 최석원 최선영 최성근 최성대 최성휴 최수현 최승형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윤정 최은희 최인숙 최재두 최재철 최재혁 최정근 최정기 최정문 최정희 최주현 최행선 최현주 최현선 최호자 최희원 추철희 충남대교수불자회 타행납부 태국한마음지원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하석남 하순임 하흥용 한경규 한국여성불교 한기선 한마음불교사랑방 한마음선원 한마음선원봉사모임 한마음선도신도 봉발용 한마음선원부산신도회 한명숙 한미순 한병소 한상현 한숙희 한순자 한아름 한양지 한임권 한철희 한춘영 한태희 한효림 함광정 함기석 함명익 함상수 함영숙 함지윤 허명희 허상임 허석남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승자 허의숙 허재승 허재영 허정남 허정훈 허중환 허찬웅 허학연 허희숙 현대불교신문지원일동 현불회 현수전 현월스님 현추월 혜월당 홍기장 홍명숙 홍민자 홍소순 홍순아 홍영순 홍영호 홍인자 황금철 황기용 황영분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점숙 황정숙 황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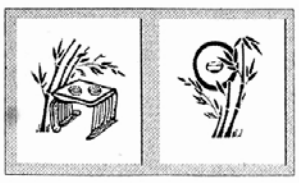
※총9308명이 동참 92,228구좌를 보시했습니다.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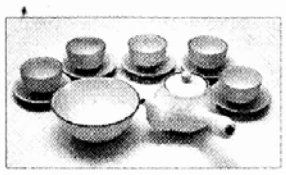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고산다기



가격:₩120,0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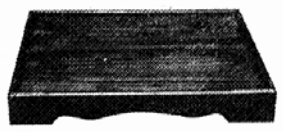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찻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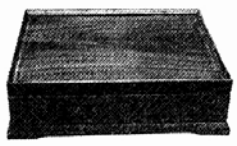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건강 옥염주



청옥 · 백옥(小)
가격:₩30,000
청옥 · 백옥(大)
가격:₩40,000

다기함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우스 X 4개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일 반 ₩27,000
숯기반 ₩35,000
황토반 ₩35,000

실용신안1998-025039
의장등록제0387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백화향 선물셋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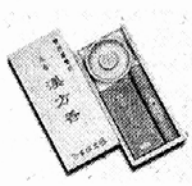


천연향방
악함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50,000

한방향 선물셋트

향등+한방향+향꽂이



2셋트 구입시
천연향방
악함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25,000

보원향 선물셋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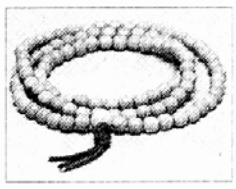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꽂이



천연향방
악함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60,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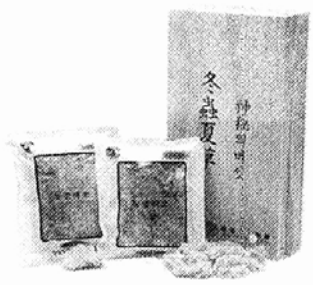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반야심경 지통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6cm×지름 20cm
₩140,0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
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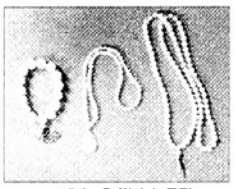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코팅 · 골동품
₩350,000
■개금
₩580,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성덕대왕 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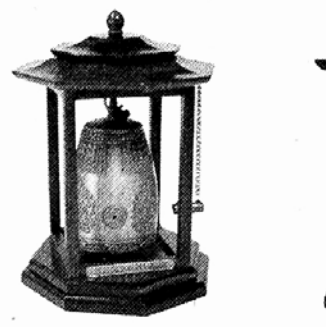
신라의 미 하면 가장먼저 성덕대왕신종 속명은 에밀레종을 연상하게된다.

에밀레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현존하는 신라시대의 범종중에서최대의 성덕대왕신종은 당시 종장(鍾匠)의 애절한 전설과 함께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조의 장구한 세월과 만고풍상을 견디어 그 자태는 본래의 모습대로 오늘날까지 국립 경주 박물관에 잘 본존되어 있다.

봉덕사 성덕대왕신종은 구경2.227mm 전고 3.663mm. 두께203mm. 음통고648mm의 거종으로서 종체의 규모에 있어서나.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최상 최우수 걸작품이며 동양의 청동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기의 명종이다.

이 종은 신라 제 35대왕인 경덕왕이 돌아가신 아버지 성덕대왕을 위하여 구리12만근을 들여 만들다가 실패하여 그 아들은 혜공왕 7년(771년)에 완성된것이다. 처음에는 성덕대왕의 원찰인 봉덕사에 걸려있었는데 그 뒤. 경주읍성의 남문. 동부동의 엣 박물관을 거쳐 1975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종의 꼭대기에는 우리나라 종만이 갖고 있는 용의 형태로 된 고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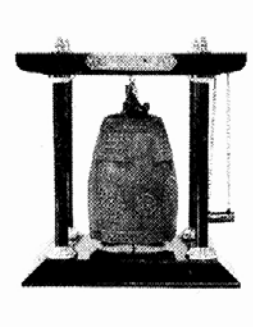
몸에는 위로부터 보상당초무늬를 새긴 윗띠와 연꽃으로 장식된 4개의 유곽.무릎을 꿇은 채 날아 내려오는 4개의 공양각으로 되어있다. 우아한 형태엄격한 양식. 아름답고 긴 여운이 깃든 소리등은 다른 종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걸작중 하나로 손꼽힌다.



팔각틀 에밀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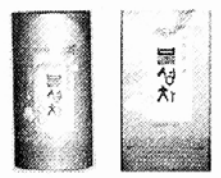


정사각틀 에밀레종



직사각틀 에밀레종

불 성 차



가격 : 우전 ₩90,000 / 세작 ₩50,000
중작 ₩30,000 / 대작 ₩20,000

날개 CD



가격:
₩9,5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 각 68분

■ 가격:
각 ₩25,000

주목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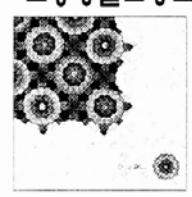
■ 가격: ₩16,000
■재질: 주목 ■사이즈: 24mm

신경미 Flute 소품집(CD)



가격:
₩10,000
배일 ₩5,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 문양: 홍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씨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끔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 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0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불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NO 1 가격: 2,000
NO 2 가격: 2,000
NO 3 가격: 3,000
NO 4 가격: 3,000
NO 5 가격: 3,500
NO 6 가격: 3,500
NO 7 가격: 3,500
NO 8 가격: 3,500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밖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우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니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 텅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격 : 25,000원

이렇게 들었다 남·북 정상회담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지 52년만에 첫 남북정상회담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남·북한 당국은 10일 오전 10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는 한반도의 탈냉전화를 위한 역사적인 변화의 서곡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모처럼 맞은 남북정상회담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선정 등 면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논의돼야 할 것이다.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그리며 이와 관련된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다.

화합은 생활공동체의 생명

▨부자·형제·부부·친족·민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인간은 제 자신과 남들을 발견하고 인류애와 화합하는 정신을 깨우친다.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 미래를 원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꿈은 현재의 일에서 가져야 할 것이니 이루고자 하는 뜻에 확고부동하여 흔들림없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야 하리. 〈중아함경〉

▨곧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툴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무기를 드러내 사람들을 위협 서로 해칠 경우에는 교화해서 화합케하여 정법으로 인도해야 한다. 〈대반열반경〉

▨세간에 이로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왕래하면서 변함없이 일깨워주는 것을 친구라 한다. 어려움당한 것을 보고서 서로 버리고 떠나지 않고 뜻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을 친구라 한다. 부귀할 때는 누구인들 친구나 벗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불본행집경〉

▨너희들은 서로 화합하기를 우유와 물이 잘 섞이듯 하라. 서로 치고 싸우지도 말고 말로 다투지도 말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생명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것이로다." 〈증일아함경〉

▨화합이란 ①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함 ②상하가 화동(和同)하여 서로 공경하고 순종해 어기지 않음. ③법을 받들어 금기한 바를 바로 알고 그 제도를 어기지 않음 ④힘써 많은 스승과 벗들을 보호하고 섬김 ⑤바른 생각을 견지하며 효도와 공경을 으뜸으로 함 ⑥음욕을 떠난 깨끗한 행(梵行)을 닦고 본능에 다르지 않음 ⑦남을 먼저 하고 나를 뒤로하여 이름과 이익을 탐하지 않음이다. 〈장아함 유행경〉

▨대중이 흩어지는 것을 보거든 능히 화합하게 하며, 남의 착한 일을 나타내 주고 남의 허물은 숨겨주며, 남의 부끄러워 할 것을 선포하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듣거든 발설하지 말며, 적은 은혜를 자기에게 준 자가 있거든 크게 갚기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원망을 하는 자에겐 항상 선심을 내며 원친(怨親)이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원망하는 자를 구원하며, 꾸짖는 자나 와서 때리는 사람을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며, 모든 중생을 보되 부모와 같이 하라 〈우바새계경〉

▨거친 말을 멀리 함으로써 저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피차 함께 해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아미타경〉

▨비구들이여 정당한 비구는 화합하고 환희하며 쟁론치 않고 유수(乳水)와 같으니라. 서로 친애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면 이를 화합중(和合衆)이라 설하느니라 〈증지부경전〉

신행 캘린더

4월19일 (수)

■ **석왕사 사진동우회 '심상' 창립11돌 사진전**=부천 석왕사 사진동우회 '심상'은 20일까지 부천시청 아트센터에서 '인연으로부터'란 주제로 창립 11주년 기념전시회를 연다. 032)320-2456

■ **김덕명 명인 양산사찰학춤 공연**=김덕명 사찰학춤 명인의 공연이 저녁 7시30분 국립극장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찰춤으로 손꼽히는 '양산 사찰학춤'이 공연된다. 02)2274-3507

■ **박경준교수 초청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박경준교수(동국대 불교학과)를 초청,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02)703-0108

■ **조계사 동자승 출가체험 삭발식**=조계사는 낮 12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2회 동자승 30일간의 출가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새싹불자들의 삭발식을 거행한다. 02)732-2183

4월20일 (목)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낀다면 덕높으신 스님들의 감로법문에 귀를 기울여 보자. 조계사 대승불자회는 불교의 사회복지, 생사관, 경전 등 다양한 주제로 5월4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 10주년기념 특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 **대승회 종석스님 초청 특별법회**=조계사 대승회는 저녁 7시 대웅전에서 종석스님(중앙승가대교수)을 초청, '대승불교(불교인의 자각과 신행)'을 주제로 한 '창립기념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02)736-4848

■ **조선족시인 '석화' 초청 시낭송회**=오후 6시 서울 삼청동 '예띠의 집'에서 '조선족 시인 석화(石華) 초청 시낭송회'가 열린다. 02)732-8144

■ **맑고향기롭게 박철원 도예전**=맑고향기롭게 중앙모임은 23일까지 성북동 길상사 적묵당에서 '이당 박철원 도예전'을 연다. 결식 이웃 후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구를 비롯해 향꽂이, 촛대, 각종 생활 도자기들이 선보여 진다. 02)741-4696

4월21일 (금)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장애인세상나들이**=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치악산 구룡사에서 '장애인 세상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02)723-5101

■ **좋은벗들 이철기교수 초청 통일강좌**=좋은벗들에서는 이철기교수(동국대 국제관계학과)를 초청, 저녁 7시30분 정토회관 3층 대강당에서 '군비축소와 평화문제'를 주제로 통일 강좌를 마련한다. 02)587-8996

4월22일 (토)

■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개원식**=조계종 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 개원식이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02)737-7378

■ **실상사 화엄회 철야용맹정진법회**=실상사 화엄학림 후원회인 화엄회는 화엄학림 강당에서 23일까지 철야 용맹 정진법회를 개최한다. 도법스님(실상사주지)이 지도한다. 0671)636-3031

4월23일 (일)

■ **법장사 낙성9돌기념 성수스님 초청법회**=묵동 법장사는 오전 10시30분 대웅전에서 지리산 황대선원 조실 성수스님을 초청, '사찰 신축 낙성 및 창립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948-3111

4월24일 (월)

■ **금산사 보살계 수계법회**=금산사는 오전 10시 보살계 수계식 및 가사불사 회향식을 대웅전 앞 특설계단에서 봉행한다. 0658)548-4441

■ **용진여행사 백담사·봉정암 철야기도 순례**=사찰순례 전문 용진여행사는 2박3일간 설악산 봉정암과 백담사로 철야기도법회를 떠난다. 동참회비는 5만원. 02)2279-1191

4월25일 (화)

■ **여래지답사회 운주사 답사**=여래지답사회는 도선국사가 풍수지리설에 의해 '천불천탑'을 세웠다는 화순 운주사를 찾아간다. 돌아오는 길에는 〈화엄경〉을 실천하는 수련도량인 불회사를 참배한다. 참가비는 3만7천원. 출발은 오전 7시30분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 02)3445-0202

법회안내

다보사 2돌법회 초청



혜정 법주사 율주스님은 30일 오전 10시 둔촌동 다보사 '개원 2주년 기념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02)475-6632

법왕사 백고좌 법회



원혜 봉은사 주지스님은 20일 오전 11시 법왕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경율론 삼장 백고좌 법회'에서 법문한다. 053)766-3747

4월 다보법회 설법



도법 실상사 주지스님은 26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되는 '다보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02)703-0108

'화목한 가정' 법문



재연 무량선원 주지스님은 23일 오전 10시 대법당에서 열리는 '가족법회'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혜'를 주제로 법문한다. 062)971-8626

게시판

알림

▲**간병인 교육**=연꽃마을에서는 5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간병인 교육을 실시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육생 모집시기는 5월10일까지. 02)363-7884

▲**장애아동 놀이치료**=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행동 및 정서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주 1회 놀이치료를 한다. 치료내용은 미술놀이, 역할놀이, 모래놀이 등이다. 1인 개별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0443)652-0900

▲**군부대 위문품 접수**=강남포교원에서는 초파일을 닦아 군불자들에게 전달할 위문품을 발송한다. 군복무중인 자녀가 있는 불자들은 주소를 제출하면 자녀들에게 위문품을 보내준다. 접수마감은 5월5일까지. (02)539-2631

▲**신행 및 무료 법률상담**=대구 자비의전화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리나 종교 갈등을 비롯한 신행상담과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 053)753-9736

▲**제1차 사찰생태문화기행**=조계종 총무원과 불교신문사는 공동으로 '제1차 사찰생태문화기행'을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리산 실상사 및 유기농장, 지리산 댐건설 예정지 일대 등을 기행한다. 선착순 60명이며 동참금은 3만원이다. 02)735-5864

▲**구직알선**=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산후조리사, 파출부, 간병인, 가정 탁아모 등에 걸쳐 구직자들을 소개해 준다. 담당은 김민경 사회복지사. 02)2282-1100

모집

▲**복지관 강사**=낙동복지관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도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컴퓨터 교실과 피아노반을 진행할 강사로 전공자와 관련자격증 소지자인 경력자를 우대한다. 051)271-0560

▲**여종무원**=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약사사에서는 종무소에서 일할 여직원을 모집한다. 자격은 신심있는 불자로 급여는 면접후 조정. 02)733-5860

▲**간병인 교육생**=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제8기 어진 간병인 교육생'을 모집한다. 안전교과, 병원 생활의 특성과 유의사항, 간호이론 및 실습 등의 강의가 이뤄진다. 교육기간은 24일부터 28일까지이다. 02)733-3221

강좌

▲**범어초급강좌**=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김성철의 범어연습 초급 강좌'를 마련한다. 02)765-9602

▲**원효학당 불교강좌**=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이 4월말까지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강의 일정은 △월요일 〈삼국유사〉(정병조교수), 〈능엄경〉(송찬우교수) △화요일 〈사기열전〉(진성규교수), '인도종교의 이해'(정승석교수) △금요일 '비교종교학'(최종석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02)3411-6167

▲**참선교육**=광주 박민수 참선교육원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장소는 금남로 4가 평화은행 뒤 미산빌딩 2층. 062)251-2733

▲**중국어회화반**=서울 불광산사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중국어 기초회화반 강좌를 개설한다. 02)2276-0993

▲**성훈따주기**=수효사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수효사 문화원에서 '성훈따주기' 강좌를 시작한다. 무구스님(수효사주지)이 지도한다. 02)313-3060

▲**어르신 노래교실**=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하는 '대중가요배우기 노래교실'에 참여할 60세이상의 노인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02)985-0161

▲**한문·서예 무료강좌**=한국불교문화원은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문·서예 무료 강좌를 실시한다. 강좌 내용은 추사체 총론. 02)823-7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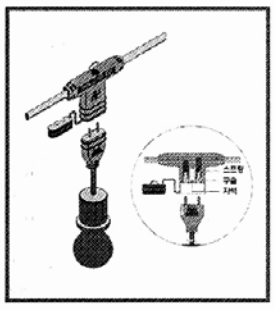
화촉

▲**김병규 디지털타임즈 영업국장**(前 문화일보 편집국장)의 차녀 **김민정**양이 22일 낮 12시 강남 탑웨딩홀에서 이상교씨를 신랑으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02)512-0100

부음

▲**진성정사**(대한불교진각종 항수심인당 주교)**모친상**=13일 오후 6시 45분 숙환으로 별세. 발인은 15일. (0652)252-2647

연등 배선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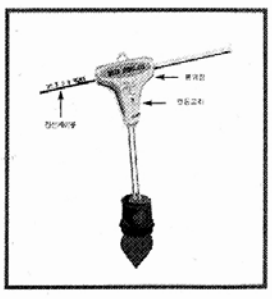
분리형 자석식 케이블

■ **간편성**
자석의 특성을 살려 설치 및 수거가 간편합니다.

■ **영구성**
성능을 인정받은 특수 자석을 사용합니다.

■ **안전성**
감전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연등배선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T형 일체식 케이블

■ **견고성**
전선과 소켓이 일체이므로 튼튼합니다.

■ **편리성**
연등 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 **일체성**
접촉불량이 없습니다.

※ 설치시 조광기를 가설해 드립니다.

▶ 물자기업 : 마크를 각인하여 전선을 생산한다.
▶ 안 전 성 : 내선이 기존제품보다 굵어서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 다 양 성 :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 내 구 성 : 3종 피복 전선으로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 경 제 성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규격 내부용 : 30cm, 35cm, 40cm, 50cm,기타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기타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성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기업 S2 신성
TEL : 02)993-8903~4 H.P : 011)367-3786
FAX : 02)993-8905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공장 0341) 988-1688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4-22

天然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불심으로 되살린 남원불교대

폐교위기에 동문·지역불자들 나서

신입생 정원 채우고 단독학사 완공

폐교위기에 있던 남원불교대학(학장 도법)이 동문들과 지역불자들의 합심으로 10기 신입생 60명 정원을 채운 것은 물론 최근 동문들이 주축이 돼 학사를 완공했다. 이와 함께 만복사지 복원과 불교복지회관 건립등 장기적인 지역불교 발전방안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교 7년째를 맞는 남원불교대학은 올해 2월 신입생 부족으로 대학 운영위에서 격년제 모집을 강구하는 등 사실상 폐교위기에 몰리게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남원불교대 동문회격인 남원불교연합회(회장 이정섭·이정섭외과 원장)가 신입생 모집에 적극 나서고, 동문들도 21명이 재입학하여 정상적으로 10기 강의가 이루어지게 됐다.

또 남원불교연합회는 동문들과 합심하여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사무실을 갖춘 30평 규모의 불교대학 단독학사를 선원사내에 완공했다. 그 동안 일반건물에 세들어 있던 남원불교대학의 사정을 봐 온 선원사 주지 일화스님이 사찰경내에 학사이전을 제안하며 부지를 마련해 준 것.

학사신축은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자재를 구입한 뒤 기반공사 내부공사를 직접 해냈다. 방송 기자재, 칠판, 책·걸상등 내부시설도 동문들이 각각 분담하여 새로 마련, 제 2의 개교를 맞게 된 것이다.

남원불교연합회 이정섭 회장은 "올해부터 안정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6기 동문들이 매년 20여명씩 다시 입학하기로 했다"며 "5년 내로 570평부지에 4층 규모의 불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등 동문들의 역량을 모아 지역불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불교연합회는 학사신축의 여세를 몰아 5월 6일 고려시대 대찰이었던 기린산 만복사지(남원시 왕정동)에서 지역불교발전과 사지복원을 기원하는 만등불사 및 탑돌이 행사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모아지는 기금은 지역불교 발전및 만복사 복원 불사금으로 적립된다.

조선시대 김시습의 소설〈만복사저포기〉 배경이 된 만복사에는 현재 오층석탑(보물 제30호) 불상대좌(보물 제 31호) 당간지주(보물 제32호) 석불입상(보물 제43호)과 석인상을 비롯한 금동불입상등의 유물이 남아있다.

한편 99년 7월 창립한 남원불교연합회는 거사들의 신행모임인 심우회, 봉사단체 능인회, 불교대학 학생회, 남원청년회, 남원산악회 등 5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남원=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동문들의 합심으로 기사회생한 남원불교대학의 강의장면.



◇석굴암과 피라미드 건축양식을 조화시킨 '피라미드-황토석굴암'

피라미드·석굴암 건축양식 조화

황토방 참선도량 '눈길'

안진근씨 보현암에 건립

이집트 피라미드와 경주 석굴암! 이질적인 동·서양의 건축양식이 조화를 이룬 신개념의 황토방 참선도량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문수도량으로 이름높은 문수암 인근 보현암에 자리잡은 '피라미드-황토 석굴암'이 바로 그것. 이집트 피라미드를 축소한 목조피라미드 모양의 건물 내부에는 황토석굴암이 들어서 있다. 황토벽돌만을 사용하여 반원구형태로 쌓아올린 황토석굴암은 좌선공간일 뿐만 아니라 바닥이 구들로 되어있어 찜질효과도 볼 수 있다.

이곳이 바로 문수암 방장 정천 스님의 수행도량이다. 문수암 옆 천연동굴에서 수행하던 스님을 위해 황토연구가 안진근(황토건축 대표) 씨가 건강관리와 참선수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피라미드-황토 석굴암'을 보현암 뜰에 지어 준 것.

조용히 수행에만 정진할 수 있는 천연토굴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렇다면 '절방을 천연토굴과 유사하게 황토로 지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안씨의 착상이었다.

'피라미드-황토 석굴암'의 구조를 이루는 삼각형과 원은 만다라 그림의 기본이기도 하다. 한마음에너지과학연구소 허창욱 박사(신과학정보센터장)는 "삼각형은 발전과 진보를, 원은 조화와 균형을 내포하는 원형이다"며 "이러한 원형을 공간에 너지상에서 형상화한 것이 바로 피라미드와 돔이다"고 주장한다. (017)585-6045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숭림사에 5층탑 세운 까닭은

김칠금씨 3년 월급 모아

불교 중흥·주민 평안 발원

한 촌로(村老)가 '불교중흥'을 염원하며 3년간의 공장생활에서 모은 월급으로 5층석탑을 조성해 화제다.

11일 익산시 함라면 숭림사(주지 지광)에서는 2차불사 회향법회 식전행사로 5층석탑 제막식이 열렸다. 이 석탑은 김칠금씨(익산시 웅포면 거주) 부부가 숭림사에서 '불교중흥과 지역발전,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발원한 뒤 3년만에 세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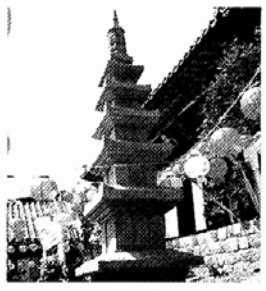
김씨는 기도 후 곧바로 인근 공장에 취업하여 허드렛일을 도우며 월급 70만원을 받았다. 이중 10만원만 노부부의 생활비로 충당하고 60만원과 매달 아들이 보내준 용돈을 3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 5층 석탑을 조성했다.

김씨 부부는 당초 사찰에 탑을 조성한 연유를 비밀에 부쳐달라고 당부했지만, 숭림사 신도회는 김씨부부의 뜻을 기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행의 사표로 삼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조성내력을 공개했다.

숭림사 주지 지광스님은 "김칠금거사 부부가 절에 와 석탑보시 의사를 비쳤을 때 망설였지만, 원력을 세우고 3년간 열심히 일해서 마련했다는 얘기를 듣고 쾌히 승낙하게 됐다"고 밝혔다.

숭림사는 1998년부터 2차불사를 시작하여 요사 안심당, 산신각건립, 진입로 포장 및 관정공사, 영원전·나한전을 보수했다. 특히 요사 안심당에는 주지스님이 대전에서 되찾아온 소조독성상과 목조여래상을 봉안했다.

익산=김원우 기자



◇김칠금씨 부부가 보시해 조성한 숭림사 5층탑.

창원사암련 시민유등제

다양한 행사로 화합 다져

창원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정)는 창원불교청년회(회장 성환록) 주관으로 15일 창원 용지호수에서 '창원 시민의 날' 기념 제9회 시민유등제를 거행했다. '희망의 새천년, 창원과 함께'란 주제로 열린 이번 유등제는 종교행사의 차원을 넘어 50만 창원 시민이 함께 하는 대화합의 행사로 승화되었다.

유등제 식전 문화행사는 놀이패 공연 장승만들기시연 청소년한마당 북춤 부처님이운식 등, 본 행사는 시민화합 기원대법회 촉등점화 못돌이 유등 등으로 진행됐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달마도 전시 길그리기, 연등만들기, 사랑의 동전모으기, 널뛰기 투호 등 민속놀이, 분재전시, 경주 남산 사진 전시, 자비의 인절미 보시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김재경 기자

23일 불교 합창예술제

광주 불교사암련 주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천운)는 23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2000 광주·전남불교 합창예술제'를 개최한다.

광주·전남불교 보리살타연합합창단이 주관하는 이번 예술제에는 증심사·향림사·사암연합·백양사·한마음선원혼성합창단, 도드리실내국악단이 참가한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전통향 제조 취운향당

경북 성주 새공장 개원



사찰에서 비전되던 전통향을 제조하고 있는 취운향당(대표 능헤스님·사진)이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새공장과 기숙사를 건립, 9일 이전확장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새공장은 대지9백평 건평5백평에 매월3만통의 향을 생산할수 있는 규모. 순수 자연향료만을 사용하는 취운향당은 미국 일본 대만 등지로 수출된다. (0544)933-6371

종단소식

조계종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신허)는 9일부터 11일까지 2000년 경진년 보살계 수계산림〈사진〉을 봉행했다. 전계아사리 영철 대화상, 갈마아사리 지안 대화상, 교수아사리 상우 대화상을 삼사로 지종 무관 호명성파 선진 지은 학오 스님을 칠증사로 3천500여명의 대중이 보살계를 수지했다. 수계식 후에는 계첩을 머리에 이고 부도탑을 도는 탑돌이가 이어졌다.

태고종

합동 득도수계 행자접수

제24기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할 행자등록을 오는 5월 31일까지 서울 종무처와 각 시 도 교구 종무원에서 받고 있다. 참가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1, 2차에 걸친 소양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한다. (02)745-2030

선암사 불서·천연향 전시

순천 선암사(주지 인곡)는 5월 31일까지 만세루에서 불서 및 전통 향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 나오는 불서는 〈태고총림 선암사〉를 비롯 1천여종이며 향은 심향 목향 안식향 혜향 등 전통 천연향들이다. (0661)9308-7979

전태종

양평 양산사 법당 기공

양평 양산사(주지 갈웅)는 25일 오전 11시 법당 기공식을 갖는다. 이날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 종단스님들과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338)771-3700

진각종

종단 이미지 통합 선포

통리원(원장 성초)은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총인원 야외잔디밭에서 종단 이미지 통합 작업 선포식을 갖는다. (02)913-0753

대구서 밀교교리법회

총금강회 대구지부는 29일 오후 2시 대구 대백예술극장(대백프라자 11층)에서 밀교교리대법회를 봉행한다. 법사는 종학연구실장 혜정대정사.

조동종

국태민안 기원 방생법회



총무원은 7일 충남 금강천에서 종도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국운융창 및 수륙 영산천도대재 합동 방생대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학봉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봉행한 영산수륙대재로 인해 모든 영혼들이 이고득락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더 나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금룡사 최수임 주지 진산

서울 은평구 금룡사는 28일 정오 금룡사 대웅전에서 최수일(行天) 주지 진산식 및 영가천도대재를 봉행한다. (02)383-3346

선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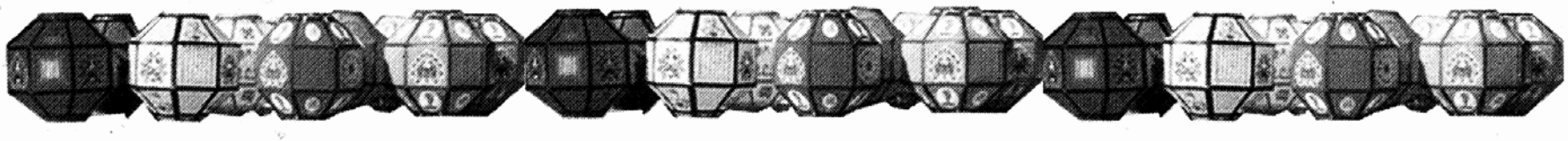
자비암 개원 법회



자비암(주지 자광)은 9일 총무원장 정암, 종회의장 대운스님 등 사부대중 3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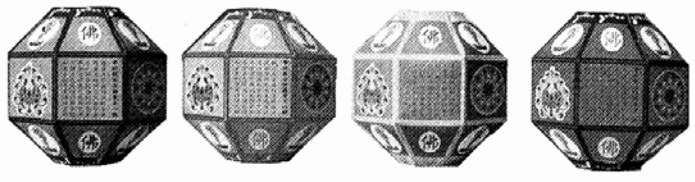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 이쪽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봐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 016-228-2358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02)732-1522(직)
02)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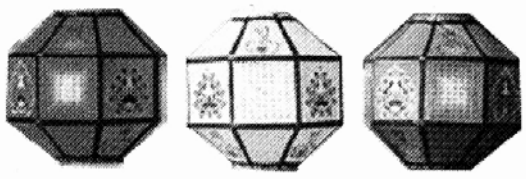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윗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이름표〉
부처님 오신 날
비에 젖지 않습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이름표〉
부처님 오신 날
비에 젖지 않습니다.

사찰 장애인 보호시설 '열악'

법당 문턱 높고…계단 많고…화장실 불편

불자장애인 급감…복지시설 타종교 비해 열세

소쩍새마을 특수교실 주임교사인 홍성철씨(42·지체장애 3급)는 절에 가본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조차 없다. 몇 번 가보았지만 계단이 많고 법당 문턱이 높아 불편을 겪은 느낌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인 고관철씨(34·지체장애 4급)는 "사찰엘 가보면 솔직히 말해 장애인들은 오지 말란 얘기나 다름없을 정도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말한다. 고씨는 "장애인을 위한 좌변기 하나 변변히 설치돼 있는 사찰이 있느냐"며 "불교복지를 공부하는 학도로서 장애인에 대한 불교계의 무관심에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각장애인 박윤화씨(60)는 "가끔 혼자서 밖엘 나가지만 그래도 사찰엔 갈 엄두가 안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유도블록조차 설치된 곳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참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불자들은 한결같이 "맘 놓고 사찰을 참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찰들은 묵묵부답일 뿐이다. 근래 들어 관심이 다소 높아지면서 이런저런 행사는 좌 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교계의 장애인 복지는 말 그대로 '불모지'로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불자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같은 현실은 통계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통계청이 지난 95년 실시한 인구센서스에서 나타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이들 중 무교를 제외한 28.1%가 불교인이었고, 기독교 21.2%, 천주교 7.9% 순이었다. 그러나 97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전국 46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독교가 36.4%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 22.7%, 불교 18.2%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불자장애인 수가 10%내외로 더욱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교계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불자 장애인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언어·청각장애인 복지시설인 광림사 연화복지학원 원장 해성스님은 "사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애인들이 갈만한 교계 복지시설마저 열악하니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현재 불교계 장애인 복지시설은 서울강북·제천장애인복지관과 소쩍새마을, 상락원 등 모두 25곳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98년 9월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종교계가 운영하는 장애인관련 정부인가시설 157곳 중 천주교가 111곳(70.7), 불교와 개신교는 각각 23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시설이 급증하면서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미인가 시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전체의 4~5%대에 그칠 것으로 교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불교 장애인복지에서 가장 전문가로 꼽히는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부장은 "노인이나 일반복지 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장애인 복지가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년에 한 두차례의 의례적인 행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종단차원의 장애인복지 운영위원회 설치와 함께 장애가 '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포교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시설과 전문인력을 늘리고 사찰들도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지체장애인들의 법회장면.

이혜숙 종교사회복지연구소장은 "아무래도 복지시설을 많이 늘리고 특수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고, 제천장애인복지관 최성국 부장은 "사찰들도 경사로, 좌변기, 유도블록, 점자 안내문이나 음성안내문,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강원 산불…연등사 불 타

7일에 이어 12일에도 강원도 삼척, 동해 등지에서 대형산불이 잇달아 발생, 도내 각 가람수호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산불로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소재 연등사(주지법사 고우익) 법당(60평)·요사채(20평)가 완전 소실돼 약 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한 인근에 위치해 있는 삼척 영은사 동해 삼화사·감추사등 20여 전통사찰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전 동해시 남서쪽 달방댐 하류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후 용정동 감추사 입구까지 번지자 소방차와 군인들이 출동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감추사는 한때 사찰 100여m 지점까지 불길이 번져 긴장감이 감돌았다. 큰 불길이 잡힌 13일 오후에도 뒷산에 불씨가 남아 사찰 관계자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후에는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로 번져 남단에 위치한 청련사 입구까지 번졌다. 불길이 절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소방차 3대와 군인 50여 명이 출동해 불길을 막았다.

이밖에 천은사, 영은사, 약수암, 삼화사 등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위치한 각 사찰에는 소방차와 산림청 직원, 군인들이 출동해 불길이 경내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한편 속초 신흥사(주지 법장)는 고성지역 산불피해 지역에 냄비 50세트와 의류 200벌을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개신교인이 관세음보살상 보시

강릉시 성산면에 사는 개신교 신도인 최병호(47·자동차정비소 운영)·홍명희(37, 개신교 집사)씨 부부가 성산면 오봉리에 소재한 원융종 다보사(주지 보현)에 호박으로 조성한 1000만원 상당의 관세음보살상〈사진〉을 보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보현 스님이 아무 대가 없이 신도들의 병을 간호해 주고 정성껏 신도들을 대한다는 소식을 평소에 전해듣고 거금을 보시했다.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면서도 묵묵히 정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이들은 앞으로도 500만원을 더 보시할 생각이다.

전유진 강릉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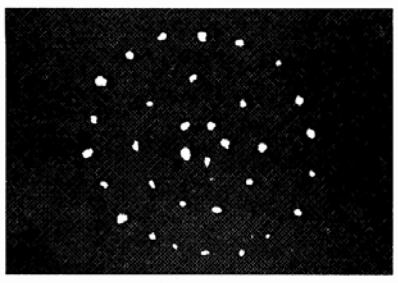
용암사지서 나온 사리 영암 도갑사에 봉안

전남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 32과가 인근 사찰인 도갑사에 봉안된다.

이 사리는 96년 월출산 마애여래좌상(국보 제114호)의 주변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인근에 있는 용암사지 삼층석탑을 수리·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문화재청은 '보존이 여의치 않은 발굴문화재는 다시 매장한다'는 관례에 따라 사리를 석탑에 다시 봉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굴·훼손 등이 우려돼 수년동안 수장고에 보관해 오다가, 최근 사리의 봉안 장소를 조계종에 의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사리는 문화재라기보다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용암사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도선(827~898) 스님이 창건한 도갑사로 14일 사리이운식을 봉행했다. 한편 도갑사는 사리친견법회를 마련하고, 사리탑을 조성해 봉안할 계획이다. 사리친견법회의 일정은 추후 공고된다.

오종욱 기자



◇문화재청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암사지 사리.

교계 복지단체 '장애인의 날' 행사

음악회·무료진료·산행대회등 풍성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계 복지단체들이 장애인 나들이를 비롯해 음악회, 무료진료, 급류타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숙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은 20일 영월군 쉬리래프팅에서 지역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급류타기 일일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0392)635-0758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산)은 22일 오후 1시부터 인근지역 장애인 및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관 내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이날 무료진료에는 순천향대학병원 의료봉사단이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의 진료봉사에 나선다. (02)989-4215. 제천장애인복지관(관장 진효)도 22일 오후 3시 제천시 문화회관에서 합창, 사물놀이, 댄스, 수화노래 등을 내용으로 한 '아름다운 음악회'를 개최한다. (0443)652-0900 또 덕유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은 19일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속촌 야유회를 떠난다. (032)325-2161

녹야원 주간보호센터와 순회재활센터도 각각 행사를 개최한다. 주간보호센터는 19일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양평 동구릉 답사를, 순회재활센터는 28일 포천에서 온천욕 나들이 행사를 갖는다. (02)922-2951.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23일 오전 11시부터 150여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제9회 전국 장애인불자 산행대회'를 팔공산 갓바위에서 개최하고 산행을 통한 고행정진의 체험을 쌓는 수련기회를 제공한다. (053) 256-0114

이에 앞서 상락원은 13일 여의도 한강에서 '벚꽃구경 및 유람선 타기' 행사를, 원심회와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은 16일과 17일 용인 에버랜드와 남양주 모란공원 미술관에서 각각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한명우 기자

박노항원사 수배전단 승려복 차림 전량수거

병무비리와 관련해 수배를 받고 있는 박노항 원사의 승려복 차림 수배전단이 교계의 항의에 따라 최근 전량 수거됐다.

지난 7일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을 방문,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하고 전국에 배포된 수배전단을 모두 수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국방부와 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29일 '병역비리 주범 지명수배' 2차 전단 10만장을 배포하면서 1차때 없던 승려복장의 박원사 합성사진을 게재했다.

한명우 기자

'지리산댐 대책위' 구성키로

실상사 사부대중좌담회

실상사(주지 도법)는 9일 화림회 등 사중스님 20명과 귀농학교, 대안학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종무소 직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사부대중 좌담회를 개최하고, '실상사 지리산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중심으로 '실상사 지리산댐대책위'를 구성한 후 교계 제단체와 함께 '지리산댐 불교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일산 노인복지관 개관

연꽃마을이 지난 2월 고양시로부터 수탁했던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20일 오전 11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작품 전시회와 노인용품 전시관 개관식도 함께 진행된다.

연건평 1500평의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관으로는 국내 최대규모로 상담사업, 기능회복사업, 평생사회교육사업, 주간보호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또 장례서비스와 결혼식, 돌잔치, 회갑잔치 등을 유치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방침이어서 지역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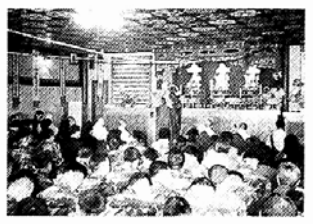
심우회 소쩍새마을 위문

군법당 지원봉사를 하고 있는 심우회가 29일 소쩍새마을에 자원봉사 활동 및 대중공양에 나선다. 이날 심우회는 소쩍새마을에 부처님 오신날 봉축등도 달아줄 계획이다.

한편 심우회에서는 군법당에 연등 달아주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연등달기 후원 동참자들을 모집한다.

강지연 기자

호국정토사 법당 낙성



육군 3653부대 호국정토사(주지법사 김종립) 법당 낙성법회가 7일 봉행됐다.

삼존불을 모시는 점안식에 이어 거행된 낙성법회에서 영도스님(심원사 주지)은 "불자장병들은 성실로 정신무장을 해 입가에 항상 미소가 그려지고 용기와 신념, 정의감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호국정토사 법당은 8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대지 500평에 건평 36평 규모로 지어졌다. 법당 옆으로 4평 규모의 군종병실도 갖추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는 군장병 수계식과 포교사단의 감사패 수여식도 거행됐다.

강지연 기자

아침을 여는 집 '백서' 발간

경불련 이웃을돕는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은 실직자 구호와 자활모임터인 '아침을 여는 집 99년도 사업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사랑의 집수리, 경로잔치, 실상사 귀농전문학교 입소교육, 나눔의 장, 사회기술훈련 '바꿔살기', 일꾼포럼,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음악회 등 사업내용 소개와 평가의 글, 입소자의 글 등을 게재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전자파 수맥파 차단의 기(氣)인증! "달마도 순금카드"

달마도의 대가 오인법사 원본 작품을 99.9% 순금카드위에 직접 새겨 놓았습니다.

달마도 순금카드(지갑소지용)



앞면:오인법사 달마도
뒷면:①반야심경②사업번영부③안전운전부④시험합격부

달마도 순금판 표구액자



"부처님 오신날 봉축" 천만불자 보시용품



대한불교 관음종 해동관음선원에서 인증한 기(氣)인증서

달마도 신비의 기(氣) 달마도는 TV방영에서 증명된 바 와 같이 신비스런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순금카드 일반 지갑소지용으로 얇게 편 순금카드 앞면에는 오인법사의 달마도를, 뒷면에는 반야심경, 사업번영부, 안전운전부, 시험합격대길부(4종류 중 선택가능)를 새겨서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 없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대형(5×7.5cm) 20,000원, 소형(3×5cm) 15,000원이며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할인하여 30,000원

달마도 순금판 액자 국내 최초 순금판 최대 크기로 오인법사의 친신 또는 상반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로 제작하였습니다. 표구액자(27×32cm), 달마도 순금판 크기(11×16cm)일반 판매가격 150,000원, 한정판매

달마도 순금판 열쇠고리 달마도 순금카드 (3×4cm)를 아크릴판 열쇠고리에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1개 10,000원, 3개 셋트 25,000원

구입문의상담 주문방법은 전화접수 후 전국내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사찰 및 불자회 보시용품 각 영업회사 판촉사은품으로 최적상품 이며 다량구매시 가격할인 및 원하는 그림, 사진, 글씨, 로고도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셋트 및 액자 구매시 사은품 증정!

제조판매원: 골드타운 고객성원에 힘입어 한국순금카드사가 (주)골드타운으로 법인화 하였습니다.

(02)926-7377, 7315 (24시간 공휴 접수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ldsale.co.kr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秘)"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인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프리즘정보시스템
SK텔레콤
사이버벨크
(주)한국대상

"새로운 선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프리즘 정보시스템(주)는 일상생활에 지친 여러분을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문화서비스를 시도합니다.
늘 가slot에 두고싶었던, 한번만이라도 직접 맘껏해보고 싶으셨던 큰 스님들의 법문과 육성, 향후 동영상 등을 국내 언제 어느곳에서나 보고 들으실수 있도록 무선단말기를 통하여 제공코자 합니다.
정식 서비스 시행에앞선 7월을 기하여 모든 불자여러분 또는 불교에 관심을 지닌 분들에게 따뜻의 안식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현대불교신문사를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법문서비스에 필요한 제반의 소프트웨어는 프리즘 정보시스템(주)가 개발 중에며, 고품질의 무선단말기는 (주)싸이버 벨크가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선상 난시청 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SK telecomm의 통신망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또는 전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주)한국대상이 홍보를 담당할 것입니다.
새로운 첨단서비스의 실시를 통하여 보다 앞서가는 불교의 이미지를 한층 더 확고히 하며,앞으로 다가올 무선서비스의 줄거움을 다함께 누릴수 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Mobile Network

불교정보서비스

Mobile network